

제 1 호

실물경제 동향

2011. 10



● ● ● 발간사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선진국에서 비롯된 세계경제 위기와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 긴장감은 갖되, 지나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올바른 경제상황 인식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잠재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서 경기둔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실물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부, 업계, 공공기관 등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물경제 동향」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실물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및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제시함은 물론, 그동안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창간호에서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협력”과 “산업인력 생태계 조성”을 특집기획으로 다루고 있어, 관심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아무쯁록, 「실물경제 동향」이 우리 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이해와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기업 등 관계자들과 지식경제부와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된다면 본 보고서 발간의 의의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보고서 발간을 위해 수고한 지식경제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경제부 장관

최 공 경

Contents ❖❖

I. 특집기획	1
1. 산업자원협력	3
2. 성공의 희망사다리 완성 - 산업인력 생태계 조성 -	43
II. 실물경제 동향	59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61
2. 수출입	70
3. 국제 직접투자	78
4. 에너지 수급	83
5. 업종별 동향	88
III. 주요정책	133
1. 주요 발표정책	135
2. 기타 활동 및 사업 추진실적	154
3. 4/4분기 정책 추진일정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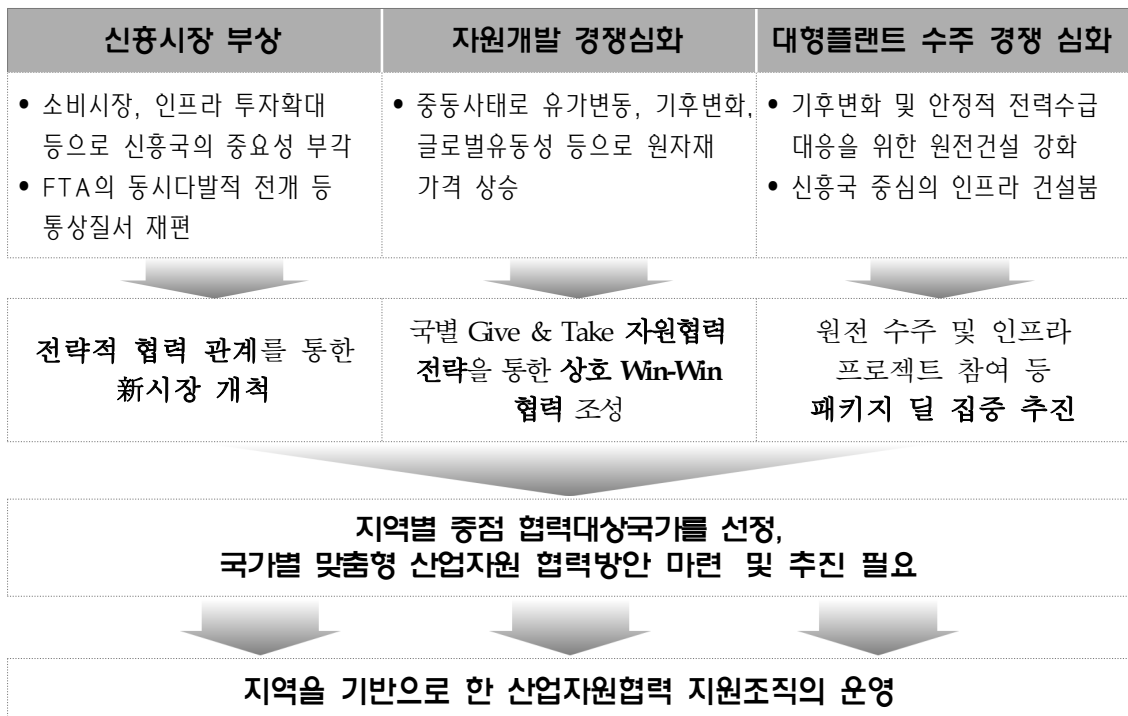


특집기획1.

산업자원협력

산업자원협력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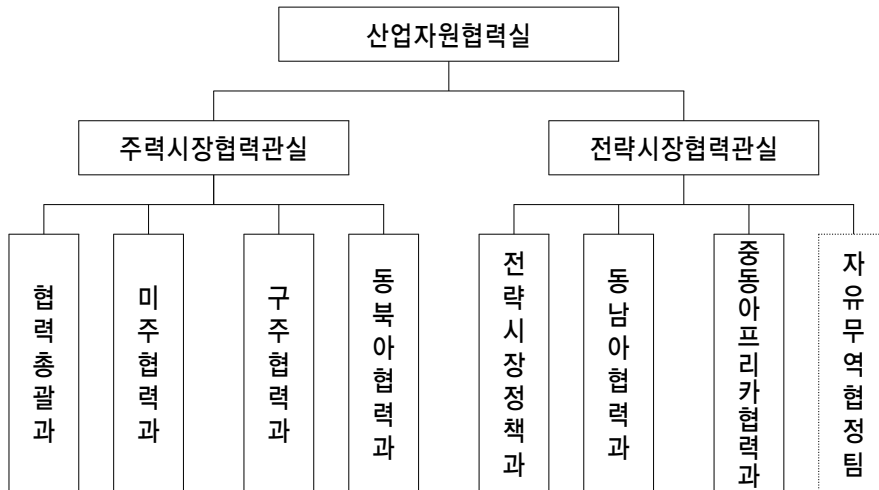
- 세계는 지금 신흥국의 부상과 동시다발적인 FTA 전개로 인해 급변하고 있고, 중국을 필두로 한 자원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급변하는 해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패키지형, 맞춤형 협력전략 수립 등 효율적인 산업자원협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해외 개발 프로젝트는 상대국가의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 협력은 종합전략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통합지원을 위해 산업자원협력실을 신설하였고, 해외 진출 기업과 정부간 소통의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상대국의 역량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직도

□ 산업자원협력실 (1급, 2관, 7과, 1팀)

- ◆ 선진국과의 협력중심 : 주력시장협력관실
- ◆ 신흥시장과의 협력중심 : 전략시장협력관실
- ◆ FTA전담조직 운영 : 자유무역협정팀



각 과별 기능

협력총괄과

-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지경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 지원
- 다자 간 산업·무역·자원 협력
- 산업·자원 관련 범지역적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각 지역협력과

- 각 지역 소재 국가와의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 소재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 민간경제협력 지원
- 지역 소재 국가와의 산업·자원 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자유무역협정팀

- 각 지역별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지원

1 산업자원협력 동향

산업자원협력실 협력총괄과(☎2110-3919)

가. 국내외 동향

해 외

□ (신흥시장 부상)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흥시장의 성장에 따라 소비시장, 인프라 투자확대 등으로 신흥국의 중요성 부각

- * '11년에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6.4%로 선진국 경제성장률 크게 상회 (IMF)
- * 선진국 성장률(%) : ('08) 0.2 → ('09) △3.2 → ('10) 2.7 → ('11) 2.2
- * 신흥국 성장률(%) : ('08) 6.0 → ('09) 2.5 → ('10) 7.1 → ('11) 6.4

□ (자원경쟁 심화)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변동,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각국 간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심화

- * 곡물수출 금지 및 희유금속을 둘러싼 갈등 등 자원 무기화 움직임 확대

□ (대형 플랜트 수주경쟁 심화) 신흥개도국 중심의 인프라 건설붐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중대되면서 경쟁도 심화

- * 세계 인프라 투자규모 전망('11~'30년 누적, 단위 : 조불) :
(물) 18.1, (전력) 9.0, (통신) 8.2, (도로/철도) 6.5

< 신흥개도국 성장에 따른 신흥국/선진국 GDP 전망 >

구 분	'10		'12		'15	
	신흥국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GDP 비중(%)	43	57	45(+2)	55(-2)	47(+2)	52(-2)
GDP 성장률(%)	15.3	1.7	8.2	3.7	8.3	3.8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 분야별 전 세계 인프라 투자규모 전망 >

(단위 : 억불)

구 분	'01~'10(연평균)	'11~'20(연평균)	'21~'30(연평균)	'11~'30(누적)
도로/철도	2,690	2,990	3,500	64,900
통신	6,540	6,460	1,710	81,700
전력	2,700	3,830	5,130	89,570
물	5,760	7,720	10,370	180,900
합 계	17,690	21,000	20,710	417,070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새로운 성장동력 : 신흥국 인프라시장, 2010)

국 내

□ (ODA예산의 증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09.11.25)에 따른 ODA 예산 증대

- * ODA 배정예산 : ('09)1조 9백억원 → ('10)1조 3천억원 → ('11)1조 7천억원
- * ODA/GNI : ('11)0.13% → ('12)0.15% → ('13)0.25%

□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수요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에 대한 개도국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UAE 원전 수주시 정보통신 기술 협력지원이 협상요소로 활용되는 등 관련 수요 증대

- * 기재부 주관 KSP(경제개발경험 전수) 사업 중 산업·기술협력 관련 프로젝트가 전체 200건 중 52건(26%) 차지 ('10년 기준)
- * KSP사업 지원대상국 : ('09)8 → ('10)16 → ('11)25 ('12년 지원대상국 미확정)

< 최근 5년간 ODA 공여 현황 >

(단위 : 백만불, %)

구 분	'05	'06	'07	'08	'09	비중
ODA 규모	752.3	455.3	696.1	802.3	815.8	100
양자	463.3	376.1	490.5	539.2	580.3	71.1
무상	318.0	259.0	358.3	368.7	366.1	(양자간 중 63.1%)
유상	145.3	117.1	132.2	170.5	214.2	(양자간 중 36.9%)
다자	289.0	79.2	205.6	263.1	235.5	28.9
ODA/GNI	0.10	0.05	0.07	0.09	0.10	-

* 자료 : 수출입은행 (EDCF ODA통계 분석, 2010)

< 산업·기술협력 관련 KSP 컨설팅 지원현황 ('04~'10년) >

지역	국가	건수	지역	국가	건수
동남아	베트남	7	중남미	도미니카(공)	5
	인니	7		브라질	1
	캄보디아	7	중동	사우디	2
중앙아	우즈벡	9		오만	2
	아제르	2	구주	터키	2
	우크라이나	6	아프리카	가나	2
합 계		38	합 계		14

* 자료 : 기획재정부, KDI (2010)

나. 동향에 따른 산업자원협력 추진방향

비전

산업자원협력 확대를 통한 산업강국·무역대국 도약

전략

전략국가별 맞춤형·패키지형 산업자원협력전략 추진

〈 4대 추진방향 〉

- I. 원전 등 대형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패키지형 협력
- II. 신흥국 경제발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경제협력
- III. 자원개발과 개발협력의 연계를 활용한 장기적 경험기반 구축
- IV. FTA 활용 민간부문의 선진국 시장 ‘新비즈니스 개척’ 지원

〈 주요과제 〉

자원개발

- 대상국가 자원과 교환가능 패키지 개발
- 탐사-개발-사후관리 자원개발 전 과정 패키지화

원전 및
인프라 수주

- 정부·민간 협력위원회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 국가별 원전·인프라·방산 등 정보교류 협조 기능강화

기술 및
인적 교류

- 상대국 수준에 맞는 기술협력을 기본으로 이와 연계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사업 (TTC) 시행
- 신재생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녹색기술 기술전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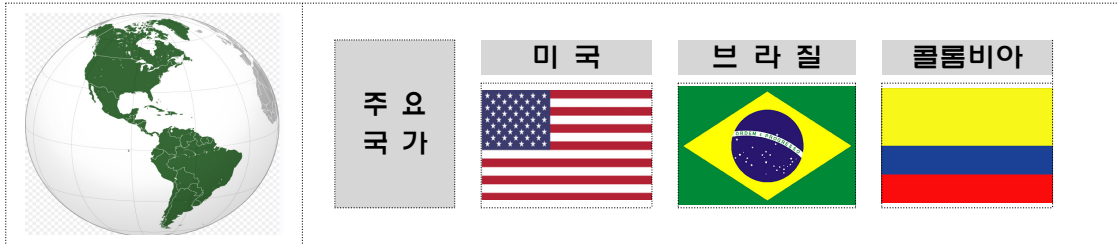
FTA 활용

- 한-ASEAN FTA 활용제고 및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FTA 추진
- 한-EU FTA 타결, 한-MERCOSUR FTA 추진

2 지역별 주요 산업자원협력 추진실적

미 주

산업자원협력실 미주협력과(☎2110-5384)



가. 주요 산업자원협력 추진실적

미 국	브 라 질	콜롬비아
세부 추진실적		
< 미래형 산업자원 전략 파트너십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현안의 원활한 해결 한미 FTA 비준 및 성과 확대 에너지분야 협력 파트너십 구축 	<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물, 유전, 원자력, 신재생 등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지평 확대 중남미 교두보로서의 협력위상 제고 	< 에너지·플랜트 중심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광물 분야 정부간 협력을 기업 프로젝트로 확대 정부, 국내기업의 공동진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계 입장의 적극적 대변을 통해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등 통상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 한미 FTA의 조기 비준 촉진과 수출/국내대책의 조화로운 추진 청정에너지 분야 공동 R&D 프로그램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해유전개발, 희토류 공동연구,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에너지 자원분야에서 8개 의제 추진 브라질 고속철 사업, 한-메르코수르 FTA 추진, 플랜트 분야 협력, 바이오에탄올 도입 등에 대한 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ok Asia 프로젝트, 포괄적 전력협력 등 대형 메가프로젝트 추진 민간 비즈니스 사절단과 정부 프로젝트 추진단의 전략적 연계 파견

나. 산업자원협력 세부 추진실적

【미국】

□ (정부간 협력) 통상현안 대응, 한미FTA 조기 비준, 미래형 산업 자원 전략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의 진행

① (통상현안 대응) 월풀社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美 정부의 非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인증제도 운영요구 등 통상압력 증대

* 북미시장 점유율 58.7%(’10,삼성:39.6, LG:19.1)인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제소(’11.3월)

-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 적극 대변 및 美측 이해 유도

* ’11년 5월 제1차 통상현안 점검회의, 4/4분기 중 실무분과회의 예정

- 월풀사 제소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미소마진 판정* 도출

* ’11.8.30 美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해당 건에 대하여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

② (한미 FTA 조기비준 지원) 한미 FTA 조기비준을 위한 미측 주요인사와의 고위급 논의 활성화

* 게리록 상무장관 면담(’11.4.28), 로이블런트 상원의원 접견(’11.5.30),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 면담(’11.8.10), 스티븐스 대사 오찬면담(’11.8.29) 등 주요 고위인사와의 면담 시 FTA조기비준을 위한 미측 비준 강조

③ (산업자원 전략 파트너십) 청정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한미 청정에너지 공동R&D 시스템 마련 추진

* 하반기 중 미국과의 협력MOU 체결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미래 전략육성 분야(에너지)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 (국내기업 진출지원) 바이오산업 및 조달시장 분야의 국내기업 미국진출 확대 지원활동 전개

○ 한-메릴랜드州 바이오산업협력 MOU* 체결(’11.6.9)

* 양국 기업의 상호진출, 제3국 공동진출, 유망 바이오분야에 대한 기술 및 인력교류 등을 활성화

○ UN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해 UN고위급과의 면담 실시(’11.9.10)

* 최중경장관-반기문사무총장 면담에서 우리기업의 UN조달시장 진출방안 논의

【브라질】

□ (정부간 협력) 브라질을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개최('11.6월) 지원

- 광물자원 협력확대, 유전 국제입찰 및 심해유전개발 협력, 해양 플랜트 협력과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협력 강화 추진

○ 한-브라질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 심화를 위한 협력의제 발굴

- 심해유전개발, 희토류 공동연구,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에너지 자원분야에서 8개 의제 발굴

- IT, 조선, 녹색기술, 기술표준 등 산업분야에서 11개 의제 발굴

○ 주한 브라질 상무관 면담('11.6월)

- 양국의 현안사항 및 제3차 한-브 산업협력위 개최 등 논의

○ 산업자원협력실장 주한 브라질대사 면담('11.7월)

- 브라질 고속철 사업, 한-메르코수르 FTA 추진, 플랜트 분야 협력, 바이오에탄올 도입 등에 대한 협력 추진

□ (국내기업 진출지원) 브라질을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진출지원

○ 민관 합동 경제협력사절단 파견('11.11월 중순) 예정

- 건설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분야 경제협력 포럼 및 비즈니스 상담회(1:1) 개최, 유관기관 방문 등

【콜롬비아】

□ (정부간 협력) 중남미 전략진출국가로 선정하여 산업·에너지·플랜트 메가 프로젝트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 산업자원협력 시행

① (한-콜 포괄적 경제협력 경과) 지경부 장관과 콜 양부 장관 면담(7.12일 상공관광부, 8.10일 광물에너지부)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

○ 콜롬비아 방문('11.8.29~9.2, 단장 : 산업자원협력실장)을 통해 양국간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실무 합의

* Look Asia Project(석유개발 + 송유관 + 항만 + 정유공장), 포괄적전력협력(전력 수급계획 + 스마트그리드 + 전력망현대화 + 수력발전), 녹색성장협력 MOU 체결

② (한-콜 정상회담) 양국 정상회담시('11.9.15) 동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금년중 구체적 사업 추진에 착수할 계획

□ (국내기업 진출지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수입업협회를 주관으로 하는 민간경제협력 사절단 파견('11.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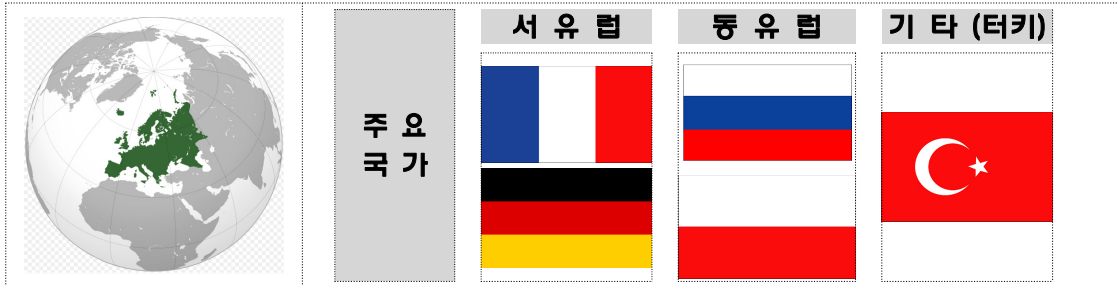
○ 한 - 콜롬비아 FTA 비준을 위한 민간분야 비즈니스 활동 강화 지원

* 양국 기업의 상호진출, 제3국 공동진출, 유망 바이오분야에 대한 기술 및 인력교류 등을 활성화

○ 동 사절단에 정부 실무협의단을 포함시켜 민·관 공동 메가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협력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구 주

산업자원협력실 구주협력과(☎2110-5375)



가. 주요 산업자원협력 추진실적

서 유럽	동 유럽	터 키
세부 추진실적		
< 전략광물 분야 협력 확대 > < 신재생 분야 협력 확대 >	< 산업자원 전반에 걸친 협력 > < 대형 프로젝트 중심 협력 >	< 전략적 협력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전략광물, 항공협력을 통한 상호협력 시너지 효과 제고 • [독일] 원전, 신재생 분야 협력을 통한 최고의 기술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경제현대화에 따른 의료, 조선, 에너지 등 전반에 걸친 협력 • [폴란드] 우리기업 수주유망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방산, 건설 등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제3국 공동진출 추진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광물 분야의 제3국 공동진출, 상용화 기술개발 등 공동협력 프로젝트 추진 • 대형 민항기 개발 참여,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사업 협력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원전 정책에 따른 협력 가능성이 높은 원전 안전 및 해체 분야, 기자재 조달 분야 협력 추진 • 독일 보유 태양광, 풍력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유치 추진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현대화와 연계된 산업전반에 걸친 협력 추진 • 동계올림픽(14년), 월드컵(18년) 연계 관광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수주 추진 • 러시아 유·가스전 개발협력 강화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훈련기 도입 전개에 따른 T-50 수출 추진 • 원전 2기 건설 추진에 따른 동향 주시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산교역 확대 균형을 위해 터키측 요청을 중심으로 철충 교역, 공동기술개발 협력 강화 • 건설분야('22년 카타르 월드컵) 및 자원개발 분야(이라크, 이란 등 유·가스전 개발) 제3국 공동진출

나. 산업자원협력 세부 추진실적

【서유럽】

□ (프랑스)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자원개발 공동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기술정책 공동협력, 공동R&D 과제 발굴 및 자금지원, 정보 및 전문가 교류 등 추진 합의
 - * 한-프랑스 산업경제장관 회담 개최('11.5월) 및 (한)산업기술진흥원-(프)국립 혁신청(OSEO)간 협력 MOU 체결
- 불측에서 전략광물(Strategic Mineral)분야 협력을 제안하여 제3국 공동진출,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등 프로젝트 구체화를 추진중

□ (독일) 글로벌기업 및 연구소 유치로 동북아 허브 역할 강화

- 한-독 투자유치로드쇼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확대
 - * '11.7월 뮌헨 등 3개 도시, '11.5월 베를린, '11.7월 뒤셀도르프 등 2개 도시에서 개최
 - Avancis社(태양광), Brose社(자동차부품), Wilo SE社(산업부품) 등 투자 유치
- 세계적 수준의 연구능력과 명성을 보유(英 Times Higher Education 조사, 기초연구분야 세계 1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유치를 추진
 - * 막스플랑크 연구소 : 독일내 80여개 연구소 보유, 직원 13천명, 연간 예산 13억 유로, 노벨상 배출 32명
 - 포스텍내 아토초(attosecond) 및 복합소재 연구센터 개소('10년)

【동유럽】

□ (러시아) 경제현대화 중점 프로젝트 중심의 참여확대 추진

- 디지털병원 시스템 등 의료기술·기기 분야 對러 시장 진출 기반 확립
 - * (한)의료기기조합과 (러)국립의대간 협력 MOU 체결('11.6월)

- **ETRI의 스콜코보 혁신센터 진출 등 양국간 R&D 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두보 마련**
 - * 스콜코보 혁신센터 진출을 위한 ETRI-스콜코보간 MOU 체결('11.6월)
- **블라디보스톡에 고압차단기 공장 건설('11.8월 착공)을 통한 러시아 전력시장 참여확대(현대중공업)**
 - * 러시아는 노후시설 송·배전 분야 손실률 40% 감소 목표 등 전력산업 발전전략 2030을 수립중(예산투입 70억불)
- **(폴란드) 무역투자 확대, I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추진**
 - **'한-폴 재보험협정' 및 '한-폴 포괄적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무역·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09년)**
 - * (한)무역보험공사-(폴)수출신용보험공사간 재보험협정, (한)수출입은행-(폴)투자청·산업은행간 포괄적 투자협력협정 체결
 - **산업기술진흥원(KIAT)은 POLSKA(The Entrepreneurial Poland), 전자 부품연구원(KETI)은 통신연구원(NIT)과 협력 MOU 체결('11.3월)**
 - 향후 IT 분야 공동연구개발 및 전문인력교류를 위한 기반 마련
 - **폴란드 그단스크 지역의 대형 풍력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기업 (남동발전·삼성중공업)의 참여 추진**
 - * Sary Targ-Dzierzgon(스타리 타르크-쥐에즈곤) 프로젝트 : 84MW, 2억불 규모

【기타】

- **(터키) 방산 등 우리의 전략분야에 대한 협력 가속화**
 - **양국은 최대 방산협력국(우리의 방산수출 2위 대상국)으로 훈련기, 전차 등에 대한 기술협력 및 절충교역 추진**
 - * 터키는 우리의 방산수출 2위 대상국 : '00~'10년 누계 약 12억불

□ (루마니아) 제5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 개최('11.3월, 부카레스트)

○ Cerchezu 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참여기업간 MOU 체결

* 세르케주(Cerchezu) 풍력단지 : 80MW 규모, 남동발전·삼성중공업 참여

○ “EU기금 프로젝트 플라자”(기업상담회)를 개최하여 루마니아내 환경 플랜트 사업의 수주지원(28백만불 납품계약 체결)

○ (한)전자부품연구원-(루)마이크로기술연구소(IMT)간 정보통신 분야 협력 MOU 체결

○ 구매사절단을 파견(수입업협회), 상담회 개최로 무역 확대 추진

○ 한국기업인 체류허가절차 간소화, 대우 망갈리아 조선소 정상화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

□ (불가리아) 제1차 한-불가리아 산업협력위 개최('11.3월, 소피아)

○ 불가리아가 원전운영국으로 한국형 원전에 대한 관심표명에 따라 한국형 원전 홍보 등 원전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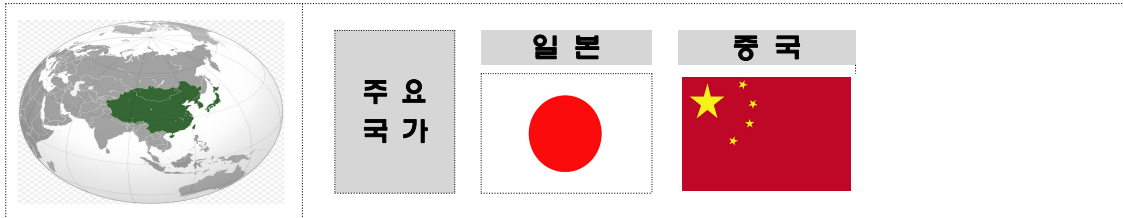
○ (한)전자부품연구원-(불)정보통신협회(BAIT)간 정보통신 분야 협력 MOU 체결

○ EU기금으로 진행되는 인프라·플랜트 건설, 공동연구개발(녹색기술, IT 융합기술 등), 농업(U-화훼), 중소기업 분야 협력 강화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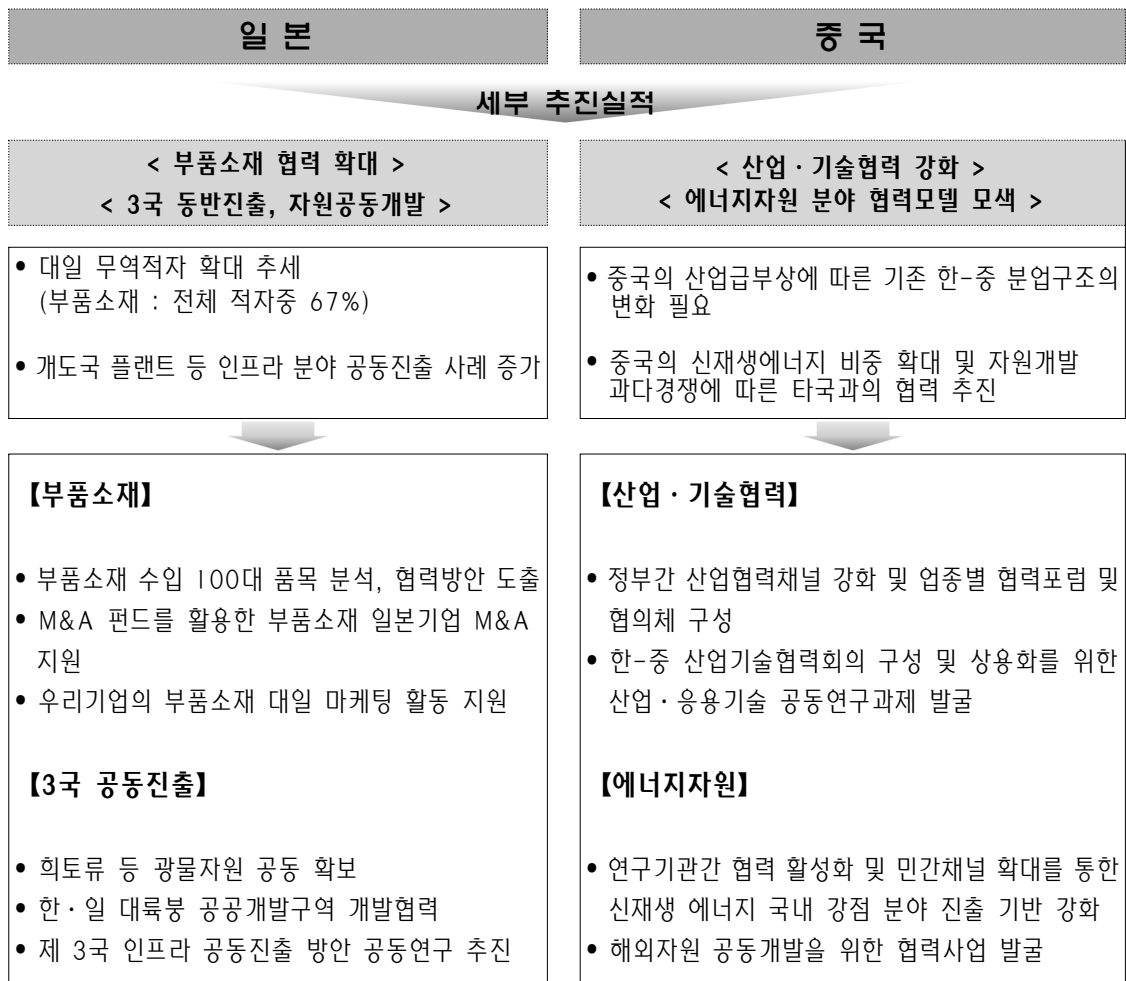
아시아

1 동북아

산업자원협력실 동북아협력과(☎2110-4856)



가. 주요 산업자원협력 추진실적



나. 산업자원협력 세부 추진실적

【일본】

□ (협력채널 활용) 일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협력 활성화

- **한중일 정상회의**(‘11.5월 대통령 방일)의 **정례적 추진**으로 3국간, 양자간 경제교류 활성화

-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금년내 종료 추진,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추진 등 분야 협력증진 합의
- * (한일) 동북지방 부흥·관광지원을 위한 한일 파트너십 합의

- **한일 에너지실무협의회**(‘11.하반기, 한국), **한일 디지털실무협의회**(‘11.하반기, 동경), **한일 표준화정례회의**(‘11.6월, 한국) 등 **분야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하여 **경제통상 현안 논의**

- * 실무 협력채널을 통합하는 경제산업성과 장관급 협력채널 구성 협의중

- **한일경제인회의**(‘11.9.28~29), **한-호쿠리쿠 지역경제교류회의**(‘11.9.5~7, 경주), **한-큐슈 및 환황해 지역경제교류회의**(‘11.11.15~18, 대전) 등 개최를 통해 지역간 산업협력 촉진

□ (양국 기업간 산업협력 지원) 한일 기업간 협력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인력교류 등 지원 및 각종 협력사업 전개

- **부품소재 조달공급전시회**(‘11.11.1~2, 코엑스),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대일역조의 큰 부분인 **부품소재 분야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

- * 글로벌 수요 연계형 R&D 기반의 복합적인 비즈니스 Development 지원

- ** 2010년 부품소재 분야 적자가 전체 대일 무역적자의 67% 차지

- **對일본 투자유치 IR**(‘11.하반기), **일본기업 투자사절단 수용**(‘11.10월)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 일본 우수 퇴직기술자 DB 확대 및 매칭 지원, 국내기술자의 부품소재 일본기업 연수과건 등 **한일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인재양성**

- (에너지자원) 희토류, 리튬 등 광물자원 공동확보,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구역 개발협력, LPG 국제가격체제 개선 공조 등 협력 강화

* 금년내 한일 에너지 실무협의회 개최 예정(11월 개최 제안)

- 자원 개발 및 플랜트 등 인프라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추진

* 대표적 사례 : 인니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 짜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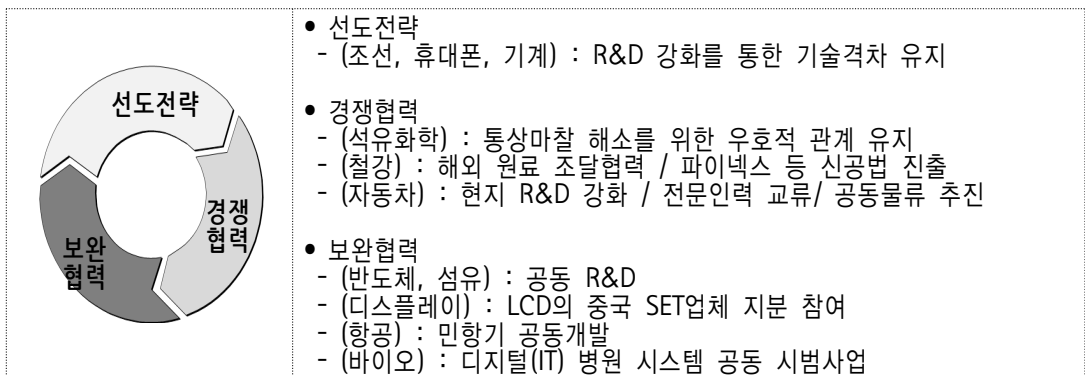
【중국】

- (협력채널 강화) 정부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산업협력 활성화

- 지경부-中공업신식화부간 산업부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추진 합의('11.5월)

- 원전기술포럼 및 산업장관회의 등 장관급 채널로 확대 추진

- (산업 분업구조) 한중 업종별 경쟁·보완관계를 적극 활용, 중국시장 진출,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술·인력교류 등 다양한 산업협력 모색



- (에너지·자원) 중국 Needs의 녹색산업(신재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절약) 선제적 협력, 기존 에너지·자원 공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추진

- 국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기반을 강화하고 해외자원 공동 개발 등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연구기관간 협력 활성화, 경제단체 등 민간채널 확대(한중 녹색산업간담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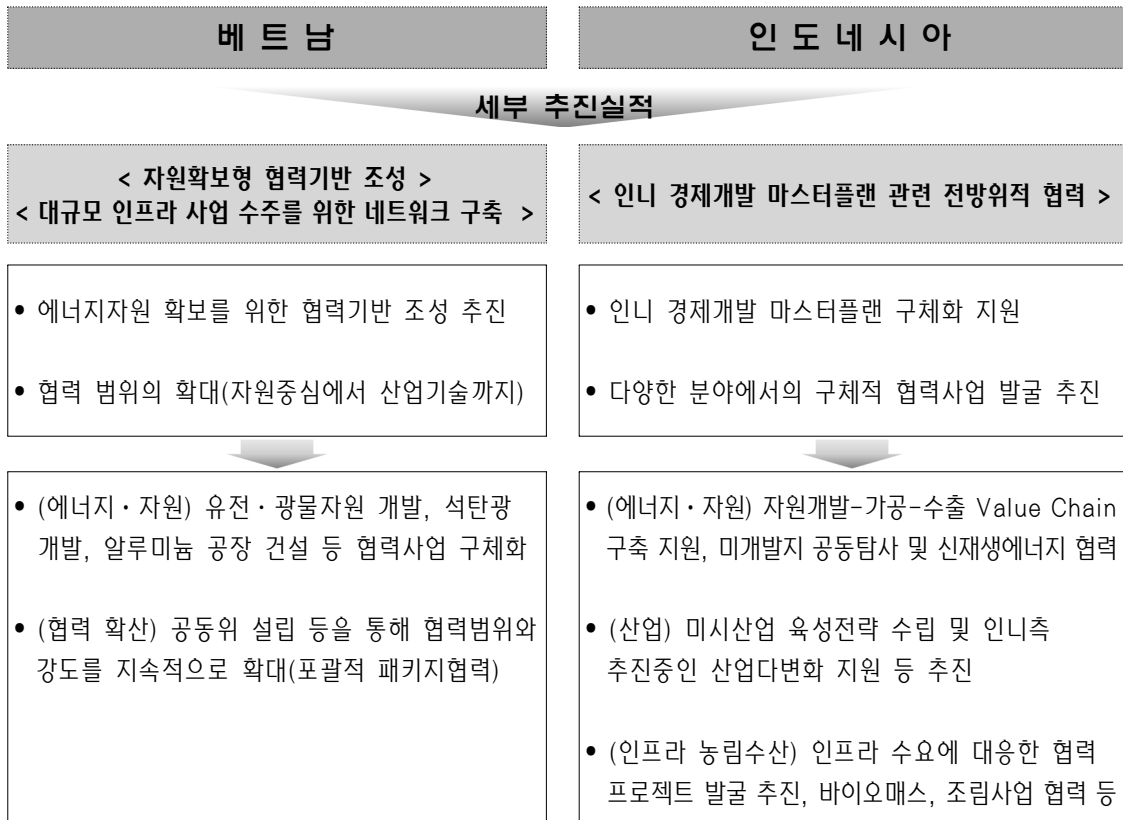
* 韓 가스공사-中 CNPC 간 협력 MOU 체결 추진 등 협력사례 창출 추진

2 동남아

산업자원협력실 동남아협력과(☎2110-4622)



가. 주요 산업자원협력 추진실적



나. 산업자원협력 세부 추진실적

【베트남】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기초한 자원 에너지 협력) 7차례의 한-베트남 자원협력위 개최(7차, '10.12월)를 통한 경험 구체화

* 공식 수교('92), 포괄적 동반자 관계('01),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09)

○ (석유·가스) 최초 광권 획득 광구인 베트남 남동해상의 11-2 광구 및 15-1광구에서 가스와 원유 생산중이며, 양국 석유공사간 제3국에 대한 공동탐사 및 개발사업 추진 모색

○ (광물자원) 베트남 바오다이 지역의 석탄광 개발(매장량 : 무연탄 15억톤) 사업 및 광해방지 분야 사업 기본계약 체결, 베트남 현지 알루미늄 제련공장 설립 추진

○ (발전사업) 베트남 남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45억불 규모) 주요 조건 합의서(PA) 체결 및 프로젝트 본격 추진, 베트남 최초의 민자발전(IPP) 프로젝트인 몽중 2 석탄화력발전소 착공(20억불 규모)

□ (경제협력의 심화) 자원·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기초한 협력을 넘어 본격적인 경험기반을 확충

○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설립('11.7.12)하여 공동위 및 분과위 위원 선임, 운영 규정, 작업계획 등 공동위 구성·운영방안 협의

○ 한-베트남간 본격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운영중

【인도네시아】

□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한·인니 정상회담('10.12월, 발리)시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에 한국이 주파트너로 참여한다는데 합의

* 인니 정부,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발표('11.5.27)

- 인니 대통령 특사단(長: 하따 경제조정부장관) 방한('11.2월, 서울)시 마스터 플랜 협력 실무협의 채널 마련, 주요 협력의제 심화·발전에 합의

* 지경·국토해양·기재·농식품·외교부, 방사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장관회의 개최(2.16)

- 대통령 특사단(長: 지경부장관) 인니 방문('11.5.17~19, 발리), 대통령 친서 전달, 한·인니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 채널 마련

* 합동장관회의, 경제협력위원회, 7개 분과 실무 T/F회의의 구성 등

-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협력을 전담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지원조직 설치 추진중

□ (구체적 협력의제의 발굴·제안) 포괄적 경제협력의 실질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제를 발굴·제안

- 양국간 경제협력을 상징할 수 있는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발굴·추진 등 핵심적 의제 제안

- 실무 T/F 1차 회의를 개최('11.5월), 7개 분과(무역·투자, 산업,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농림·수산, 방산·국방, 정책금융) 55개 의제 제안

- 5월 발리회의 후속조치 협의 진행

3 서남아

산업자원협력실 전략시장정책과(☎2110-4638)



가. 주요 산업자원협력 추진실적

< 협력채널 활성화 >	<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	< 기술-인적교류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아 정치경제 특성을 감안,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채널 활성화 및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등의 two-track 접근 시행 • 인적관계 형성이 중요한 기업 환경을 고려한 민간차원의 협력채널도 적극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원전도입 추진 관련 수주지원 활동 전개 • 제철·석유화학 플랜트 및 대형 인프라사업 등 우리기업 경쟁력 보유 부분의 참여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통한 국내 SW글로벌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력위 활성화를 통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같은 공동 관심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 에너지 투자협력 추진 • 시장이 크고 경제협력 수요가 많은 관계로 경협사업 관련 네트워크 및 기반 구축에 역량 우선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건설 재원조달 지원 검토 및 에너지자원 분야 패키지 협상안 마련을 통한 수주지원 추진 • DMIC(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와 같은 대형 국책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도 IT/SW분야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지식 플랫폼 구축 추진

나. 산업자원협력 세부 추진실적

【인도】

- (정부간 협력) 인도를 서남아 진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포괄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추진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한-인도 양국간 정상회담('10.1월 대통령 방인, '11.7월 파틸 인도대통령 방한)의 연례적 추진
 - * 인도 파틸 대통령 방한('11.7월) 성과 : 한-인도 원자력협정 체결,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합의, 방산·항공·우주 등 의 분야의 협력 확대 논의 등
 - 지경부 제2차관의 인도, 스리랑카, 네팔 방문('11.2월)
 - * 방문성과 : 인프라, 전력 분야에 한국기업의 진출 지원, COP18(UN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활동,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투자 애로사항 해소지원 등
 -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 CEPA공동위원회,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 분야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하여 경제통상 현안 논의
 - * 제1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 개최('11.1월), 제2차 한-인도 재무장관 회의('11.1월), 제4차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11.11월 예정)
 - 한-인도 IT/SW분야 Joint Working Group 회의 개최
 - 양국 정부간 IT/SW분야 협력의제 논의를 위한 정기적 협력 채널 구축
 - * Joint Working Group 회의(연1회, 1급수석대표, 제1회('10.1월), 제2회('11.11월예정))

□ (국내기업 진출 지원) 인도를 서남아 진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진출지원

○ 반덤핑 빈도가 가장 높은 인도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처

- 제1차 무역구제협력위(韓 무역위, 印 상공부)를 개최를 통해, 무역구제 현안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분쟁을 사전예방('10.6월, 서울)

* '10.1월 대통령 방인시, 무역구제협력을 위한 MOU 既체결(韓무역위-印상공부)

** '11.9월말 기준, 인도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는 22건(조사중 3건)으로, 규제국 중 가장 많은 건수이며, 화학·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에 집중

○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방안 연구('11.5~10월, KIEP)

* DMIC 프로젝트 : 델리-뭄바이 화물 전용철도(1,483km)를 중심으로 전후방 300km 면적에 대해 도로, 항구, 공항, 전력, 복합교통시설, 산업단지 등을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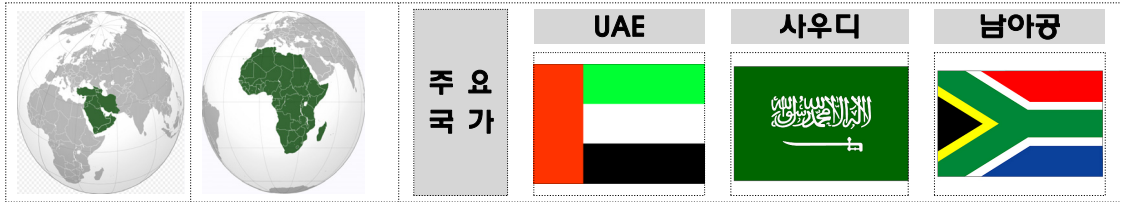
- DMIC 사업담당 책임자 초청 설명회 개최('11.6월, 뉴델리), KOTRA 주관 기업 현지시찰 추진('11.12월 예정) 등

○ 민관합동의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對인도 투자유치 IR 등을 통해 양국 기업간 무역·투자 지원

- 인도, 스리랑카, 네팔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11.2.21~27), 한-인도 비즈니스 협력 포럼 개최('11.6.13~15, 상담건수 354건, 상담액 43백만불), 제1회 對인도 투자유치 IR행사 추진('11.11월, 뭄바이 계획)

중동·아프리카

산업자원협력실 중동아프리카협력과(☎2110-3911)



가. 주요 산업자원협력 추진실적

UAE	사우디	남아공
세부 추진실적		
< 중동 진출 교두보 구축 > < 석유·가스 및 플랜트 협력강화 >	<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 < 석유·가스 및 플랜트 협력강화 >	<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구축 > < 자원개발 협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UAE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 중동국가 중 한국의 2위 무역 상대국이자, 최초의 원전수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제 1위 산유국이며 우리나라의 제 1위 석유도입국 • 중동 최대 자원부국이자 중동맹주국으로 경제·소비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1위 경제 대국, 지역 선도국이자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 • 아프리카 최대 자원 부국이자, 남아프리카 경제·금융 중심지
【무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합동 사절단 교류, 경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경험 모멘텀 마련 • 국부펀드를 활용한 양자간 산업협력 추진 【에너지·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력채널 운용, 기관간 MOU 등을 통한 협력 기반 구축 • 유전개발 진출,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담수, 건설프로젝트 수주 	【무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합동 사절단 교류, 경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경험 모멘텀 마련 • 국부펀드를 활용한 양자간 산업협력 추진 【에너지·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력채널 운용, 기관간 MOU 등을 통한 협력 기반 구축 •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담수, 건설프로젝트 수주 	【무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합동 사절단 교류, 경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경험 모멘텀 마련 • 유통물류센터, 현지 지사 설립 등 경험 인프라 강화 【에너지·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력채널 운용, 기관간 MOU 등을 통한 협력 기반 구축 • 희유금속,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자원개발 진출 확대 【건설·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 송배전 등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

나. 산업자원협력 세부 추진실적

【UAE】

- (경협 모멘텀 마련) 주요 고위인사 UAE 방문(대통령, 지경부 장관)을 통해 UAE와의 경협 활성화 기반 마련('11.3월)
 - UAE 원전수주를 토대로 양국간 장기적인 협력관계 유지·강화
 - * 인력, 신재생에너지, 조성, ICT 반도체 등 에너지·경제협력으로 對중동 진출 교두보 확보
 - UAE원전 예정부지 기공식 참석('11.3월)을 통해 UAE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려 UAE원전에 대한 지지기반 공고화
 - * '09.12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UAE 경제협력사업」의 성과를 UAE측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한-UAE간 경제협력활동 확대의 장 마련
 - 석유공사-아부다비석유공사 간 유전개발 MOU(10억배럴 이상) 및 주요조건 계약서(HOT; Head of Terms) 체결(총 5.7억B 규모)('11.3.13)
- (경협 기반 구축) UAE원전 사업은 건설에서 운영까지 약 100년간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양국간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한국)와 외교부(UAE)'간 경제협력협정을 체결('09.12.27)
 - 한국과 UAE 정부간 경제협력의 주요목적은 세부 경제협력사업의 발굴, 이행지원, 모니터링 등 협력 메카니즘 구축
 - * 협력분야 : 원자력·재생에너지·인력양성·ICT·조선·반도체 등 6개 분야
 - 한-중동 신년교류회('11.1월), 중동 전문가 포럼 개최('11.4월), UAE 아부다비 기업방문단 초청행사('11.5월), 플랜트 수주 자문단 운영을 통한 對UAE 플랜트 수주 등 진출 지원

【사우디】

- (경협 모멘텀 마련) 주요 고위인사 사우디 방문(대통령, 지경부 장관, 산업자원협력실장)을 통해 사우디와의 경협 활성화 기반 마련('11.4~6월)

- **클린에너지 장관회의 참석**(’11.4.9, 사우디, 지경부 장관)시 석유가스 수급안정화, 플랜트 수주확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 * 사우디 석유광물부장관 면담시 석유수급 안정화방안 논의 및 KA-CARE (킹 압둘라 원자력·신재생에너지연구원) 원장 면담시 킹압둘라 시티(U-City) 및 태양광분야 기술, 인력양성 방안 협의
-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 사우디 방문시, 석유·가스, 신재생 분야 협력 협의 및 비즈니스포럼 개최를 통한 무역·투자 협력 활성화 추진**
 - * KA-CARE원장과 신재생에너지 워크숍 개최(’11.6.11)
- **(경협 기반 구축) 사우디에 포괄적 경제협력 MOU(지경부-사우디 경제 기획부)를 제안하는 한편 분야별 구체적 산업협력(안) 제안**(’11.6월)
 - **자동차 인력양성, IT, MIC(Multi Industry Cluster), 조선 등 구체적 협력 사안 제안**
 - * 주요 내용 : 한-사우디 공동위원회 설치(장관급, 양국 교차 개최), 에너지, 산업, 기술, 인력양성 등 각 분야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
 - **중동 전문가 포럼 개최(4월), 중동전문가 그룹미팅을 통해 중동 진출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플랜트 수주 자문단 운영을 통해 對사우디 플랜트 수주 지원 확대**

【남아공】

- **(경협 모멘텀 마련) 고위인사 남아공 방문(대통령, 지경부 장관 등) 및 경협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阿 경협 활성화 모멘텀 조성**(’11.7월)
 -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한국상품전시회」를 개최**(’11.7.4~6, 남아공) 하여 한국 우수제품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 개막식에 남아공 통상산업부장관(Dr. Davies), 요하네스버그시장, 투자유치청장, 상의회장 등 500여명, 남아공 및 인근국가로부터 매일 3천여명의 관람객 참가
 - **프로젝트 발굴·상담을 위해 남아공, 케냐 등의 철도, 항만, 에너지 분야 발주처 고위인사를 초청해 「Africa Project Plaza」**(’11.7.5~6, 남아공) 개최
 - * 참석자 : (아프리카) 케냐 철도공사 사장, 수단 통신공사 사장 및 남아공,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가나 등 고위급 인사 , (한국) 철도공사, 철도 시설공단, 포스코, 삼성물산, 한화 등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IT서비스 프로젝트 진출을 확대를 위해
「e-Smart World Africa」 ('11.7.5~6, 남아공) 개최
 - * 참석자 : (아프리카) 남아공, 케냐, 보츠와나, 모잠비크 등 IT 관련 고위급 인사,
 (한국) 삼성 SDS, LG CNS, 포스코 ICT, 문엔지니어링, 위니텍 등
- **(경협 기반 구축) 지경부-남아공 에너지부간 에너지 협력 LOI를 체결***하여, 양국 정부간 공식 에너지 협력채널 구축 ('11.7월)
 - * 주요내용 : 한-남아공 에너지협력위원회 설치(실장급, 양국 교차 개최),
 에너지분야(전력,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CTL 등) 협력 사업 발굴·추진 등
- 양국 자원개발 기관간 **희토류, 희유금속 및 석유·광물 등 자원개발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자원개발 진출 기반 마련**
 - * 블락플라츠 유연탄개발 계약(광물공사-Continental Coal社, '11.3월), 포스코롬社 지분인수 MOA(포스코-Samnacor社, '11.7월), 희토류 개발협력 MOU(광물공사-Frontier社, '11.7월) 등
- 양국 무역·투자 기관간 **협력 MOU 체결***, 중소기업 사절단 파견 ('11.4·7월) 등을 통해 남아공, 남아프리카 무역·투자 진출 교두보 구축
 - * 무역금융협력 MOU(무보-수출보험회사, '11.7월), 무역·투자협력 MOU(KOTRA-무역투자청, '11.7월)
- **(프로젝트 수주 지원) 남아공 주요인사 면담*** 등을 통해 남아공 민자 발전사업 등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측면 지원
 - * 지경부(무역투자실장)-남아공(통상산업부장관) 면담('11.7.4), 한-남아공 정상회담('11.7.5)
 - ** 쿠하 가스발전(40억불),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총 1.5억불) 등
- **아프리카 특성에 부합하는 중소형 플랜트 진출 지원 방안 모색**
 - * 추진 일정 : 국내기업모집('11.1/4), 온라인마케팅 및 브로슈어제작('11.2/4), 사절단 파견('11.11월)

3 산업자원협력 정책 추진계획

몽골 · 중앙아 경제협력

산업자원협력실 동북아협력과(☎2110-4733)

전략시장정책과(☎2110-4634)

1. 포괄적 산업자원협력 확대

- (에너지 · 자원)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전략광물 중심으로 자원협력을 강화
 - (몽골) 청정석탄 에너지기술협력 J/V설립, 친환경 석탄연료 개발 · 보급 사업 구체화 노력*, 방사성광물 · 희토류 협력 확대('12.상)
 - * 반무연탄, 성형탄 공장 설립 · 운영, 연탄난로 보급 등(한 광해관리공단, 민간 기업- 몽 자원에너지부, 울란바타르시 협력사업)
 - (우즈베크) 수르길 가스전개발 프로젝트 후속조치, 석유광구 공동탐사 개시(서페르가나/취나바드) 및 희유금속 공동탐사 추진*(Lolabulak-Bayankara)
 - * 희토류·희유금속 유망광상 공동탐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공동TF 구성
 - (카자흐) 발하쉬 사업 지분협의를, 아티라우 사업 P/F, 잠빌광구 탐사시추 등 진행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에너지효율(송배전 손실 감축), 희유금속 개발·가공, 원전 및 우라늄 광산 등 신규분야 협력 확대
- (산업 · 무역 · 인프라) 현지 조사단, 무역 · 구매사절단 등을 파견하여 경험의 폭 확대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 (몽골) 양모산업 현지조사단('11.10), 구매사절단('12)을 파견
 - (우즈베크) 무역사절단을 파견(9월중)하고, 면펠프 공장 생산개시('11하, 대우인터), 섬유기업(영원무역 등) 진출지원 및 군사기술 협력 강화
 - * 국내에서 우즈베크 농산품 전시회 개최 검토('11~)

○ (카자흐) 인터넷활용 교육, 전자정부 구축과 광대역 인터넷 도입 지원

□ (보건의료) 협의체 구성('11, 몽골), 인력 교육(우즈벡, 카자흐) 등 협력사업 지원

- * (몽골) Seoul Project 사업계획 마련, 몽골진출 의료기관지원 제도개선 협의
- * (우즈벡) U-health 시스템구축 지원협의, (한)보건산업진흥원-(우)의사협회간 MOU('11.12)
- * (카자흐) 수액공장 설립, 심장전문센터 설립('11.12)

2. 전략적 ODA 적극 활용

□ (유무상원조) 공공행정, 기후변화, 교육 등 분야의 ODA 지원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경험분위기 확산

○ (몽골) 향후 5년('11~'15) 동안 3억불 규모 EDCF 기본약정 체결 추진 및 2천만불 이상의 무상원조(KOICA, 교과부, 산림청 등) 지원('11)

○ (우즈벡) 2억불 규모의 EDCF 차관 추가지원 계획(~'13), 배전손실 마스터플랜 마련 및 대학 전자도서관 등 구축(총 10.5백만불, 무상원조)

□ (KSP) 한국의 특화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발굴된 구체적인 경험사업은 EDCF·KOICA 사업 등과 연계

- * (몽골) 자본유입(capital inflow) 유동성 대응, 예산 재정정책 개혁 등
- * (우즈벡) 국가 혁신시스템 강화
- * (카자흐(요청안)) 세계경제 동향분석, WTO·OECD 가입, 혁신 R&D, 산업단지 등

3. 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채널 강화

□ (교류 지원) 한-몽골/한-카자흐 인적교류 및 항공 공급력 확대 위한 양자간 항공회담('11) 개최, 한·카자흐 산업자원협력 로드맵 수립 추진('11~)

□ (경협채널) 한·몽골 자원협력위(10월), 한·우즈벡 산업자원협력위 개최 협의('11~)

아프리카 경제협력

산업자원협력실 중동아프리카협력과(☎2110-3911)

1. 에너지·자원 분야를 넘어 산업·무역·투자 등 포괄적 경험 활성화

- (산업·무역) 무역·투자 포럼 개최, 주요국 경험사절단 파견 및 아프리카 고위인사 초청 등을 통해 전방위 경험 활성화 지원
 - 제2차 「아프리카 무역·투자 포럼」 개최('11.9월, 서울)를 통해 현지 무역·투자 정보 공유와 아프리카 유망시장 진출기반 조성
 - 아프리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여 아프리카 관련 경험 전략 모색, 정보공유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모(분기 1회)
- (에너지 협력) 「한-남아공 에너지협력 LOI」 후속조치 이행 및 아프리카 에너지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남아공과의 포괄적 에너지협력 추진
 - 남아공 에너지부와 제1차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전 협력,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등 분야 협력을 구체화('11.하, 서울)
 - 남아공 원전 수주 기반 조성을 위해 원전 담당 고위 및 실무급 책임자 초청 교육훈련 추진('11.하)
- (자원개발) 아프리카 자원개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자원개발 진출 본격화
 - 희유금속 공동탐사(DR콩고/에티오피아) 등을 통한 신규 광구 확보 추진 및 아프리카 국영석유회사와 석유공동개발 추진
- (플랜트·SOC)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의 대형 전력·가스 및 SOC 플랜트 수주 및 아프리카 특성에 부합하는 중소형 플랜트 진출 지원
 - 아프리카 주요국 건설·플랜트 발주담당 민관 고위인사를 제3차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11.10월)에 초청, 수주지원 및 산업협력 강화
 -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자체 재원을 보유한 북아프리카, 남아공 등 자원부국들의 발전·인프라 등 프로젝트 수주 지원

- 국내 중소형 플랜트 시장 현황 및 아프리카 주요국(남아공, 가나) 진출 여건을 조사·발표하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사절단 파견 등 추진
- (농업기반구축) 에티오피아, DR콩고 등 아프리카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이전 등 공동협력 프로젝트 발굴·추진
 - 게이트즈재단과 가계단위 관개기술(HIT)을 이용한 에티오피아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농식품부)

2. 전략적 ODA, CSR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마음을 사는 협력 추진

- (ODA) 對아프리카 ODA를 향후 5년간 양자 ODA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 (무상) 교육, 보건, 농업 등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아프리카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기여
 - * 양자 무상원조의 25%내외 지원
 - (EDCF)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경제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AfDB 및 WB 등과 협조유자를 적극 추진
 - * 에티오피아 Gebre-Guracha 전력망 확충사업, DR콩고 상수도 공급사업, 가나 Prestea-Kumasi 전력강화사업 등

- (KSP)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는 KSP 사업을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 수립, 농촌 개발, 산업다각화, ICT 등의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KSP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굴된 구체적 경험사업은 EDCF와 긴밀히 연계

3. 정보제공 등 인프라 구축 및 협력채널 강화

- (지원 인프라) 아프리카 현지 공관, KOTRA 무역관 등 한-아 경험 인프라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 측면 지원
 - 협력 잠재력이 높은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주요국에 공관을 신설·강화, KOTRA 무역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 * 아프리카 유통물류센터 신설 검토 지역 : ('11) 카이로 → ('12) 요하네스버그 등
- (경험 채널) 한-아프리카 산업·에너지·자원 등의 민관 협력 채널을 활성화하여 경험 사업 발굴 및 우리기업 애로 해소 등 지원

4 2011년 상반기 외국의 산업자원협력 동향

산업자원협력실 협력총괄과(☎2110-3919)

미 국

- (전략적 자원 확보 활동 강화) 안정적 산업자원 확보 움직임 강화
 - RESTART(Rare Earths Supply Chain Technology And Resources Transformation Act of 2011 ; 미 희토류 산업 활성화)법안 추진
 - * ('11.4월) 공화당 마이크 코프만 의원 발의안 상정 → ('11.5월) 에너지 환경 소위 → ('11.10월 현재) 소위 심사 대기 중

☞ RESTART 주요 내용

-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제한에 따른 전략 희토류(주로 국방용) 비축 확대
- 희토류를 국가보안과 직결되는 전략물자로 분류 지정 추진
- 주요 장관들로 구성된 '희토류 정책 TF' 운영
- 미국내 희토류 개발 추진 (미국 ; 세계 3위 희토류 보유국, 13.1%)

러시아

- (舊소련국과의 자원협력 강화) 유럽발 가스를 운송하는 회사 지분 인수를 통한 유럽 가스시장에 대한 장악력 강화 추진
 - * 벨라루스 가스운송회사인 벨트란즈가스 50% 지분 취득 추진
 - * 가즈프롬, 우크라이나 나프트ogas 지분 취득 추진
- (일본과의 자원협력 강화) 일 원전사태를 활용한 자원수출 강화
 - 일본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 합의
 - * 러, 일본에 동시베리아 꼬빅타 가스전 개발, 차얀다 석유가스전 개발협력, 옐킨스꼬예 석탄 공동개발 제안
- (기타 자원부국 대상 협력 강화)
 - * 러시아 가즈프롬네프트, 이탈리아 ENI社의 리비아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지분 33%(1억 7,800만불) 인수
 - * 러 놀리스크 니켈(세계 최대 니켈 생산업체)과 루스알社, 인니에 30억불 규모 니켈 제련소 건설 추진
 - * 러 루스알(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社, 카메룬에서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늄 생산을 적극 검토 중

일 본

- (러시아·CIS권과의 자원협력 강화) 원전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강화
 - 일 자원에너지청-러 가스프롬社간 블라디보스톡 LNG 시설건설 합의
 - * 블라디보스톡 근교 CNG 생산의 채산성 조사와 블라디보스톡에서 아시아 태평양제도로의 가스 운송판매에 관한 사업화 조사도 진행
 - 일-우즈베크 자원개발 분야 무역·투자확대 합의
 - * 가스, 석유제품의 판매전략에 관한 공동연구, 우라늄 탐사 지원계획 합의
- (오지투자 확대) 자원보유 오지 투자진출 확대 추진
 - 앙골라와 파푸아뉴기니와의 투자협정 조인
 - * 日기업 앙골라(사하라 이남 최대 산유국) 진출 촉진을 위한 투자협정 체결 추진(2월)
 - * 파푸아뉴기니에서 엑손모빌-치요다 LNG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자원의 공급을 위해서 투자협정 조인(4월)

중 국

- (희토류 관리 강화) 희토류 '자원세 신설' 및 수출허용량 감소
 - 하반기 희토류 수출 쿼터를 15,738톤(전년 대비 2배)으로 확정
 - * 현재까지 쿼터에 포함되지 않았던 '희토류가 10% 이상 함유된 철합금'이 추가되어 실질적 수출허용량 삭감
 - 희토류, 자원세 징수 대상 품목으로 선정
 - * '11.7월, 전국세법지식대전에서 자원세 개편시 종량세를 종가세로 변경(위안/톤 → 매출액 5%)하고,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원소별(17종)로 부과 방안 보고 (국가세무총국→국무원)
- (자원협력의 내실화 도모) 해외 자원프로젝트 추진의 속도 조절
 -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영기업의 해외투자 관리 강화
 - * 중국 3대 석유기업(페트로차이나, CNOOC, 시노펙)의 해외투자의 2/3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 ('10년 - 누적기준 144건, 700억불)
 - *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중앙기업 경외 국유자산 감독관리 잠행방법》 및 《중앙기업 경외 국유산권 관리 잠행방법》 발표, 향후 대형 국유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기 고 1 : 산업자원협력의 “Promotion Tower” 로

문재도 /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

금번에 창간되는 실물경제 동향 특집기획으로 저희 산업자원협력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무척 기쁩니다.

세계는 현재 신흥시장의 부상 및 이에 따른 대형 인프라 건설붐과 동시다발적 FTA 전개로 넓어진 경제영토, 중국을 필두로 한 자원개발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6.1일부로 신설된 저희 산업자원협력실은 급변하는 해외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별 중점 협력대상국 위주로 맞춤형 산업자원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기업들의 플랜트 수주와 자원 확보 및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한 新 시장 개척 등 해외에서의 미래 먹거리 창출지원을 위한 산업자원협력의 “Promotion Tow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도국과의 산업기반 기술협력 추진을 통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자원협력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들과의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산업자원협력실은 해외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Developer”이자 “Salesman”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민간기업 및 공기업 등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 고 2 : 新 산업자원 협력의 필요성

조성준 / 美 시카고 켄트법대 교수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 정책자문관)

산업자원협력이 최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력외교를 필두로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각 유관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실 자원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와 같은 자원빈국으로서는 각종 산업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대외환경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산업자원협력에 있어 새로운 대응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점은 최근 미국, 유럽의 금융위기를 전후해 두드러진 세계 경제 지형의 변화이다. 서구 주요국의 경제가 정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신흥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6%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절망적이었던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극빈국의 약진이 주목할 만하다. 물론 우리만이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벌써 중국, 인디아,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 비교적 영향력이 큰 선도개도국간에 아프리카, 남미 등 주요 협력거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 국가 모두가 상당한 양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석유, 천연가스, 각종 희소광물 등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기업 및 정부가 이러한 자원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다. 둘째, ‘투자’를 통하여 현지생산에 참여하여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두 방법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수입에 의존할 경우 조속한 확보가 가능하나 장기적인 공급이 보장될 수 없다. 투자에 의존할 경우 안정적인 공급은 가능하나 실현되는 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 실패의 확률도 존재한다. 이에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FTA가 이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체결되는 FTA는 단순히 무역을 뛰어넘어 포괄적인 경제협력조약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FTA를 통하여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여 산업자원의 개념 재정립이 시급하다. 우리가 신흥 개도국과 협력해야 할 대상은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자원 (석유, 천연가스, 각종 광물 등)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 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및 부가가치 창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산업자원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다. 또한 향후 수자원의 고갈 및 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이 예상되는 바, 수자원도 광의의 산업자원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투자 및 협력외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위와 같은 큰 정책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립, 집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경제성(채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기업이나 정부를 막론하고 산업자원협력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다. 철저한 사업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당해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과실을 안겨 줄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자칫 실적위주의 선부른 투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둘째, 금융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막대한 투자, 협력재원의 조달은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투자에는 큰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중소기업 등이 위험인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관정부기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다자투자 보장기구(MIGA)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고위험국가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조세, 환경 및 투자협약 등 기존의 각종 국제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프로젝트가 추후에 국제법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FTA를 활용 시 상대국의 부당한 규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미리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산업자원협력은 경제, 외교정책의 종합예술이라 하겠다. 어느 부처 혼자서 짚어질 수 없다.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를 위시하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유관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산업자원협력의 성공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기고 3 : 프로젝트 중심의 산업협력

강영수 / KOTRA 산업자원협력처장

필자가 요하네스버그무역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2009년 초 국내 모 기업으로부터 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을 의뢰받았다. 태양광과 풍력발전프로젝트 위주로 12개 관할국 중 ODA 지원대상이 되는 잠비아, 나미비아, 모잠비크 3개국 문을 두드려보기로 했다. 의뢰 기업 실무진과 함께 3개국을 방문하여 에너지부, 전력공사, 재무부를 찾아가서 EDCF 조건, 태양광발전 기술과 비용 등을 설명했다. 우리의 제안에 대해 3개국 모두 관심을 보였으나, 출장 이후 진전이 없었다. 1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전화 통화와 국별 다섯 차례 이상 방문, 담당자 방한 초청 등의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3개국 중 모잠비크만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자금(EDCF) 3,500만불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동(銅)이 풍부한 잠비아에 대한 개인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귀국하기 전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 6개월 동안의 준비로 2010년 5월 20여명의 경험사절단과 함께 잠비아를 방문했다. 태양광, 공무원용 조립 주택, 국가재난 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과 같은 4개 EDCF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야별 주무장관들과 반다 대통령에게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제시한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지 정보원에 의하면, 그는 다음날 경제각료들을 다시 불러 개별 프로젝트들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장관들의 설명을 다 들은 반다 대통령은 공무원용 조립주택과 국가재난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특사를 보내야겠다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해지고 말았다.

잠비아는 과거 영국 통치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EDCF 프로젝트 추진 절차가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복잡한 편이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절단에 합류했던 기업 실무자들이 잠비아를 몇

차례 추가 방문하여 프로젝트 개발을 시도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 정부가 지원의 손길을 뻗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 6월 지경부에 신설된 산업자원협력실이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프로젝트 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사례와 같이 개도국에서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는 해당국 정부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경향이 지대하다. 산업자원협력실을 통해서 우리 업계의 소리를 정부 채널로 전달할 수 있고, 상대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아 양국의 민관이 함께 일한다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산업자원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KOTRA도 9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와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협력처를 신설했다. 기업의 영업과 KOTRA의 지원, 정부의 협상과 측면지원의 3각 구도를 통해서 보다 많은 프로젝트 수주 성공사례 창출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특집기획2.

성공의 희망사다리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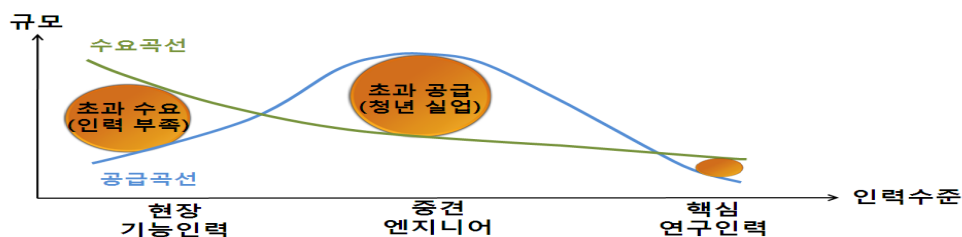
- 산업인력 생태계 조성 -

1 현황 및 문제점

가. 산업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지속

- ◆ 인력수준별로 필요한 인력(Demand)과 배출되는 인력(Supply)의 규모 차이로 노동시장에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 존재

< 노동시장 신규인력의 수요와 공급 >



- (현장 기능인력)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부족이 심화

* 전문계고 졸업생 대학진학률(%) : ('90) 7.8 → ('00) 42.0 → ('10) 71.1

- (중견 엔지니어) 대졸 학사급 인력이 급증*하여 초과공급 상태, 다만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유효공급(Effective Supply)은 부족

* 연도별 대학(4년제) 졸업생 추이(만명): ('90) 16.6 → ('00) 21.5 → ('10) 28.0

- 이론중심의 대학 교과과정과 산업계가 원하는 실무역량간 괴리 존재

- (핵심 연구인력) 대학내 학과단위 경직성 등으로 인해 신성장 동력 분야 창의형·융합형 인재의 선제적 양성에도 한계

나. 양성된 인력의 활용기반 부족

- (청년 대졸인력) 구직자가 선호하는 안정된 일자리는 수요만큼 늘어나지 않아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대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만명) : ('07) 5.1 → ('08) 4.9 → ('09) 3.9

* 청년(15~29세) 실업률 : ('07) 7.2 → ('08) 7.2 → ('09) 8.1 → ('10) 8.0

- (퇴직인력) 숙련기술자의 퇴직이 본격화*되는 반면 현장의 신규 인력 투입은 저조하여 기술의 단절, 해외유출 등 우려

* 향후 10년간 매년 14~15만명의 베이비붐세대 퇴직자 발생예상('10. SERI)

- (외국인 유학생)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졸업 후 한국내 취업 등 적극적 활용방안은 미흡

* 유학생수 증가: ('05) 20,683명 → ('10) 69,6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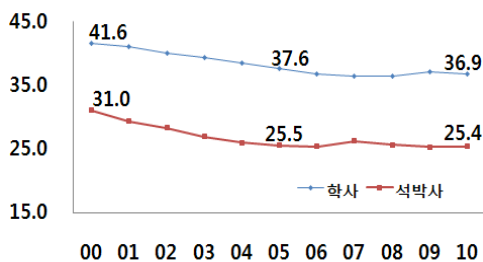
* 유학생 비자에서 전문인력 비자로 전환된 규모: ('05) 47명 → ('10) 765명

다. 이공계 우수인재의 산업 유인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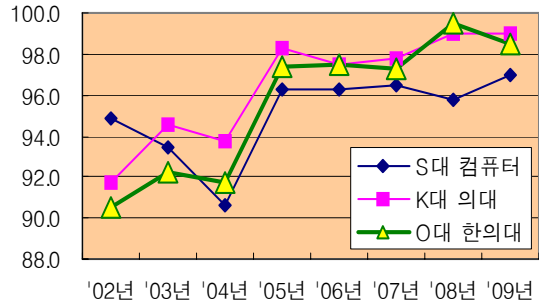
- 이공계 대학진학률 감소,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선호와 의·치학전문대학원 진학 등으로 미래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 이공계 대졸자 중에서도 전공분야 취업비중은 약 32%에 불과(STEPI, '09)

<이공계 입학자수 비중(%) 추이>



<컴퓨터공학·의대·한의대 수능점수 추이>



- 고급두뇌의 외국행 선택 또는 희망도 증가 추세(Brain drain)

* 美 이공계박사 취득 한국인 현지 잔류 가능성 : ('99) 50% → ('07) 69%

* 국내 이공계박사 취득자의 31%가 해외취업 희망(KISTEP, '11)

- 빠른 기술변화로 인한 기술 수명주기 단축과 커리어패스(Career path) 불명확으로 엔지니어의 고용불안감 심화

2

정책과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가는 경제생태계’ 구축

- ▷ 수급 미스매치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산학연계에 기반한 산업인력 양성체계 선진화
- ▷ 기술인재의 지속적 역량개발과 사회적 존중문화 확산



추진전략

세부 정책과제

활
용

적극적 일자리 창출

- ① 인적자본 투자형 R&D로의 전환
- ② 軍과 연계한 실전형 기술인력 육성·활용
- ③ 시니어 기술인력·외국인력 활용 확대

양
성수요자 중심
교육 체계 강화

- ④ 우수 현장기능인력 양성체계 강화
- ⑤ 일하면서 배우는 복합공간 QWL 밸리 조성
- ⑥ 수요적합형 전문인력 육성
- ⑦ 미래선도형 핵심인력 양성

관
리

체계적 경력경로 구축

- ⑧ 산업기술인력의 지속적 역량개발 강화
- ⑨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

과제 1 산업인력의 효율적 활용기반 강화

1-1 인적자본 투자형 R&D로의 전환

- ◆ 장비 등 물적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R&D투자”로의 전환을 통해 이공계 R&D 인력육성과 반듯한 일자리 창출

* R&D 인적자본 투자비중: ('10) 29.7%→ ('12) 40.3%, OECD 인건비 비중('07년): 48%

- ◆ '12년 신규 고용창출규모는 30,180명* 전망

* (기업) 21,350, (연구소) 4,150, (대학) 1,500, (전문연 및 전담기관 등) 1,790, (기타) 1,390

□ (기업)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 신설(지경부)

- 정부R&D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신규 연구인력 채용 확대 유인

* 신규인력 인건비 외에 기존 인력 인건비도 현금 계상을 허용하여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유동성 확대

- 신규 R&D 인력을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R&D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등 우대 추진

□ (대학) 'R&D 전담연구직' 확대(지경·교과부)

- 연구교수, Post-Doc 등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연구직”을 확대하고, 연구여건 개선방안 마련

* 전담연구직 Career path 설정 : 학생연구원 → 연구전담직 → 국가R&D 참여 → 취업 연계 or 정규직 연구전담교원으로 채용경로 설정

□ (출연연) 인력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연구인력 채용확대

- 총 인건비내에서 출연연에 대한 인력운용 자율성 확대를 통해 신규인력(정규직) 채용 유도
- 출연연 자체재원 활용 등을 통해 이공계 R&D 인턴 등 신규 계약직 연구인력 채용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 인력 파견(3년) 확대

□ (R&D 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 제도 도입으로 新직업군 창출

- 기획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양성하여 연구인력의 몰입도와 연구의 質 제고
 - * Lab Coordinator 등 4개 전문분야별 “연구지원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마련
- 과제참여 중소기업이 “연구지원전문가”를 신규로 채용하여 정부 R&D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현금) 지원 허용

□ (고용지원) R&D인력 고용연계 프로그램 운영(지경·교과부)

- 해외 연구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한인 우수인재를 국내기업에 유치*하고, 출연(연) 등에서 연구·강의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시스템반도체(SoC) 분야 등에서 시범 실시
 -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출연연연합대학원) 등에서 초빙교원 등으로 활동 지원
-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운영 등을 통해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후 기업 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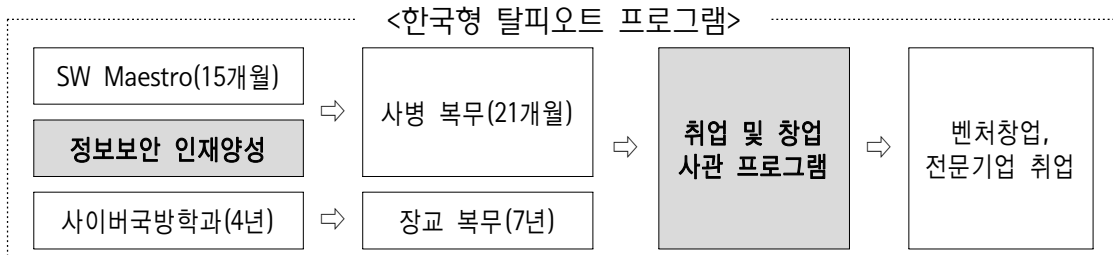
1-2 軍복무와 연계한 실전형 산업기술인력 육성

- ◆ 이스라엘의 벤처요람인 ‘탈피오트 부대’와 같이 「교육-軍복무-취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우수한 산업기술인력과 벤처기업가를 양성

□ 우수 인재 대상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 운영(지경·국방부)

- 지경부가 운영하는 **SW Maestro 프로그램** 연수생이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軍복무 중 커리어패스를 연결
 -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입상자 등 우수 인재가 정보보호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계
- 국방부에서 신설예정인 사이버 국방학과를 졸업시 장교로 7년을 복무하고, 복무 중에는 국내·외 IT전문 교육을 지원
 - 군복무 후 벤처창업*을 하거나 전문기업에 취업토록 지원

* 첨단 기술분야 집중 교육, VC 등 전문가·투자자 네트워크 형성,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수 정예를 대상으로 한 최고 수준의 창업사관 프로그램 운용



□ 軍기술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는 지원체계 구축(지경·국방·고용부)

- IT, 기계 분야 전역 기술장교·부사관*에 대한 산업체 수요파악과 매칭을 지원하고, 필요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통신 등 IT, 기계분야 기술장교·부사관(25~35세) 825명 배출('10년 기준)

1-3 시니어(Senior) 기술인력과 외국인재 활용기반 확대

- ◆ 베이비붐 세대 퇴직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흥개도국 청소년 대상의 양성형 인력 유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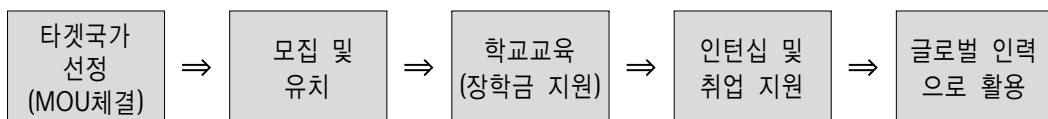
□ 우수한 퇴직기술인력에 대한 활동기회 제공(지경부)

- 개도국 기술컨설팅을 주로 담당하는 '퇴직기술인력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 숙련인력(60대)과 청년(20대)이 팀을 이뤄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제식으로 교육(가칭 「60+20 프로젝트」)
 - * 개도국 기술컨설팅이 가능한 퇴직인력 Pool을 구축하고 유관사업 연계강화
- 숙련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술후계자에 대한 전수시스템 구축(뿌리산업 분야 우선 추진)

□ 신흥개도국 청소년 대상 양성형 인력 유치(지경부, 교과부)

- 국가간 산업협력 수요를 감안하여 국내 기업과 연계, 베트남·인니·필리핀 등 개도국 인재유치 후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 지원
 - * 예시 : 마이스터고, 이공계 대학 등 수준별·분야별 적합한 교육과정 지원
-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시 글로벌 산업인력으로 활용

< 프로그램 프로세스(안) >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노동시장에 쉽게 편입될 수 있도록 국내기업 인턴십을 지원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 '07~'10 총 4회 개최(매회 국내기업 약 30개사, 유학생 약 2,000여명 참여)

** (제도 개선) 졸업후 구직활동 체류기간 연장한도 6개월 → 최대 2년으로 확대('11.6월)

과제 2 산업인력 양성체계 선진화

2-1 우수 현장 기능인력 양성체계 강화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후에는 중견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커리어 경로 구축

교육단계 졸업 후 바로 활용가능한 인력 양성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교육내용이 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혁신(교과부·지경부·중기청)
 - * (예시) 고교 '공업일반' 교과에 생산관리 실무, 생산성 혁신활동 등 반영('14년 적용)
- 현장 실습교육 강화를 위해 기업퇴직자 등을 '산업체 우수강사'*로 채용하고, 기업체 전문인력 강사 파견 추진(교과·지경부)
 - * '11년 330명 채용, '12년 지속확대 추진 (지경부는 전문인력 Pool 구축 등 지원)

취업단계 전문기술자로 성장 지원 및 채용기회 확대

- (민간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전형, 사내대학,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계속 교육·훈련 기회 확대(교과부·고용부·중기청)
 - * (고용부) '12년, 신성장동력 중소기업로자 계약학과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중기청)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규모를 확대('11년 500명 → '12년 1,000명)
- (산업분야 공공기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 대상 견학·현장 실습 프로그램* 마련(지경부)
 - * MOU체결을 통해 채용시 우대, 장학금 지원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원 실시

⇒ 테크노파크(TP)-마이스터고간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 마이스터 양성

- ◇ TP, RIC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개방, 현장실습 등 맞춤형 교육에 활용
 - * TP(2,277대), 특화센터(1,526대), RIC(1,681대)
- ◇ 지역 우수기업 탐방프로그램을 마이스터고로 확대(희망이음 프로젝트)
 - *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채용을 유도
- ◇ 고교생들의 현장경험 강화, 지역내 취업연계를 위해 고교 인턴십 지원

2-2 일하면서 배우는 복합공간 「QWL 밸리」 조성

-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 교육·연구·문화·편의 기능을 확충하여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 QWL 밸리를 조성

*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산업단지

-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4개 시범단지(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에서 추진

-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3년간('10.11~'13.상) 실시하여 산업단지에 오피스텔, 보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

* 29개 사업에 대해 지자체 2.1천억, 민간 2.3천억, 산단공 8.2천억원 재원 투입 예정

- 산업단지에 대학, 기업연구소의 입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반월·시화, 구미, 군산지역에 산학융합지구 조성 착수

* 1개 지구당 5년간 총 450억원(국비 270억원, 민자 180억원) 투자

- 산학융합지구내 QWL 캠퍼스는 다수의 지역대학과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연합캠퍼스(Open Cloud University)로 운영

- 근로자, 마이스터고생 등에게 「先취업-後진학」의 경력경로를 제공하고, 학생에게는 R&D와 연계한 현장맞춤형 교육 지원

- 특히, 전국 최대 산업단지인 시화·반월에 투자를 집중하여 QWL 밸리 성공모델*을 조기창출하고 주요 산업단지로 확산

* '12.10월까지 QWL캠퍼스, 기업연구관, 문화센터, 보육시설 등을 설치

-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복합공간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산업단지의 명칭을 미래지향적으로 변경

* 구미(구미 IT파크), 창원(창원그린테크밸리) 등 5개 산단의 명칭 변경 완료, 향후 5개 추가 변경

2-3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적합형 전문인력 양성

- ◆ 산업계 참여를 확대하여 대학교육의 質을 제고하고, 양성된 인력이 원활하게 취업될 수 있도록 학생과 기업의 매칭을 강화

교육단계

산업수요 중심의 대학 교육과정 혁신

-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현장실습 추진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교과·지경부)
 - * 산업계(Sector Council 등)와 대학(대교협, 기획처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교과과정 편성 등에 산업계가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운영
- (산학협력 중점교수) 대학교육이 기업현장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CEO 출신 등 퇴직인력을 교수로 활용(2,000명)(교과·지경부)
 - 교과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12년 1,000명 확보
 - 지경부, 채용확대를 위해 R&D과제 선정시 가점부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000명 수준 고용 목표
-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학재정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구조조정 방향과 부합토록 운영
 - *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쏠 부처의 재정지원을 제한

취업단계

학생과 수요기업간 매칭 강화

- 대졸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도록 대기업 주관 '우수협력사 공동채용박람회*', 대한상의 주관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개최(지경부)
 - * 예) LG전자, 협력사의 우수인재 채용을 돕기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계획('11.하)
- 지역기업과 대학생들 연계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대교협 등이 참여하여 대학(생) 참가를 확대(지경·교과부)
 - * 지역의 일하기 좋은 기업 발굴(325개), 100개 대학 1만명의 대학생 기업 탐방·교류 연계

2-4 신성장동력을 개척할 미래선도형 핵심인력 육성

- ◆ 미래 新시장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슈퍼급 창의 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

□ 융합형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경·교과부)

- 시장수요 대응형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산업융합촉진법) 운영을 통해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강화

분야	주요 내용 예시
바이오	·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주도할 의료전문 경영인 양성 * 바이오메디칼 창업 CEO 교육과정 등 개설·운영
나노	· 나노기술과 타 기술을 융합·사업화하는 인재 양성
로봇	· 범 로봇기술간 융복합 교과목 개설로 로봇전문인력 양성 * '11년 1개(한양대) 운영 중

- 인문학과 공학 등의 통합적 사고를 갖춘 융합인재 양성과 인문·산업 융합의 저변 확충 등을 위해 융합포럼, 아이디어 공모전 등 인문·산업 융합연구 활성화 추진

□ 세계 정상급 슈퍼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산(지경부)

- IT 명품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디자인과 공학·경영학 등의 융합교육 실시

* 美 MIT 미디어랩과 같이 우수인재에 파격적 연구비 지원, 국내외 스타급 교수유치, 전액 장학금과 숙식·생활비 지원('10년 1개(연세대) → '11년 1개 추가(포스텍))

□ 신산업분야 기술인력 수급동향 분석·전망기능 강화(지경·고용부)

- 핵심업종별·인력수준별 실태조사를 통해 학과·교과과정 등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Signalling)

*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산업기술진흥원)와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연계강화

과제 3 산업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존중문화 확산

3-1 산업기술인력의 지속적 역량개발 강화

- ◆ 국가적인 기술인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여 직업의 동기부여와 자부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개요)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기술인은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커리어 개발과 성장을 지원(지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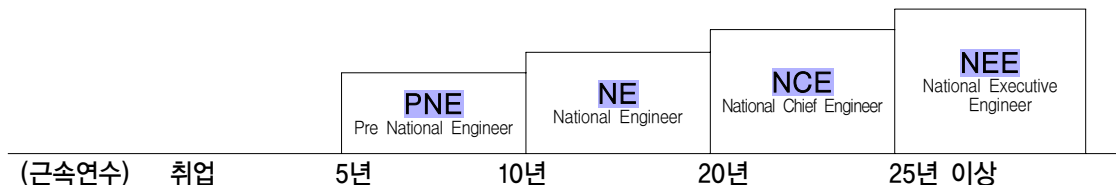
* 현재 건축사, 기술사 등 국가자격의 경우 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나, 자동차, 조선, 휴대폰 등 주력산업 엔지니어는 기업차원에서 관리

- (대상) 주력·신성장동력 분야 기술혁신형 기업에 재직하는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정·관리

* 업종별 섹터카운슬(신청접수·평가위원회)-KIAT '기술인재관리센터' 통합DB 운영

- 분야별 경력과 기술발전 기여도를 검증하여 단계별로 전문역량을 인정함으로써 숙련도 향상과 장기근무를 유도

< 단계 예시 >



- (지원내용) 선정된 인재에 대해서는 경력경로(career path) 멘토링, 전문 교육·훈련 지원과 창업·컨설턴트 등 관련분야 진출 지원

- 교과부 산학협력사업과 연계, 산업체 우수강사·산학협력 중점교수 등의 후보자원으로 NE급(10년 이상) 인재 DB 활용

- R&D사업 과제기획·평가위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특허컨설턴트 등으로 NCE급 인재 활용(지경·중기청)

3-2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

- ◆ 현장에서 연구·개발하는 산업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우수인재가 기술전문가를 꿈꾸는 사회시스템 구현

□ 산업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지경부)

-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한국기술센터 內)하여 기술전문가 **Role model**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홍보**

* 현재 우수 과학자 대상으로는 운영 중, 산업기술전문가 중심으로 선정 계획

** 경험, 노하우 등 개인별 성공스토리를 일대기 형식으로 제작·책자 발간

- 매년 ‘최우수 산업기술인재(Honorary Fellow)’를 선정(매년 10명 수준)하여 유공자 포상과 함께 ‘산업기술혁신장려금’(최고 1억원) 지급

□ 이공계 인재에 대한 기업의 처우 강화 유도(지경부)

- 관련 기업과 **MOU체결**하여 국제기능올림픽·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우선취업* 등 숙련기술인재 우대 분위기 형성(고용부)

*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16개 기업과 MOU체결('11.6월 누적 465명 취업)

- 산업분야 공기업의 기술직에 대한 우대 강화 유도 (예시: 간부급 직원 중 기술직 비중에 대한 자율적 목표를 설정·운영) (지경부)

□ 기업과 공동으로 이공계학생 대상 ‘산업기술장학금’ 지원(지경부)

- 기술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으로 장학금을 지원(연간 1,000명)

* 학부 3~4학년 또는 석사 1~2학년 대상 취업연계형 장학계약

**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연계기업에서 방학중 인턴쉽 등 현장실습기회 제공

- ◇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개발 지원과 사회적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기반도 마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반영)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산업경제실 산업경제정책과(☎2110-5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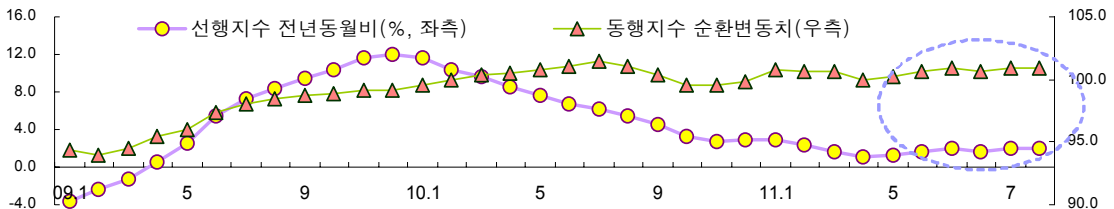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 자료 : 통계청

- (경기종합지수) 5~7월간 상승하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8월에는 전월대비 보합세로, 現 경기가 소강상태 내지 완만한 상승기임을 함축
-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 역시 3개월 연속 상승 후 8월에는 전월 대비 보합세로, 향후 경기의 소강상태 내지 완만한 상승기를 암시

< 경기종합지수 >

	'11.3월	4월	5월 ^p	6월 ^p	7월 ^p	8월 ^p
동행종합지수(2005=100)	135.9	135.5	136.6	137.7	138.6	139.2
순 환 변 동 치	100.6	99.9	100.2	100.6	100.9	100.9
선행종합지수(2005=100)	129.4	128.9	129.5	130.2	130.8	131.0
전 년 동 월 비(%)	1.6	1.0	1.3	1.7	2.0	2.0



《용어설명》

- 동행종합지수 : 생산, 도소매판매 등 실제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8개 구성지표를 종합하여 산출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동행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지표
⇒ **현재** 경기 국면 및 전환점 파악에 이용
 - ※ 상승세이면 경기확장 국면, 하락세이면 경기수축 국면을 함축
- 선행종합지수 : 수주액, 소비자기대지수 등 경기순환에 앞서서 나타나는 10개 구성지표를 종합하여 산출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 $\left(\frac{\text{선행종합지수}}{\text{전년동월 선행지수의 12개월 이동평균치}} - 1 \right) \times 100$
⇒ **향후** 경기국면 및 전환점 예측에 이용
 - ※ 상승세이면 향후 경기확장, 하락세이면 향후 경기수축을 함축

산업 생산

* 자료 : 통계청

1 광공업

□ (생산) 7, 8월에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년동기와 비교 시에도 상승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추세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 %) : (11.3) 9.1 → (4) 6.9 → (5) 8.2 → (6) 6.6 → (7) 4.0 → (8) 4.8
(전월대비, %) : (11.3) 1.8 → (4) △1.7 → (5) 1.7 → (6) 0.9 → (7) △0.3 → (8) △1.9

< 광공업 생산 지수 및 증감률 >

(2005=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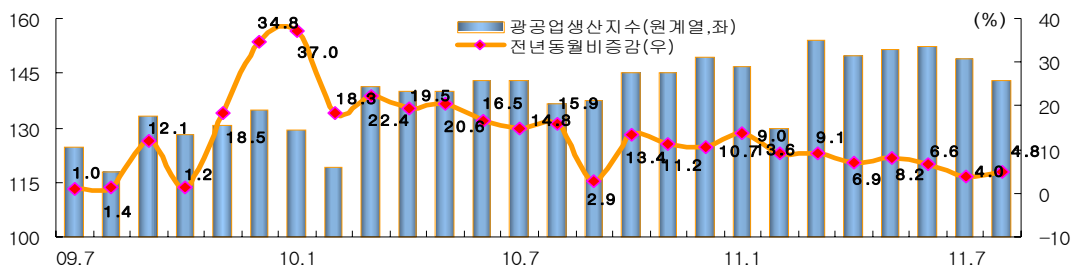
		'10년	'11.2/4	6월	7월 ^p	8월 ^p
지수	계절조정계열 ¹⁾	-	148.9	150.7	150.2	147.3
	원 계 열	139.1	151.2	152.3	148.8	143.0
증감률	전 월(기) 비	-	0.0	0.9	-0.3	-1.9
	전년동월(기)비	16.2	7.2	6.6	4.0	4.8

(% , %p)

		'10년	'11.2/4	6월	7월 ^p	8월 ^p	기여도*
제조업	전 월 (기) 비	-	0.2	0.8	△0.3	△2.0	△1.88
	전년동월(기)비	16.7	7.4	6.6	3.9	4.9	4.62
- 의복 및 모피	전 월 (기) 비	-	△4.9	1.2	△8.5	12.2	0.16
	전년동월(기)비	7.1	△7.3	△7.8	△5.4	△0.7	△0.01
- 식료품	전 월 (기) 비	-	△3.1	0.5	0.5	3.3	0.11
	전년동월(기)비	5.7	0.6	△1.5	△2.9	1.8	0.07
- 반도체 및 부품	전 월 (기) 비	-	3.8	△3.8	0.6	△3.0	△0.75
	전년동월(기)비	31.0	17.8	12.7	8.3	7.0	1.77
- 자동차	전 월 (기) 비	-	△1.2	10.2	4.1	△6.7	△0.78
	전년동월(기)비	23.1	12.1	17.2	12.0	23.6	2.01

* 기여도는 총 지수에 대한 기여도임

< 광공업 생산 추이 >



1) 계절조정지수 : 원지수(전년동월비 등 장기시계열 분석시 이용)에서 계절요인, 명절요인, 조업일수요인 등을 제거 (전월비 등 단기분석시 이용)

□ (출하·재고) 7월부터 출하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세인 반면 재고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재고/출하비율도 연초부터 상승 추세

< 출하 지수 및 증감률 >

(2005=100, %)

		'10년	'11.2/4	6월	7월 ^p	8월 ^p
지수	계절조정계열	-	143.0	144.6	143.2	142.3
	원 계 열	133.5	144.8	145.4	140.1	136.7
증감률	전 월(기) 비	-	△0.6	1.3	△1.0	△0.6
	전년동월(기)비	14.4	7.2	5.9	3.2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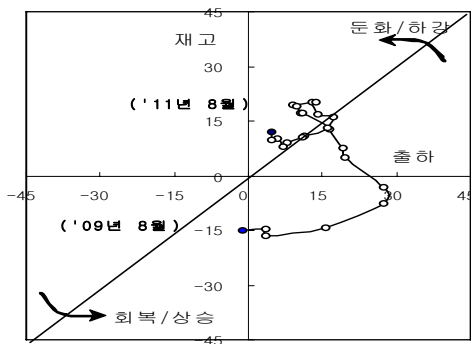
< 재고 지수 및 증감률 >

(2005=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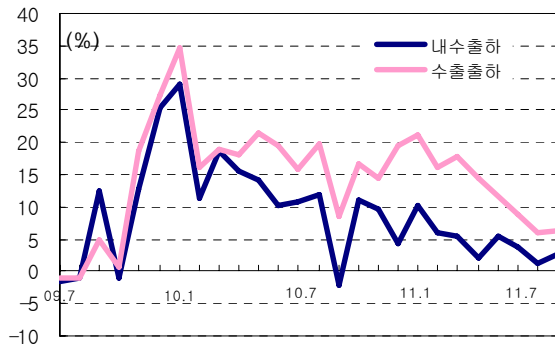
		'11.3월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지수	계절조정계열	137.2	138.3	139.0	142.2	146.0	150.5
	원 계 열	137.4	137.3	140.2	142.7	147.3	150.5
증감률	전 월(기) 비	1.0	0.8	0.5	2.3	2.7	3.1
	전년동월(기)비	10.3	8.7	7.9	10.0	9.8	11.9
재고/출하 비율 ¹⁾		94.8	97.3	97.0	98.1	101.7	105.6

주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재고율지수):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 제조업 재고출하순환 >



< 내수출하와 수출출하 >



□ (평균가동률) 연초부터 80%대 초반 수준 지속

< 제조업 평균가동률 >

(%, %p)

	'10년	'11.2/4	6월	7월 ^p	8월 ^p
평 균 가 동 률	81.2	81.4	82.5	82.1	80.5
전 월(기) 차	6.8	△1.7	1.2	△0.4	△1.6

2 서비스업

- (생산) 서비스업 생산은 5월부터 줄곧 전월대비 증가세이며, 전년동월대비로도 3~4%대의 안정적 증가세 유지중

< 서비스업 생산 지수 및 증감률 (2005=100) >

(단위 : %)

		'10년	'11.2/4	6월	7월 ^P	8월 ^P
지수	계절조정계열	-	126.5	127.6	128.1	128.7
	원 계 열	122.9	127.0	128.4	127.0	126.7
증감률	전 월(기) 비	-	1.0	0.9	0.4	0.5
	전년동월(기)비	3.9	3.3	3.5	3.8	4.8

설비투자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

- (최근 동향) '11년 들어 설비투자는 '10년의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보험세 내지 완만한 상승세 시현

* 설비투자지수(전월비,%) : (11.3) 3.5 → (4) Δ5.4 → (5) 14.3 → (6) 0.7 → (7) Δ5.7 → (8) 1.3
 <전년동월비> 0.5 Δ0.6 10.3 4.7 Δ2.8 Δ3.7

* 설비투자(국민계정, %) : (10.2/4) 30.5 → (3/4) 26.6 → (4/4) 15.9 → (11.1/4) 11.7 → (2/4) 7.5

- (추세변화) '90년대 초반까지 설비투자증가율은 연평균 두자리를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둔화 추세

* 설비투자증가율추이(국민계정,%) : (71~80) 18.8 → (81~90) 12.4 → (91~97) 8.2 → (98~10) 3.3

- (업종별 추세) 설비투자中 제조업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확대

* 설비투자 중 제조업 비중(%) : (95) 69.3 → (00) 52.3 → (04) 61.7 → (08) 58.6 → (10)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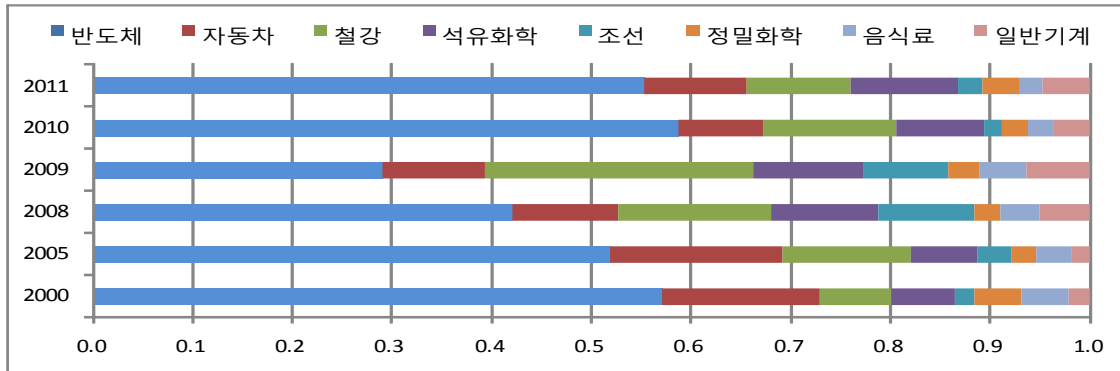
< 설비투자 지수 및 증감률 (2005=100, 불변, 전년동월(기)비) >

(단위 : %)

	'10년	'11.2/4	6월	7월 ^P	8월 ^P
설비투자지수(원계열)	133.2	144.1	154.1	135.2	135.6
전년동월(기)비	25.1	4.8	4.7	Δ2.8	Δ3.7
- 기 계 류	30.5	7.0	5.2	Δ2.5	Δ6.0
- 운송장비	4.3	Δ5.7	2.6	Δ4.2	10.6
전 월(기) 비	-	3.0	0.7	Δ5.7	1.3

* 설비투자지수 : 월별 설비투자액을 추계하여 지수화 (2005년=100)

< 제조업종별 설비투자 비중(정책금융공사) >



* '11년은 계획치 * 원자료 : 정책금융공사 (산업연구원 ISTANS에서 가공)

< '11 설비투자 추이 및 계획 (정책금융공사, '11.5월 설비투자계획 조사) >

(단위 : 조원, %)

	금액		(증감률)
	'10 ^p	'11(계획)	
전산업	121.5	138.5	14.0
제조업	68.7	79.8	16.3
- 대기업	57.6	66.5	15.4
- 중견기업	6.49	9.10	40.2
- 중소기업	4.54	4.24	△ 6.6
비제조업	52.9	58.7	11.0

수 출 입

* 자료 : KITA 무역통계

□ '11.1~8월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7% 증가한 3,688억불, 수입은 26.7% 증가한 3,478억불로 무역수지는 210억불 흑자 달성

< 8월 수출입실적(잠정, 통관기준) >

(단위 : 백만불, %)

구 분		'10		'11	
		8월	1 ~ 12월	8월	1 ~ 8월
수 출	실적(증감률)	36,481 (26.0)	466,384 (28.3)	45,938 (25.9)	368,835 (23.7)
수 입	실적(증감률)	35,275 (28.7)	425,212 (31.6)	45,460 (28.9)	347,838 (26.7)
수 지	실적	1,206	41,172	479	20,997

물가

* 자료 : 통계청

- 한때 5%대까지 상승, 약 3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바탕으로 상승폭이 둔화

* 소비자물가상승률(%) : ('11.1) 4.1 → (3) 4.7 → (5) 4.1 → (7) 4.7 → (8) 5.3 → (9) 4.3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전년동기비) >

(단위 : %)

	'09	'10	3/4	4/4	'11.1	2	3	4	5	6	7	8	9
소비자물가	2.8	2.9	2.9	3.6	4.1	4.5	4.7	4.2	4.1	4.4	4.7	5.3	4.3
- 농축수산물	6.5	10.0	12.5	19.2	17.5	17.2	14.9	9.2	5.9	9.3	11.2	13.3	2.3
- 공업제품	2.5	3.1	2.5	2.8	4.3	5.0	5.9	5.7	5.9	5.8	6.3	7.1	7.7
- 석유류	△10.6	9.2	2.6	3.1	10.9	12.8	15.3	14.1	12.6	12.6	13.6	15.2	16.5
- 집세	1.6	1.8	1.1	1.2	2.6	2.7	3.2	3.5	3.8	4.0	4.2	4.4	4.7
- 공공서비스	1.9	1.2	2.0	2.0	1.1	1.2	0.6	0.5	1.2	1.2	1.5	1.4	0.6
- 개인서비스	2.8	2.2	0.4	△0.1	2.6	3.0	3.0	3.3	3.3	3.5	3.3	3.4	3.2

환율

* 자료 : 한국은행

-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환율은 최근 글로벌 재정불안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9월부터 가파른 상승세

* 월말환율: ('11.3월)1,097 → (5)1,079 → (7)1,055 → (8)1,067 → (9)1,178

* 일별추이: (8.1)1,051 → (8.19)1,087 → (9.2)1,063 → (9.16)1,113 → (9.30)1,178

- 타 통화 기준으로는 원엔환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일별추이(원/100엔): (8.1)1,363 → (8.19)1,399 → (9.2)1,383 → (9.16)1,444 → (9.30)1,537

< 환율 추이 (해당기간 말일 기준) >

	'09	'10	'11					(2분기말 대비 변화율)
			1/4분기	2/4분기	7월	8월	9월	
원/달러	1,164.5	1,134.8	1,096.7	1,067.7	1,054.5	1,066.8	1,178.1	(10.3%)
원/100엔	1,262.8	1,397.1	1,331.9	1,335.7	1,353.2	1,396.8	1,536.6	(15.0%)
원/유로	1,674.3	1,513.6	1,563.5	1,560.5	1,507.9	1,547.3	1,601.4	(2.6%)
원/위안	171.1	172.5	168.9	166.8	163.4	168.0	184.4	(10.6%)

고 용

* 자료 : 통계청

1 개황

□ (취업자 증감) 11개월 연속으로 3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

* 취업자증감(만명) : ('11.1)31.1 (2)46.9 (3)46.9 (4)37.9 (5)35.5 (6)47.2 (7)33.5 (8)49.0

□ (실업자 증감) 6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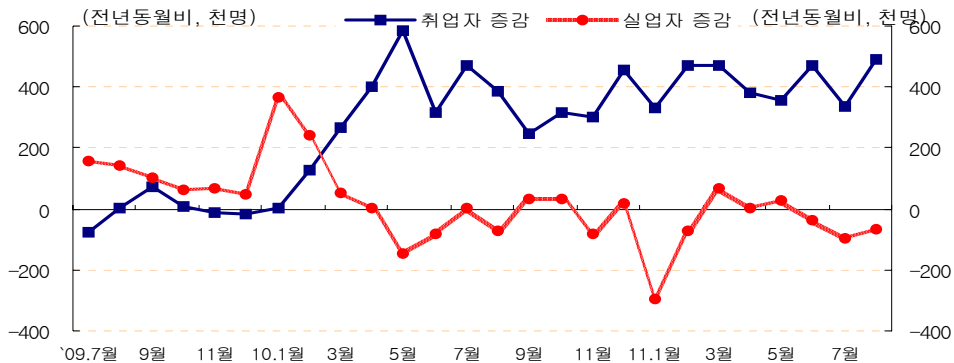
* 실업자수(만명) : ('11.1)91.8 (2)109.5 (3)107.3 (4)93.6 (5)81.9 (6)83.9 (7)83.7 (8)76.2

□ (실업률) 2월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8월에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인 3.0% 기록(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3%로 0.7%p 하락(전년동월대비)

○ (고용률) 연초부터 전년대비 증가세를 지속

<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 추이 >



< 주요 고용지표 추이 >

(단위 : %, 만명)

	'09	'10		'11					
	연간	연간	3/4	4/4	1/4	2/4	6월	7월	8월
○ 취업자수	2,351	2,383	2,412	2,399	2,346	2,457	2,475	2,464	2,450
· 전년동기비증감 (증가율)	△ 7.2 (△ 0.3)	32.3 (1.4)	36.9 (1.6)	35.8 (1.5)	42.2 (1.8)	40.2 (1.7)	47.2 (1.9)	33.5 (1.4)	49.0 (2.0)
○ 실업률	3.6	3.7	3.5	3.3	4.2	3.4	3.3	3.3	3.0
· 청년실업률(15~29세)	8.1	8.0	7.6	7.1	8.8	7.9	7.6	7.6	6.3
○ 실업자수	88.9	92.0	87.3	80.8	102.8	86.5	83.9	83.7	76.2
○ 고용률	58.6	58.7	59.3	58.9	57.4	59.9	60.3	60.0	59.6

□ (경제활동참가율) 3월부터 60%대에 진입한 경제활동참가율은 8월에 61.4%를 기록하는 등 61~62%대 수준 유지

* 경제활동참가율(%) : ('11.1) 59.0 → (3) 60.9 → (5) 62.1 → (6) 62.4 → (7) 62.0 → (8) 61.4

○ 비경제활동인구(8월: 1,586만명)는 3월부터 1,600만명 이하 유지

* 비경제활동인구(천명) : ('11.1) 1,672.9 → (3) 1,599.9 → (5) 1,552.3 → (7) 1,561.4 → (8) 1,586.2

○ 구직단념자²⁾(8월: 21.0만명)는 20만명대 초반 유지

* 구직단념자(만명) : ('11.1) 23.9 → (3) 22.0 → (5) 25.7 → (6) 21.5 → (7) 23.7 → (8) 21.0

2 산업별 취업자 동향

□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서비스업전체] (6) 43.6 → (7) 41.0 → (8) 57.2, [보건·복지] (6) 18.6 → (7) 14.5 → (8) 11.1

< 산업별 취업자 증감 >

(전년동월대비, 단위 : 만명)

	'09	'10			'11				
	연간	연간	3/4	4/4	1/4	2/4	6월	7월	8월
▶ 전 체	△ 7.2	32.3	36.9	35.8	42.2	40.2	47.2	33.5	49.0
- 제 조 업	△ 12.6	19.1	26.2	26.9	22.8	11.2	11.8	4.0	△ 2.8
- 건 설 업	△ 9.1	3.3	9.2	5.7	△ 0.3	△ 4.2	△ 4.2	△ 5.5	△ 0.1
- 서비스업	17.9	20.1	8.2	7.9	22.5	33.3	43.6	41.0	57.2
- 농림어업	△ 3.8	△ 8.2	△ 4.5	△ 3.5	△ 2.8	0.3	△ 2.9	△ 5.5	△ 3.9

2) 비경제활동 인구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

임금

* 자료 : 고용노동부

□ '11.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 월평균명목임금 증감율(전년동월대비,%) : ('11.3) 1.6 → (4) 1.3 → (5) 2.6 → (6) 0.4 → (7) 0.6

< 임금 추이 >

구분	'10			'11			
	연간	7월	4/4	4월	5월	6월	7월
전체근로자	2,781	2,880	2,828	2,719	2,600	2,790	2,898
상용근로자	2,931	3,117	2,973	2,874	2,757	2,976	3,079
임시·일용근로자	920	1,102	952	1,177	1,207	1,191	1,242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

생산성

*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생산성본부

□ '11년 2/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한 123.5로 나타남

- 산출량과 노동투입이 함께 상승하여, 생산성과 고용의 긍정적인 관계 계속하여 유지

(단위 : 지수(2008=100.0),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구분	'09	'10 ^P	'10 ^P				'11 ^P	
			1/4	2/4	3/4	4/4	1/4	2/4
노동생산성	102.8 (2.8)	115.4 (12.3)	111.0 (21.0)	116.5 (14.3)	118.8 (11.4)	115.2 (4.8)	122.4 (10.2)	123.5 (6.1)
산출량	99.8 (-0.2)	116.4 (16.7)	107.7 (26.6)	118.5 (19.3)	116.6 (11.2)	122.7 (12.0)	119.5 (10.9)	127.2 (7.4)
노동투입량	97.1 (-2.9)	100.8 (3.9)	97.0 (4.6)	101.7 (4.4)	98.2 (-0.2)	106.5 (6.8)	97.6 (0.6)	102.9 (1.2)

* 노동생산성지수(한국생산성본부) : 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 * 산출량지수 : 제조업 산업생산지수(통계청)

* 노동투입량지수 : 근로자수×근로시간(노동부·통계청)을 지수화

2 수출입

무역투자실 수출입과(☎2110-5333)

최근 동향

* 자료 : KITA 무역통계

- '11.1~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7% 증가한 3,688억불, 수입은 26.7% 증가한 3,478억불로 무역수지는 210억불 흑자 달성

< 수출입실적 (잠정, 통관기준) >

(단위 : 백만불, %)

구 분		'10		'11	
		8월	1~12월	8월	1~8월
수 출	실적(증감률)	36,481 (26.0)	466,384 (28.3)	45,938 (25.9)	368,835 (23.7)
수 입	실적(증감률)	35,275 (28.7)	425,212 (31.6)	45,460 (28.9)	347,838 (26.7)
수 지	실적	1,206	41,172	479	20,997

- 수출은 지난 20년간 10위권 밖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09년 Top10 진입, '11년 상반기까지 7위 유지

* '85~'05년(12~15위) → '06~'07년(11위) → '08년(12위) → '09년(9위) → '10년(7위) → '11.1~7(7위)

- 수출 강세에 힘입어 무역순위*도 2년 연속 Top10에 진입

* '99~'02년(13위) → '03~'06년(12위) → '07~'08년(11위) → '09년(10위) → '10년(9위) → '11.1~7(9위)

< 세계수출순위 >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 WTO)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7월)	국가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한국	이태리	러시아	벨기에
	수출 (증가율)	10,494 (23.4)	8,586 (20.8)	8,424 (17.6)	4,647 (7.9)	3,860 (21.0)	3,519 (16.8)	3,243 (23.9)	3,144 (22.7)	2,924 (32.1)	2,837 (21.6)
'10	국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한국	이태리	벨기에	영국
	수출 (증가율)	15,778 (31.3)	12,781 (21.0)	12,681 (13.2)	7,698 (32.6)	5,720 (14.7)	5,204 (7.4)	4,664 (28.3)	4,474 (10.0)	4,113 (11.2)	4,043 (14.4)

수출입규모 변화

- '74년 무역규모 1백억불 달성 후, 10대 주요 무역국 중 3번째로 짧은 기간인 33년만에 무역규모 7천억불을 달성
- '06년 수출 3천억불 달성 이후 불과 2년만에 4천억불을 달성 하였으며, 수출 11강 중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달성
 - * 美·獨·日 등 10개국의 수출 4,000억불 달성 소요기간(1,000억불→4,000억불 평균 17.2년) 보다 4년 이상 단축, 중국(9년)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속도
- '09년 세계경기침체로 수출·입 모두 둔화조짐을 보였으나, '09년말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10년에는 수출·무역수지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

* '11년 상반기 교역규모 5,329억불로 사상 최대 기록

< 시기별 수출입 추이 >

(단위 : 억불, %)

구 분	'70	'80	'90	'00	'06	'07	'08	'09	'10	'11.1~8
수 출 (증감률)	8 (34.2)	175 (16.3)	650 (4.2)	1,723 (19.9)	3,255 (14.4)	3,715 (14.1)	4,220 (13.6)	3,635 (Δ 13.9)	4,664 (28.3)	3,688 (23.7)
수 입 (증감률)	20 (8.8)	223 (9.6)	698 (13.6)	1,605 (34.0)	3,094 (18.4)	3,568 (15.3)	4,353 (22.0)	3,231 (Δ 25.8)	4,252 (31.6)	3,478 (26.7)
무역규모	28	398	1,348	3,328	6,349	7,283	8,573	6,866	8,916	7,166
무역수지	-12	Δ 48	Δ 48	118	161	146	Δ 133	404	412	210

품목별 수출입 변화

< 수 출 >

- (중화학제품 비중) '73년 중화학 공업화 선언 이래 꾸준히 상승

* 중화학공업 비중 : ('70) 12.8 → ('10) 91.2% → ('11.1~8) 91.1%,
경공업비중 : ('70) 69.6 → ('10) 6.3% → ('11.1~8) 6.1%

- (상위 5대 품목 비중) '11.8월 누계 수출의 42.7% 차지('10년 42.8%)

* 전체 수출中 상위 5대품목 비중 :
(80) 6.8 → (90) 15.3 → (00) 25.5 → (05) 38.5 → (08) 39.2 → (09) 43.5 → (10) 42.8 → (11.1~8) 42.7

< 시기별 수출상품구조 변화 >

(단위 : 백만불, %)

구 분	'70	'80	'90	'00	'06	'07	'08	'09	'10	'11.1~8
1차 산품	2,056 (11.7)	3,199 (4.9)	4,776 (2.8)	4,225 (1.5)	5,089 (1.6)	5,633 (1.5)	7,793 (1.8)	9,337 (2.5)	11,497 (2.5)	10,392 (2.8)
중화학공업	7,321 (41.8)	36,791 (56.6)	139,558 (81.0)	254,950 (89.6)	295,241 (90.7)	340,078 (91.5)	387,174 (91.7)	330,391 (90.9)	425,490 (91.2)	355,830 (91.1)
경공업	8,128 (46.4)	25,026 (38.5)	27,934 (16.2)	25,244 (8.9)	25,135 (7.7)	25,779 (6.9)	27,040 (6.4)	23,805 (6.5)	29,397 (6.3)	22,613 (6.1)

< 시기별 주요 수출품목 변화 >

(단위 : 백만불, %)

구분	'90		'00		'05		'10		'11.1~8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의류	7,600 (11.7)	반도체	26,006 (15.1)	반도체	29,986 (10.5)	반도체	50,707 (10.9)	선박류	41,128 (11.2)
2	반도체	4,541 (7.0)	컴퓨터	14,687 (8.5)	자동차	29,506 (10.4)	선박류	49,112 (10.5)	석유제품	34,367 (9.3)
3	신발	4,307 (6.6)	자동차	13,221 (7.7)	무선통신 기기	27,495 (9.7)	자동차	35,411 (7.6)	반도체	32,901 (8.9)
4	영상기기	3,627 (5.6)	석유제품	9,055 (5.3)	선박	17,727 (6.2)	디스플레이	32,589 (7.0)	자동차	28,724 (7.8)
5	선박	2,829 (4.4)	선박	8,420 (4.9)	석유제품	15,366 (5.4)	석유제품	31,531 (6.8)	디스플레이	20,248 (5.5)

< 수 입 >

- ☐ 원유, 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50% 내외의 비중을 기록하며, '11.8월까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2%를 차지
- ☐ 자본재는 '00년 40%의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소폭 둔화되어 현재는 30% 내외를 유지, 소비재는 '01년 이후 10% 내외를 유지

< 시기별 수입상품구조 변화 >

(단위 : 백만불, %)

구 분	'80	'90	'00	'05	'06	'07	'08	'09	'10	'11.1~8
원자재	14,480 (65.0)	38,202 (54.7)	81,574 (50.8)	142,286 (54.5)	174,767 (56.5)	203,465 (57.0)	271,610 (62.4)	186,053 (57.6)	249,462 (58.7)	217,067 (62.4)
자본재	5,125 (23.0)	25,617 (36.7)	64,578 (40.2)	90,662 (34.7)	101,237 (32.7)	115,671 (32.4)	122,996 (28.3)	104,011 (32.2)	133,386 (31.4)	95,951 (27.6)
소비재	2,687 (12.1)	5,718 (8.2)	14,026 (8.7)	26,395 (10.1)	31,652 (10.2)	37,180 (10.4)	40,140 (9.2)	32,746 (10.1)	41,855 (9.8)	34,500 (9.9)

< 시기별 주요 수입품목 변화 >

(단위 : 백만불, %)

구분	'90		'00		'05		'10		'11.1~8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1	원유	6,386 (9.1)	원유	25,216 (15.7)	원유	42,606 (16.3)	원유	68,662 (16.1)	원유	65,779 (18.9)
2	반도체	4,222 (6.0)	반도체	19,923 (12.4)	반도체	25,133 (9.6)	반도체	31,137 (7.3)	반도체	21,629 (6.2)
3	석유제품	2,384 (3.4)	컴퓨터	7,890 (4.9)	천연가스	8,646 (3.3)	석유제품	17,928 (4.2)	석유제품	15,444 (4.4)
4	섬유 및 화학기계	1,880 (2.7)	석유제품	4,911 (3.1)	컴퓨터	7,797 (3.0)	천연가스	17,006 (4.0)	천연가스	13,891 (4.0)
5	가죽	1,793 (2.6)	천연가스	3,882 (2.4)	석유제품	7,783 (3.0)	석탄	13,131 (3.1)	석탄	11,670 (3.4)

국가별 수출입 변화

< 수 출 >

- '02년까지 미국이 1위였으나, '03년 이후 중국이 1위로 부상
- 對中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전체 수출의 약 25%으로 확대
- 수출시장 다변화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中 상위 10대 수출대상국의 비중은 점차 하락

< 연도별 주요 수출대상국 변화 >

(단위 : 백만불, %)

구분	'90		'00		'05		'10		'11.1~8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1	미국	19,360 (29.8)	미국	37,611 (21.8)	중국	61,915 (21.8)	중국	116,838 (25.1)	중국	87,960 (23.8)
2	일본	12,638 (19.4)	일본	20,466 (11.9)	미국	41,343 (14.5)	미국	49,816 (10.7)	미국	36,827 (10.0)
3	홍콩	3,780 (5.8)	중국	18,455 (10.7)	일본	24,027 (8.4)	일본	28,176 (6.0)	일본	25,850 (7.0)
4	독일	2,882 (4.4)	홍콩	10,708 (6.2)	홍콩	15,531 (5.5)	홍콩	25,294 (5.4)	홍콩	20,428 (5.5)
5	싱가폴	1,805 (2.8)	대만	8,027 (4.7)	대만	10,863 (3.8)	싱가폴	15,244 (3.3)	싱가폴	14,140 (3.8)
6	영국	1,750 (2.7)	싱가폴	5,648 (3.3)	독일	10,304 (3.6)	대만	14,830 (3.2)	대만	12,817 (3.5)
7	캐나다	1,731 (2.7)	영국	5,380 (3.1)	싱가폴	7,407 (2.6)	인도	11,435 (2.5)	브라질	8,910 (2.4)
8	대만	1,249 (1.9)	독일	5,154 (3.0)	영국	5,339 (1.9)	독일	10,702 (2.3)	인도 네시아	8,689 (2.4)
9	프랑스	1,119 (1.7)	말레 이시아	3,515 (2.0)	인도 네시아	5,046 (1.8)	베트남	9,652 (2.1)	인도	8,556 (2.3)
10	인도 네시아	1,079 (1.7)	인도 네시아	3,504 (2.0)	말레 이시아	4,608 (1.6)	인도 네시아	8,897 (1.9)	베트남	8,448 (2.3)
계		47,393 (72.9)		118,468 (68.8)		186,383 (65.5)		290,884 (62.4)		232,625 (63.1)
전체		65,016		172,268		284,419		466,384		368,835

< 수 입 >

- ☐ '07년 이전까지 對일본, 對미국 수입이 가장 많았으나, '07년부터 중국이 우리나라의 1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 ☐ 對中·日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30%이상 차지

< 연도별 주요 수입대상국 변화 >

(단위 : 백만불, %)

구분	'90		'00		'05		'10		'11.1~8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1	일본	18,754 (26.6)	미국	31,828 (19.8)	일본	48,403 (18.5)	중국	71,574 (16.8)	중국	57,847 (16.6)
2	미국	16,942 (24.3)	일본	29,242 (18.2)	중국	38,648 (14.8)	일본	64,296 (15.1)	일본	46,138 (13.3)
3	독일	3,295 (4.7)	중국	12,799 (8.0)	미국	30,586 (11.7)	미국	40,403 (9.5)	미국	30,181 (8.7)
4	호주	2,589 (3.7)	사우디	9,641 (6.0)	사우디	16,106 (6.2)	사우디	26,820 (6.3)	사우디	24,064 (6.9)
5	캐나다	2,268 (3.2)	호주	5,959 (3.7)	UAE	10,018 (3.8)	호주	20,456 (4.8)	호주	16,838 (4.8)
6	사우디	1,725 (2.5)	인도 네시아	5,287 (3.3)	호주	9,859 (3.8)	독일	14,305 (3.4)	카타르	12,695 (3.6)
7	인도 네시아	1,600 (2.3)	독일	4,878 (3.0)	독일	9,774 (3.7)	인도 네시아	13,986 (3.3)	독일	11,284 (3.2)
8	말레 이시아	1,586 (2.3)	말레 이시아	4,703 (2.9)	인도 네시아	8,184 (3.1)	대만	13,647 (3.2)	쿠웨이트	10,864 (3.1)
9	캐나다	1,465 (2.1)	대만	4,701 (2.9)	대만	8,050 (3.1)	UAE	12,170 (2.9)	인도 네시아	10,828 (3.1)
10	대만	1,452 (2.1)	UAE	4,625 (2.9)	말레 이시아	6,012 (2.3)	카타르	11,915 (2.8)	UAE	10,165 (2.9)
계		51,496 (73.7)		113,663 (70.8)		185,640 (71.1)		289,572 (68.1)		230,904 (66.4)
전체		69,844		160,481		261,238		425,212		347,838

한중일 3국간 수출입 변화

◆ **역내교역 활성화로 한·중·일 3국간 교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일, 한-중, 중-일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확대되는 모습**

【韓-日】對日 무역역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4년 100억불 적자, '04년 200억불 적자를 초과한 이후, '10년 361억불 적자 기록

< 한국(기준국가)과 일본(상대국가)의 무역통계 >

(단위 : 억불)

구 분	'90	'00	'05	'06	'07	'08	'09	'10	'11.1~8
수 출	126	205	240	265	264	283	218	282	258
수 입	186	318	484	519	563	610	494	643	461
무역수지	△ 60	△ 113	△ 244	△ 254	△ 299	△ 327	△ 276	△ 361	△ 203

【韓-中】對中 무역흑자는 '04년 200억불을 초과한 후, '05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여 '10년 452억불 흑자 기록

< 한국(기준국가)과 중국(상대국가)의 무역통계 >

(단위 : 억불)

구 분	'90	'00	'05	'06	'07	'08	'09	'10	'11.1~8
수 출	6	185	619	695	820	914	867	1,168	879
수 입	23	128	386	486	630	769	542	716	578
무역수지	△ 17	57	233	209	190	145	325	452	301

【中-日】중국의 對日 무역적자폭은 지속 확대되어 '03년 100억불 적자, '04년 200억불 적자를 초과한 후 '10년 560억불 적자 기록

< 중국(기준국가)과 일본(상대국가)의 무역통계 >

(단위 : 억불)

구 분	'90	'00	'05	'06	'07	'08	'09	'10	'11.1~8
수 출	92	416	841	918	1,021	1,162	972	1,203	936
수 입	77	415	1,005	1,158	1,339	1,506	1,307	1,763	1,276
무역수지	15	1	△ 164	△ 240	△ 318	△ 344	△ 335	△ 560	△ 340

해외플랜트 수주

성장동력실 엔지니어링플랜트팀(☎2110-4692)

1 시기별 수주 동향

- ('04년 이후)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활용한 산업기반확충 등으로 세계 플랜트시장이 호황세를 유지하고, 정부차원의 수출금융 확대, F/S지원 등 다양한 수주지원시책 전개로 수주가 급증

*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 기록, '10년 해외 플랜트 수주액 645억불 달성

- ('08.하반기 이후)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플랜트 발주 급감으로 우리의 플랜트 수주규모도 급격히 축소하였으나, '09.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수주실적도 다시 증가 추세

* '10년 해외플랜트 645억불 수주로 사상최초로 600억불 돌파

< 연도별 수주 실적 >

(단위 : 억불,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9
수주액 (증감률)	84	101 (16.8)	100 (△ 1)	64 (△ 36.3)	84 (31.3)	158 (88.1)	254 (60.8)	422 (66.1)	462 (9.5)	463 (0.2)	645 (39.3)	414

2 지역별 수주 동향

- ◆ 풍부한 오일머니를 보유한 중동산유국의 인프라 확충, 아시아지역의 경제개발 등으로 중동과 아시아의 수주율이 평균 50%이상을 유지

- (중동) '00~'03년까지 이라크戰 등으로 수주액이 감소하였으나, '04~'09년까지 오일머니를 활용한 투자증가로 연평균 57% 증가

- (아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도국들이 기간 및 산업시설을 확충하는 등 경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여 '03년 이후 꾸준히 증가

- (아프리카) 국제적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으로 '04년을 기점으로 수주가 급증하여, 중동 다음으로 수주 유망지역으로 부상
- (미주·유럽) 고유가에 따른 자원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해양시추선 등 해양플랜트 발주가 증가하여 신흥시장으로 부상

< 지역별 수주 실적 >

(단위 : 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9
중 동	4,020	1,913	3,293	8,410	8,969	12,265	20,031	31,118	38,122	20,934
아시아	2,172	1,592	2,127	2,387	3,623	11,572	6,069	6,882	12,168	6,810
아프리카	2,754	1,588	684	3,752	3,726	7,934	2,314	4,222	4,151	537
유 럽	428	767	2,153	521	4,719	6,555	5,450	1,113	6,261	7,977
미 주	692	505	103	745	4,367	3,835	12,343	2,969	3,778	5,159
합 계	10,066	6,365	8,360	15,815	25,404	42,161	46,207	46,304	64,480	41,417

3 수주내역별 동향

◆ '03년 이후 중동의 전력난 해소 및 용수 공급을 위해 발전·담수 수주가 증가, 심해저 유전개발 등으로 Oil&Gas 플랜트 수주가 급증

- (Oil&Gas · 해양) 육상 및 심해저 자원확보를 위한 시추, 정유 등 시설 수요증가로 Oil&Gas · 해양플랜트* 수주가 급증

* 심해저 자원에 대한 발주 증가로 '11년 크게 증가

- (발전·담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08, '09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개도국의 발전시설 확충 추세로 '10년 크게 증가

< 설비별 수주 실적 >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3	'05	'07	'08	'09	'10	'11.1~9
해 양	3,322	2,416	5,384	13,685	16,144	5,243	8,860	14,137
Oil&Gas	541	537	1,897	3,058	8,277	27,858	11,964	7,813
석유화학	1,813	1,037	4,248	9,724	6,188	2,615	6,066	4,605
발전·담수	2,124	1,596	3,494	12,794	10,086	7,667	35,914	12,341
산업시설	2,284	659	405	849	3,454	2,234	1,498	2,070
기자재	47	120	387	2,051	2,058	687	178	451
합 계	10,131	6,365	15,815	42,161	46,207	46,304	64,480	41,417

3 국제 직접투자

가. 외국인직접투자 국내유입 동향

무역투자실 투자유치과(☎2110-5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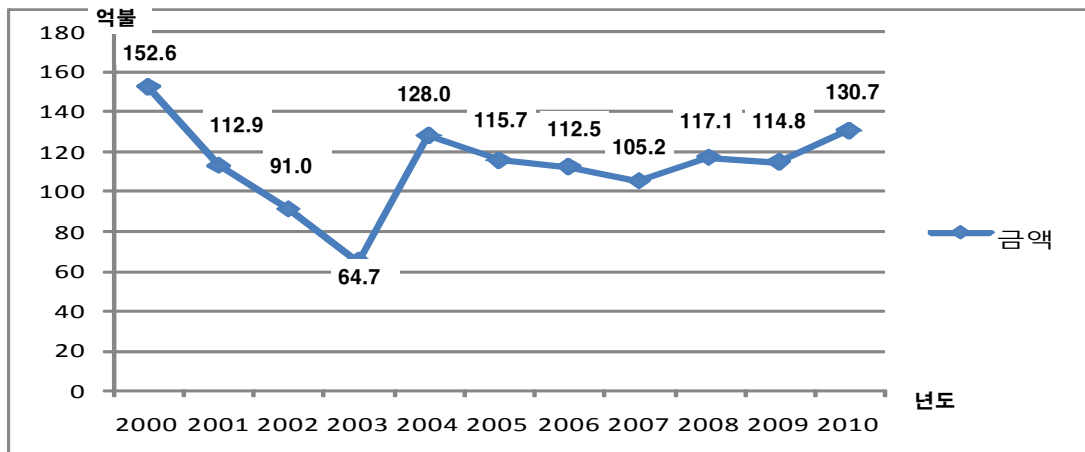
시기별

- (과거) '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정책으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여 '04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00억불 이상 유지
 - * 외환위기 이후('98~'08) 유입액이 이전('62~'97)의 5.0배(247억불→1,244억불)
- '10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11,484백만불) 대비 13.8% 증가한 130.7억불을 달성
- (금년) '11.1~9월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4.3% 상승한 75.8억불 유치
 - * 도착금액은 42.6억불이며, 도착비율(도착금액/신고금액)은 56.2%
- 전년대비 증가세이나 미국·일본 신용등급 하락, 유로 재정위기 지속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점차 증가세 둔화

< 시기별 FDI 유입액 변화 >

(단위 : 억불, 신고기준)

연도	'90	'00	'01	'06	'07	'08	'09	'10	'11.1~9	누계
금액	8.0	152.6	112.9	112.4	105.1	117.1	114.8	130.7	75.8	1,812



업종별

- (제조업) '10년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운송용 기계(297% ↑) 등에 대한 투자 급증으로 제조업 비중(전체FDI 중 51%)이 서비스업 비중을 추월(전년 대비 78.7% 증가한 6,657백만불)
- '11.1~9월(3,264백만불, 10.7% ↓)은 비금속광물, 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등은 증가한 반면 의약, 운송기계 등은 감소
-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2,882백만불로서 제조업 중 88.3%를 차지
- (서비스업) '10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도소매 유통(56.2% ↓)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전년대비 17.0% 감소한 6,303백만불 기록
- '11.1~9월(3,799백만불, 7.4% ↑)은 문화·오락, 도·소매(유통), 운수·창고(물류),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부동산·임대, 통신 등은 감소

< 업종별 FDI 동향 >

(단위 : 백만불,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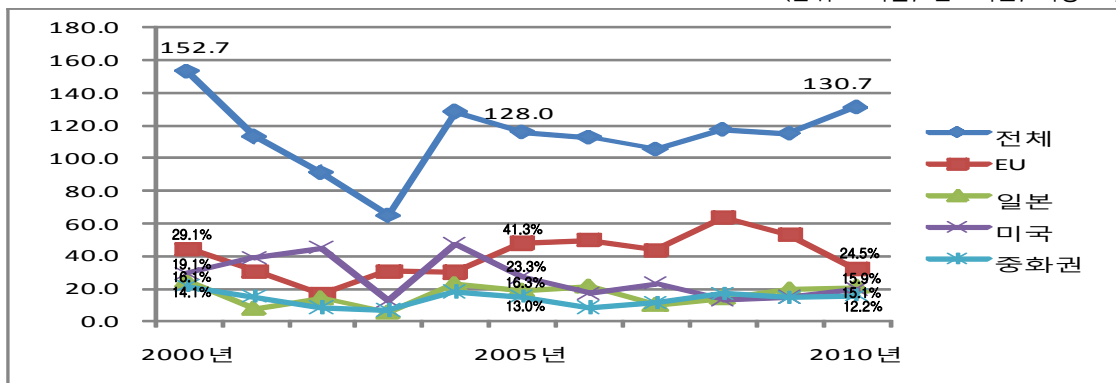
구 분	'90	'00	'06	'07	'08	'09	'10	'11.1~9	증감률	누계
제조업	520	6,877	4,253	2,692	3,007	3,725	6,657	3,264	△ 10.7	73,135
(부품소재)	395	5,860	3,233	2,353	2,458	3,008	5,284	2,882	△ 4.6	52,733
- 비금속광물	99	386	162	49	270	326	110	146	440.7	3,470
- 금속	15	302	246	239	190	403	152	249	322.0	3,850
- 기계·장비	61	1,589	389	304	242	178	407	375	145.1	6,295
- 전기·전자	84	2,575	1,825	938	1,058	1,798	1,560	1,294	61.8	24,567
- 의약	34	93	56	40	40	0.3	708	68	△ 87.4	1,865
- 운송기계	48	840	498	565	346	625	2,483	165	△ 88.3	10,323
서비스업	281	8,129	6,627	7,613	8,388	7,595	6,303	3,799	7.4	100,385
- 문화·오락	0.1	1,238	308	366	151	55	110	227	5,575.0	7,768
- 도·소매(유통)	100	2,033	500	1,828	939	2,024	965	915	55.1	23,359
- 운수·창고(물류)	3	280	568	564	704	265	197	83	80.4	4,500
- 비즈니스서비스	26	779	721	1,109	1,143	1,947	952	680	30.3	10,814
- 부동산·임대	-	960	325	977	689	1,420	2,687	859	△ 42.7	11,704
- 통신	0.1	191	50	37	25	1	21	1	95.2	2,166

국가별

- (미국) '62년~'10년 對韓 투자총액은 443억불(신고기준)로서 전체 외국인투자(1,756억불)의 25.2%를 차지하여 제1위의 對韓 투자국
→ 다만, '04년 급격한 증가세(전년대비 281%↑)를 보인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10년 32.8% 증가, '11.1~9월은 67.6% 증가
- (일본) 80년대 우리나라에 대한 FDI를 주도하였으나 외환위기後('98~'03년) 10% 초반으로 위축, '09년부터 회복세 시현하고, '11.1~9월은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투자 증가(1,424백만불, 37.6%↑)
- (EU) '00년 이후 최대 對韓 투자국으로 부상,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로 주춤하고 있으나, '11.1~9월 對韓투자는 증가(전년동기比 39.7%↑)
- (신흥국)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China Desk 운영 등) 및 위안화 강세 등으로 중화권 투자 대폭 증가('11.1~9월 전년동기대비 1,126백만불, 37.8%↑)

< 국가별 FDI 동향 >

(단위 : 억불, 신고기준, 비중 %)



< '11. 1~9월 FDI 상위 10개국 >

(단위 : 백만불)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중국	몰타	버진 아일랜드
금액	1,424	1,297	1,066	621	621	415	369	253	234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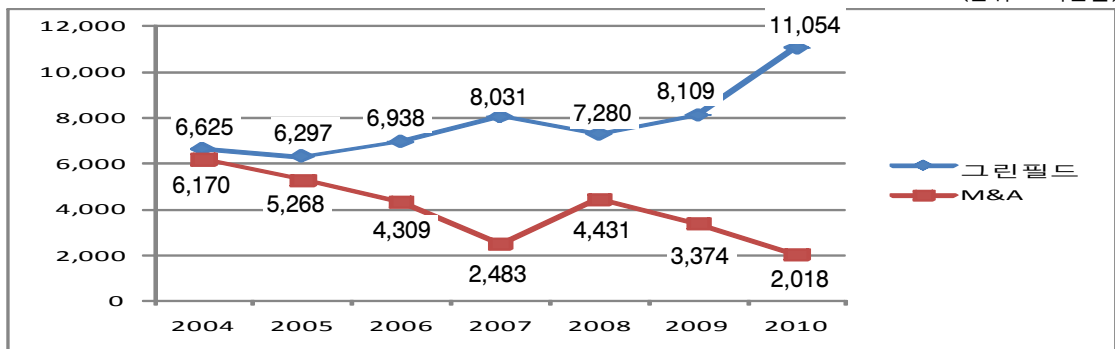
* EU : 2,912백만불 (전년동기 대비 39.7% 증가)

형태별

- (Greenfield) '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에는 36.3% 증가한 11,054백만불을 기록
 - '11.1~9월 그린필드형 투자(6,377백만불, 5.7% ↑)가 증가하고, 비중도 증가 ('10.1~9월 83% → '11.1~9월 84.2%)
 - 제조업은 2,811백만불로서 전년 동기대비 8.8% 감소하였으며, 특히 제지·목재, 의약, 운송기계 등에서 투자가 크게 감소
 - 서비스업은 운송·창고(물류),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6.1%가 증가한 3,056백만불을 기록
- (M&A) 지난해 1~9월에는 급감(60.8%) 하였으나, 올해 1~9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7% 감소(1,200백만불)로 감소폭 둔화
 -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21.2% 감소한 454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업은 12.9% 증가한 742백만불을 기록

< 형태별 FDI 동향 >

(단위 : 백만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1~9	누계
그린필드	전체	6,625	6,297	6,938	8,031	7,280	8,109	11,054	7,577	130,417
	제조업	3,593	2,009	2,984	2,081	2,175	3,459	5,501	2,811	51,689
	서비스업	2,641	4,150	3,870	5,772	4,958	4,501	5,443	3,056	72,677
M&A	전체	6,170	5,268	4,309	2,483	4,431	3,374	2,018	1,200	50,746
	제조업	2,624	1,069	1,268	612	832	266	1,157	454	21,447
	서비스업	3,503	4,151	2,757	1,841	3,430	3,094	860	742	27,708

나.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동향

무역투자실 해외투자과(☎2110-4863)

전반적 동향

- '11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269억불로 전년 동기(116억불) 대비 131.8% 증가, 광업투자(161억불)가 신고액의 60% 차지

- * 해외직접투자 : 국내 거주자의 외국법인 지분인수(10%이상 등),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금지급 등
- * 신고기준 : 투자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해외투자 규모를 사전 신고한 금액

<해외직접투자 추이 >

(단위 : 억불, %)

구 분	'07	'08	'09	'10	'11.1~6	'68~'11.6
신고액(증감률)	299.7(54.4)	368.5(23.0)	299.7(△ 18.7)	330.6(10.3)	269.0(131.8)	2,675.8
투자액(증감률)	222.2(91.2)	238.4(7.3)	200.8(△ 15.8)	231.6(15.3)	121.4(70.6)	1,754.7

국가별

- 미국·호주·캄보디아 등은 자원개발 투자로 전년 동기대비 대폭 증가, 제조업 투자대상인 중국·베트남은 소폭 증가 또는 감소

- * '11년 상반기 투자신고 상위 10개국(억불, 증감률) : 미국(125.8, 1043.7%), 호주(38.2, 8103.9%), 중국(23.2, 27.6%), 캄보디아(11.1, 1647.2%), 베트남(9.7, △36.8%), 홍콩(9.5, 227.2%), 영국(8.8, 292.5%), 인도(5.5, 195.8%), 캐나다(3.6, △16.5%), 인도(3.6, 252.2%)

업종별

- 전년 동기대비 광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도소매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상승

<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신고기준) >

(단위 : 억불, %)

	'09	'10	'10.1~6	'11.1~6			'68~'11.6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전 체	299.8	331.2	116.1	269.0	100	131.8	2,675.8
광 업	115.9	100.6	34.0	161.1	59.9	373.7	625.0
제조업	56.9	87.2	31.8	38.9	14.5	22.6	924.1
금융보험업	21.8	59.5	12.6	23.4	8.7	86.1	203.9
도소매업	20.7	14.8	5.5	12.9	4.8	138.3	285.1
부동산임대업	34.5	22.4	12.5	5.6	2.1	△ 55.2	200.6

4 에너지 수급

가. 총에너지 수급 동향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과(☎2110-5416)

1차에너지³⁾ 소비

- (소비동향) '11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32.2백만 TOE⁴⁾(잠정)로 집계되어 상반기 경제성장률(3.8%)보다 낮은 증가세 기록
 - 1/4분기 총에너지 소비는 3.7% 증가(경제성장률 4.2%)
 - 2/4분기 소비는 석유 소비의 큰 폭 감소(△6.2%)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보합세 시현(경제성장률 3.4%)

< 1차에너지 소비 동향 >

구분	'10 ^p					'11 ^p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석탄 (백만톤)	30.7 (22.9)	27.7 (10.6)	30.1 (3.3)	31.0 (6.3)	119.5 (10.3)	30.4 (△ 0.8)	28.8 (3.8)	59.2 (1.4)
석유 (백만bbl)	198.8 (△ 0.1)	193.5 (0.5)	192.1 (4.6)	210.1 (3.4)	794.5 (2.1)	205.0 (3.1)	181.5 (△ 6.2)	386.4 (△ 1.5)
LNG (백만톤)	10.5 (23.3)	6.3 (37.0)	5.3 (16.9)	9.2 (10.2)	31.4 (20.4)	11.9 (12.8)	7.0 (9.9)	18.8 (11.7)
수력 (TWh)	1.2 (48.0)	1.6 (10.5)	2.3 (△ 7.9)	1.5 (66.5)	6.6 (16.4)	1.5 (21.4)	1.7 (7.3)	3.2 (13.5)
원자력 (TWh)	36.0 (△ 1.6)	36.5 (△ 2.3)	37.6 (0.9)	37.8 (3.2)	147.8 (0.0)	36.0 (0.0)	36.3 (△ 0.5)	72.3 (△ 0.2)
기타 (백만TOE)	1.4 (3.7)	1.4 (3.7)	1.3 (3.7)	1.6 (3.7)	5.7 (3.7)	1.5 (10.8)	1.5 (10.7)	3.0 (10.7)
1차에너지 (백만TOE)	68.8 (10.0)	60.9 (7.0)	61.1 (5.0)	69.3 (5.5)	260.1 (6.9)	71.3 (3.7)	60.9 (0.0)	132.2 (2.0)

주 : 1)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 LNG소비에는 포스코(주), K-Power(주)의 직도입 소비 제외

3) 자연의 역학적인 절차 반복으로 형성된 가공되지 않은 에너지(변환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전기'는 2차 에너지로 분류)

4)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최종에너지⁵⁾ 소비

□ (소비동향) '11년 상반기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한 99.9백만 TOE를 기록

- 산업부문의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나,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소비가 모두 감소
- 전력소비가 상반기에 6.6%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증가 주도

<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

		'10 ^p					'11 ^p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부 문 별	산업 (백만TOE)	28.9 (13.8)	28.3 (8.5)	27.6 (3.8)	29.7 (5.9)	114.5 (7.9)	29.7 (2.8)	28.8 (1.6)	58.5 (2.2)
	수송 (백만TOE)	8.5 (0.8)	9.2 (1.9)	9.5 (4.2)	9.6 (2.8)	36.8 (2.4)	8.8 (3.2)	8.9 (△ 3.8)	17.7 (△ 0.5)
	가정·상업 (백만TOE)	13.6 (7.7)	7.8 (12.3)	6.2 (6.0)	10.6 (3.4)	38.3 (7.1)	14.0 (2.6)	7.4 (△ 4.9)	21.4 (△ 0.1)
	공공·기타 (백만TOE)	1.2 (5.4)	1.0 (1.8)	1.1 (11.0)	1.2 (3.3)	4.6 (5.2)	1.2 (2.7)	1.0 (△ 4.2)	2.2 (△ 0.5)
	합계 백만TOE	52.3 (9.7)	46.4 (7.6)	44.3 (4.4)	51.1 (4.7)	194.1 (6.6)	53.8 (2.8)	46.1 (△ 0.7)	99.9 (1.2)
에 너 지 원 별	도시가스 (십억 m^3)	7.9 (14.5)	4.3 (20.9)	2.8 (6.1)	5.7 (7.8)	20.8 (12.6)	8.1 (2.8)	4.4 (0.8)	12.5 (2.1)
	석유 (백만 bbl)	189.0 (1.0)	187.8 (0.9)	187.0 (3.3)	204.2 (3.2)	768.0 (2.1)	194.7 (3.0)	178.1 (△ 5.2)	372.8 (△ 1.1)
	전력 (TWh)	112.5 (12.2)	103.6 (10.3)	109.1 (10.2)	109.0 (7.7)	434.2 (10.1)	121.4 (7.9)	109.0 (5.1)	230.4 (6.6)
	석탄 (백만톤)	11.3 (37.0)	10.2 (24.1)	9.4 (△ 1.2)	10.4 (3.9)	41.2 (14.7)	10.6 (△ 5.5)	10.7 (4.7)	21.3 (△ 0.6)
	열 및 기타 (천TOE)	2,001 (7.0)	1,486 (6.8)	1,269 (3.7)	2,009 (3.9)	6,765 (5.4)	2,159 (7.9)	1,605 (8.0)	3,764 (7.9)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5)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된 에너지량으로 전환손실 및 에너지산업체의 자체소비는 제외

나. 주요 에너지源별 수급 동향

석 유

에너지자원실 석유산업과(☎2110-4891)

- '11년 8월 누적 원유 수입량은 6.1억 배럴(전년대비 7.8% ↑), 수입액은 623억불(전년대비 48.4% ↑), 석유제품 수출량은 2.7억 배럴(23.4% ↑), 수출액 321억 배럴(74.0% ↑)을 기록

○ 고유가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액과 석유제품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

- * 두바이유(\$/B): (4월)115.76 → (5월)108.04 → (6월)107.50 → (7월)110.15 → (8월)105.00
- * 국제휘발유(\$/B): (4월)127.85 → (5월)121.68 → (6월)117.76 → (7월)123.38 → (8월)119.75
- * 국제경유(\$/B): (4월)139.96 → (5월)128.26 → (6월)127.73 → (7월)129.83 → (8월)125.29

- (수출) 상반기 일본 대지진('11.3월)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역내 지역으로의 수출(2.3억 배럴, 275억불)이 크게 증가(수출량 42.4% ↑, 수출액 101.7% ↑)하였으며, 경유(103백만 배럴), 항공유(57백만 배럴), 병커C유(24백만 배럴)를 주로 수출

< 석유제품 수출 추이 >

(단위: 천B, 백만불)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출량	31,515	38,444	40,386	39,085	36,563	42,222	39,414
수출액	3,467	4,628	5,150	4,780	4,424	5,188	4,660

* 수출 : 수출과 국제병커링⁶⁾의 합

- (소비) '11년 국내 소비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10년 소비량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석유화학산업의 호조로 석유화학 주 연료인 나프타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임

* 나프타 소비량(백만B): (3월)30 → (4월)25 → (5월)30 → (6월)29 → (7월)30 → (8월)31

< 석유제품 국내 소비 현황 >

(단위: 천Bbl, %)

	나프타	경유	LPG	휘발유	B-C유	합계
소비량(천Bbl)	30,730	11,670	8,834	6,518	3,501	67,346
비중(%)	45.6	17.3	13.1	9.7	5.2	100.0
전년동기비(%)	9.4	2.3	△2.3	△0.3	△21.8	1.8

6) 국적이나 선박 종류에 관계없이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의 양

천연가스

에너지자원실 가스산업과(☎2110-5470)

- 상반기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11.8%(198만톤) 증가한 1,871만톤
 - 도시가스용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5.3%(53만톤) 증가한 1,045만톤
 - 발전용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21.3%(145만톤) 증가한 826만톤
- 상반기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카타르, 인니, 오만 등 15개국에서 총 1,752만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
 - 실제 수요와의 차이 119만톤은 전년 하반기 이월된 재고로 충당

< '11년 상반기 천연가스 수요 현황 >

구 분		1분기		2분기		상반기		
		도시가스용	발전용	도시가스용	발전용	도시가스용	발전용	총계
실적 분석	'10년 실적	664	379	328	302	992	681	1,673
	'11년 실적	705	475	340	352	1,045	826	1,871
	전년비차이	41	96	12	50	53	145	198
	증감률(%)	6.2	25.3	3.7	16.6	5.3	21.3	11.8

* 자가소비용 직수입물량 제외, 전환부문의 자가 사용·손실 제외

- 전년 동기대비 수요 증가원인은 주로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화력 발전용 가스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산업용 가스 소비증가도 영향
 - (도시가스용) 일본 지진사태 이후 LNG 다소비 산업의 가동률이 증가하였고 가격이 높은 유류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사례 증가
 - (발전용) 전력수요 증가 및 신규 LNG 발전소 가동* 등으로 LNG 발전량 증가

* 신규발전 : 영월복합(85.3만Kw)/포스코복합 5~6호(각 57.5만Kw)

석 탄

에너지자원실 석탄산업과(☎2110-5492)

- (공급) '11.6월, 석탄공사의 감산으로 당초 2,403천톤에서 57천톤 줄어든 2,346천톤 공급 가능
- (소비) 연탄용탄과 발전용탄을 합쳐 당초 계획(2,400천톤)보다 96천톤 줄어든 2,304천톤 소비 예상
- (연탄용탄) 지난 5년간의 소비 추이 및 상반기 동향을 분석하면 금년 소비량은 당초 계획보다 96천톤 줄어든 1,704천톤으로 추정

연탄용탄 소비량 전망 근거

◆ 최근 5개년 상반기 vs. 하반기 소비량 비교

(단위 : 천톤, %)

구 분	'06	'07	'08	'09	'10
상반기	978	882	1,154	823	799
하반기	1,349	1,209	1,135	1,118	1,060
증가율(하반기/상반기)	137.9	137.1	98.4	135.8	132.7

◆ '11년 소비량 추정

- ① 상반기 소비량 722천톤
- ② 상반기 vs. 하반기 소비증가율 평균(최근 5개년*) 136%
* 유가급등으로 인해 연탄의 소비패턴에 변화가 생긴 '08년 제외
- ③ 하반기 소비량은 982천톤(= ① × ②)
- ④ '11년 소비량은 1,704천톤(상반기 722천톤, 하반기 982천톤)

- (발전용탄) 발전용탄 소비량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량은 600천톤임

* '89년부터 연탄용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생산탄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한전 등 전력회사로 하여금 국내 생산탄 일부를 발전용탄으로 사용하도록 조치

5 업종별 동향

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 '11년 3/4분기 현황과 4/4분기 전망

산업경제실 산업경제정책과(☎2110-5115)

※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

*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를 0~200의 값으로 치환하고, 100(전분기와 동일)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승, 0에 가까울수록 경기 침체 암시

- 주요업종의 경기동향과 전망, 기업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타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

전체 수급 BSI 실적과 전망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전망)		
시황	105 (113)	106 (110)	96 (102)	101 (115)	91 (111)	(104)		
매출액	107 (115)	110 (114)	95 (106)	103 (120)	93 (115)	(108)		
내수(국내출하)	104 (111)	107 (110)	93 (103)	102 (116)	92 (108)	(104)		
수출	103 (109)	104 (106)	95 (104)	99 (111)	95 (107)	(103)		
경상이익	99 (105)	97 (103)	86 (98)	91 (104)	88 (102)	(98)		
설비투자	107 (108)	105 (105)	103 (105)	101 (107)	100 (103)	(99)		
설비가동률	109 (113)	111 (111)	102 (107)	105 (117)	98 (110)	(104)		
재고	101 (103)	100 (100)	103 (101)	101 (101)	102 (100)	(98)		
고용	108 (108)	107 (108)	105 (106)	103 (110)	105 (105)	(103)		
자금사정	98 (107)	98 (105)	90 (97)	91 (104)	87 (103)	(100)		

주 : 100은 전분기 대비 불변, 100보다 크면 증가(호전), 작으면 감소(악화)를 의미

업종별 BSI 실적 및 전망

1 시 황

- (실적) 반도체(82), 자동차(90), 전기기계(84) 등 조사 대상 업종 모두에서 前분기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평가
- (전망) 4/4분기 시황 전망지수는 전자(115), 자동차(105), 섬유(106)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준치를 상회, 기업들의 경기개선 예상을 반영
- 다만, 반도체(83), 비금속·석유정제(69), 철강(99)은 부정적 전망

< 업종별 시황 BSI의 실적과 전망 >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전망)
제조업전체	105 (113)	106 (110)	96 (102)	101 (115)	91 (111)	(104)
전자	104 (115)	108 (115)	81 (99)	98 (112)	91 (107)	(115)
반도체	103 (151)	103 (100)	80 (115)	80 (138)	82 (162)	(83)
자동차	105 (110)	117 (121)	99 (99)	113 (116)	90 (104)	(105)
조선	98 (104)	104 (106)	97 (93)	105 (96)	96 (111)	(104)
기계 및 장비	109 (113)	114 (108)	99 (100)	105 (113)	97 (114)	(101)
철강	97 (107)	112 (113)	106 (104)	106 (114)	93 (109)	(99)
화학	104 (111)	98 (105)	99 (99)	97 (104)	88 (107)	(100)
전기기계	102 (115)	99 (109)	91 (107)	107 (110)	84 (107)	(104)
섬유	104 (118)	98 (97)	88 (100)	92 (107)	93 (107)	(106)
정밀기기	108 (105)	92 (122)	91 (106)	110 (115)	93 (118)	(104)
비금속, 석유정제	97 (110)	112 (110)	90 (111)	108 (120)	71 (97)	(69)
중화학공업	103 (110)	106 (111)	97 (102)	105 (112)	92 (108)	(104)
경공업	110 (111)	105 (106)	92 (101)	94 (111)	93 (104)	(107)
정보통신	107 (124)	108 (109)	94 (100)	101 (119)	93 (122)	(109)
대기업	92 (107)	93 (107)	87 (89)	104 (108)	85 (105)	(104)
중소기업	105 (113)	106 (108)	96 (101)	100 (115)	91 (112)	(103)

2 매 출

- (실적) 전자(91), 비금속·석유정제(64)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 실적이 前분기 대비 악화
 - 기계 및 장비(105)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기준치를 하회
- (전망) 4/4분기에는 반도체(108), 자동차(115) 등 비금속·석유정제(66)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매출 개선을 전망

< 업종별 매출 BSI의 실적과 전망 >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전망)		
제조업전체	107 (115)	110 (114)	95 (106)	103 (120)	93 (115)	(108)		
전자	104 (123)	109 (120)	84 (108)	101 (127)	91 (117)	(118)		
반도체	131 (155)	117 (130)	86 (128)	108 (150)	99 (163)	(108)		
자동차	107 (112)	116 (125)	100 (102)	116 (121)	96 (108)	(115)		
조선	93 (97)	113 (104)	90 (96)	92 (99)	98 (108)	(110)		
기계 및 장비	113 (116)	116 (114)	93 (103)	107 (112)	105 (118)	(101)		
철강	100 (108)	119 (116)	104 (107)	110 (123)	92 (114)	(110)		
화학	100 (113)	100 (107)	103 (102)	107 (114)	93 (114)	(102)		
전기기계	109 (118)	107 (110)	90 (116)	108 (114)	87 (108)	(113)		
섬유	109 (118)	103 (102)	87 (107)	96 (117)	97 (112)	(108)		
정밀기기	116 (111)	94 (127)	92 (107)	120 (123)	99 (117)	(105)		
비금속,석유정제	97 (109)	117 (112)	93 (117)	113 (121)	64 (88)	(66)		
중화학공업	105 (112)	110 (114)	96 (106)	109 (117)	95 (111)	(108)		
경공업	111 (111)	107 (112)	93 (107)	98 (119)	94 (110)	(108)		
정보통신	111 (127)	113 (117)	95 (103)	103 (123)	94 (125)	(113)		
대기업	97 (110)	95 (114)	91 (95)	109 (123)	87 (109)	(110)		
중소기업	107 (115)	111 (112)	95 (105)	102 (118)	93 (115)	(106)		

3 내 수

- (실적) 자동차(101), 정밀기기(100)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前분기 대비 내수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평가
- (전망) 4/4분기에는 전자(114), 반도체(110), 자동차(111), 조선(108)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내수 실적 개선을 전망
- 반면 섬유(98), 비금속·석유정제(70)는 내수 실적 부진을 예상

< 업종별 내수 BSI의 실적과 전망 >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전망)
제조업전체	104 (111)	107 (110)	93 (103)	102 (116)	92 (108)	(104)
전자	107 (122)	100 (114)	84 (106)	93 (123)	93 (99)	(114)
반도체	102 (135)	102 (89)	77 (115)	108 (138)	97 (107)	(110)
자동차	106 (110)	112 (119)	98 (104)	109 (119)	101 (106)	(111)
조선	92 (94)	108 (101)	94 (95)	91 (100)	98 (97)	(108)
기계 및 장비	108 (115)	115 (111)	94 (101)	103 (111)	97 (115)	(101)
철강	95 (103)	116 (112)	101 (104)	109 (115)	90 (107)	(105)
화학	101 (113)	98 (103)	99 (100)	106 (105)	94 (107)	(103)
전기기계	102 (110)	102 (111)	89 (111)	105 (102)	79 (112)	(105)
섬유	102 (111)	107 (99)	96 (105)	92 (106)	95 (106)	(98)
정밀기기	107 (106)	92 (125)	87 (100)	113 (123)	100 (116)	(100)
비금속, 석유정제	89 (112)	114 (103)	96 (113)	104 (112)	64 (95)	(70)
중화학공업	102 (109)	107 (111)	95 (104)	107 (112)	94 (108)	(106)
경공업	107 (109)	110 (108)	96 (101)	94 (112)	89 (104)	(100)
정보통신	107 (120)	103 (110)	89 (101)	102 (121)	94 (115)	(109)
대기업	93 (110)	90 (105)	91 (91)	98 (114)	88 (95)	(106)
중소기업	104 (111)	108 (109)	92 (103)	103 (115)	92 (110)	(103)

4 수 출

- (실적) 자동차(93), 조선(83), 비금속·석유정제(62) 등의 부진으로 전체적으로 前분기 대비 악화(95)
 - 반면 반도체(104), 기계 및 장비(106)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전망) 4/4분기에는 반도체(113), 전기기계(113)의 개선이 예상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호조 전망
 - 반면 철강(98), 화학(99), 비금속·석유정제(66)은 수출 부진 예상

< 업종별 수출 BSI의 실적과 전망 >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전망)		
제조업전체	103 (109)	104 (106)	95 (104)	99 (111)	95 (107)	(103)		
전자	108 (119)	107 (111)	86 (111)	99 (119)	98 (110)	(111)		
반도체	131 (131)	130 (131)	91 (128)	81 (124)	104 (162)	(113)		
자동차	107 (117)	114 (113)	101 (101)	111 (118)	93 (107)	(104)		
조선	89 (94)	94 (102)	92 (93)	111 (100)	83 (110)	(100)		
기계 및 장비	95 (108)	108 (100)	91 (108)	104 (112)	106 (108)	(104)		
철강	95 (99)	113 (105)	102 (102)	103 (110)	90 (110)	(98)		
화학	101 (105)	100 (102)	100 (101)	109 (109)	94 (114)	(99)		
전기기계	109 (114)	99 (98)	102 (113)	110 (118)	97 (107)	(113)		
섬유	101 (114)	98 (102)	89 (100)	87 (118)	93 (104)	(102)		
정밀기기	116 (113)	96 (125)	101 (103)	109 (112)	98 (110)	(104)		
비금속,석유정제	103 (106)	108 (105)	91 (110)	98 (107)	62 (84)	(66)		
중화학공업	101 (108)	104 (106)	96 (104)	105 (110)	96 (108)	(103)		
경공업	103 (105)	95 (105)	93 (100)	91 (112)	96 (100)	(107)		
정보통신	108 (118)	109 (108)	93 (109)	98 (111)	99 (112)	(107)		
대기업	96 (109)	90 (104)	91 (92)	107 (118)	87 (109)	(100)		
중소기업	102 (109)	104 (105)	95 (104)	98 (109)	96 (107)	(102)		

5 경상이익

- (실적) 조선(100)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前분기 대비 악화로 평가
 - 특히 전기기계(78), 비금속·석유정제(59)의 부진이 두드러짐
- (전망) 반도체(109), 조선(110) 등은 개선, 자동차(97), 기계 및 정비(96) 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업종별 전망이 엇갈림
 - 특히 비금속·석유정제(64)의 부진 정도가 클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경상이익 BSI의 실적과 전망 >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전망)		
제조업전체	99 (105)	97 (103)	86 (98)	91 (104)	88 (102)	(98)		
전자	102 (111)	89 (104)	79 (106)	95 (113)	97 (102)	(102)		
반도체	115 (143)	89 (114)	102 (87)	75 (136)	96 (160)	(109)		
자동차	103 (103)	97 (112)	88 (92)	104 (105)	88 (101)	(97)		
조선	89 (90)	94 (94)	84 (92)	81 (91)	100 (92)	(110)		
기계 및 장비	104 (100)	109 (106)	86 (96)	94 (96)	90 (106)	(96)		
철강	92 (101)	107 (107)	94 (98)	97 (101)	84 (105)	(98)		
화학	95 (105)	89 (96)	83 (95)	94 (95)	93 (98)	(93)		
전기기계	95 (100)	97 (98)	80 (99)	88 (100)	78 (102)	(110)		
섬유	100 (112)	92 (96)	79 (94)	94 (96)	95 (105)	(101)		
정밀기기	104 (103)	84 (116)	86 (102)	107 (111)	90 (103)	(99)		
비금속,석유정제	95 (100)	103 (96)	95 (97)	92 (107)	59 (84)	(64)		
중화학공업	98 (102)	96 (103)	86 (97)	95 (101)	90 (101)	(100)		
경공업	99 (108)	95 (105)	82 (98)	94 (101)	89 (103)	(99)		
정보통신	102 (114)	100 (102)	86 (101)	91 (109)	90 (108)	(100)		
대기업	91 (103)	78 (105)	89 (83)	98 (89)	87 (101)	(97)		
중소기업	98 (104)	98 (101)	85 (98)	90 (85)	88 (102)	(97)		

기타 부문별 BSI 실적 및 전망

1 설비투자 BSI 실적 및 전망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전망)
제조업전체	107 (108)	105 (105)	103 (105)	101 (107)	100 (103)	(99)
중화학공업	107 (108)	104 (105)	104 (106)	106 (107)	101 (107)	(102)
경공업	106 (107)	108 (101)	100 (105)	101 (105)	109 (110)	(105)
정보통신	107 (110)	104 (111)	101 (103)	100 (108)	102 (102)	(98)
대기업	100 (110)	93 (101)	103 (93)	107 (109)	98 (105)	(98)
중소기업	106 (107)	104 (104)	103 (105)	100 (106)	99 (102)	(98)
수출기업	104 (107)	100 (104)	103 (103)	105 (106)	98 (104)	(99)
내수기업	104 (108)	105 (103)	102 (105)	98 (107)	101 (100)	(97)

2 재고 BSI 실적 및 전망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전망)
제조업전체	101 (102)	101 (100)	101 (102)	102 (101)	102 (100)	(98)
중화학공업	102 (104)	101 (100)	99 (101)	101 (101)	104 (101)	(100)
경공업	96 (106)	98 (98)	107 (100)	106 (101)	109 (103)	(100)
정보통신	103 (102)	84 (101)	98 (87)	100 (96)	103 (102)	(99)
대기업	94 (103)	101 (89)	105 (102)	102 (101)	109 (105)	(100)
중소기업	101 (100)	100 (99)	101 (101)	101 (102)	100 (99)	(98)
수출기업	93 (100)	99 (95)	102 (100)	103 (100)	107 (102)	(97)
내수기업	101 (103)	101 (100)	99 (100)	102 (100)	100 (99)	(97)

3 설비가동률 BSI 실적 및 전망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전망)
제조업전체	109 (113)	111 (111)	102 (107)	105 (117)	98 (110)	(104)
중화학공업	107 (110)	111 (110)	102 (106)	109 (115)	101 (110)	(105)
경공업	110 (110)	110 (109)	98 (104)	105 (112)	98 (112)	(112)
정보통신	112 (123)	112 (117)	101 (110)	106 (120)	100 (116)	(108)
대기업	102 (109)	99 (105)	104 (95)	111 (117)	94 (114)	(105)
중소기업	108 (112)	111 (110)	101 (106)	104 (116)	98 (109)	(103)
수출기업	107 (111)	107 (106)	101 (105)	104 (113)	95 (108)	(104)
내수기업	105 (113)	109 (110)	101 (104)	107 (118)	101 (107)	(104)

4 고용 BSI 실적 및 전망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제조업전체	108 (108)	107 (108)	105 (106)	103 (110)	102 (105)	(103)		
중화학공업	108 (106)	107 (107)	106 (107)	107 (108)	106 (106)	(105)		
경공업	104 (108)	104 (106)	105 (105)	101 (104)	105 (107)	(109)		
정보통신	112 (114)	112 (112)	105 (104)	104 (114)	103 (109)	(106)		
대기업	97 (102)	95 (99)	97 (91)	106 (108)	98 (103)	(99)		
중소기업	108 (109)	107 (107)	106 (106)	103 (111)	102 (105)	(103)		
수출기업	107 (109)	104 (105)	109 (102)	102 (106)	102 (105)	(104)		
내수기업	104 (108)	106 (106)	104 (105)	102 (111)	102 (103)	(102)		

5 자금사정 BSI 실적 및 전망

	'10				'11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1/4분기 현황(전망)	2/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3/4분기 현황(전망)	4/4분기 현황(전망)
제조업전체	98 (107)	98 (105)	90 (97)	91 (104)	87 (103)	(100)		
중화학공업	99 (105)	98 (107)	91 (98)	95 (103)	90 (104)	(100)		
경공업	103 (108)	96 (103)	80 (95)	90 (104)	88 (102)	(103)		
정보통신	93 (111)	99 (99)	91 (98)	91 (104)	88 (106)	(104)		
대기업	89 (97)	83 (100)	92 (79)	99 (97)	85 (101)	(101)		
중소기업	98 (108)	98 (103)	89 (98)	90 (104)	86 (103)	(98)		
수출기업	97 (107)	94 (103)	89 (94)	89 (97)	83 (101)	(98)		
내수기업	95 (107)	98 (104)	90 (97)	93 (106)	90 (103)	(100)		

<참고> 분기별 BSI 조사 개요

- **조사개요** : 지경부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산업별 경기동향·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기별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 조사로서 금번이 제38회임
- **조사대상** : 업종별 사업자단체 소속회원사 중 on-line web 방식으로 연결 가능업체
- **조사방법**
 - 7scale로 구성된 선택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실시
 - * 설문은 ④ 불변(보통)을 중간값으로, ① 매우 감소(악화)에서 ⑦ 매우 증가(호전)까지 7개의 선택지로 구성되며, 응답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선택지에 대해 참고지표로서 해당 증가율 수치를 첨부(예: “⑦ 매우 증가”는 10% 이상 증가)
 - 선택지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0-200 사이의 값으로 치환**
 - * 타기관에서 발표하는 3 scale BSI와 비교시,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경기상승, 0에 가까울수록 침체를 의미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BSI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
 - 본 제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규모별, 업종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 (자세한 방식은 산업연구원 '04.4분기 조사보고서의 <부록 : 지수산정방식>을 참고)

나. 주력산업 동향

자동차

성장동력실 자동차조선과(☎2110-4825)

1 최근 업계 환경

- ☐ (시장수요) 북미 및 신흥시장의 자동차수요 회복으로 '11년 세계 자동차수요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79,049천대 전망
- ☐ (시장점유율) '10년 국내 자동차생산은 4,272천대로, 국가별 생산 순위는 5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5.5% 차지

< 국내외 자동차산업 전망 >

(단위: 천대, %)

구 분	'08	'09	증감률	'10	증감률	'11(전망)	증감률
국내 수요	1,154	1,394	20.7	1,465	5.1	1,500	2.4
세계 수요	68,712	66,154	△ 3.7	74,968	13.3	79,049	5.4

< 세계 생산 점유율 변화 >

(단위: 천대, %)

구 분	'05	'06	'07	'08	'09	'10
총생산 대수 (국내 생산) (해외 생산)	4,442 (3,699) (743)	4,849 (3,840) (1,009)	5,248 (4,086) (1,162)	5,284 (3,827) (1,457)	5,415 (3,513) (1,902)	6,877 (4,272) (2,605)
세계 생산 대수 (우리나라 점유율)	67,258 (6.6)	70,467 (6.9)	74,484 (7.0)	71,433 (7.4)	62,429 (8.7)	77,015 (8.9)

< 주요시장 점유율 변화 >

(단위: %)

구 분	'11.1~7	'10	'09	'08	'07
미국시장	9.1	7.7	7.1	5.1	4.8
유럽시장	4.7	4.5	4.1	3.5	3.3
중국시장	7.8	7.5	7.9	6.5	5.3

< 최근 5년간 업체별 당기순이익 >

(단위 : 백만원)

	'10	'09	'08	'07	'06
현 대	5,266,971	2,961,509	1,447,904	1,682,419	1,526,063
기 아	2,254,311	1,450,260	113,784	13,563	39,337
쌍 용	8,115	△ 346,270	△ 709,684	11,571	△ 195,962

* 한국지엠, 르노삼성은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음

2 최근 생산·내수·수출 동향

- (생산) '11년 상반기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증가로 전년동기비 9.7% 증가한 2,302,600대로 반기 사상 최대치 기록
- (내수) '11년 상반기 내수는 신차효과와 고연비 모델의 판매증가로 전년동기비 4.0% 증가한 739,197대 기록
- (수출) '11년 상반기 수출은 세계 자동차 수요 회복세와 국산차 품질향상 등으로 전년동기비 15.1% 증가한 1,540,646대로 반기 사상 최대치 기록

<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현황 >

(단위 : 대, %)

구 분		'07	'08	'09	'10	'11.1~8
생산	현 대	1,706,727	1,673,580	1,606,879	1,743,375	1,197,910
	기 아	1,118,714	1,055,152	1,137,176	1,416,681	1,026,531
	한국지엠	942,805	813,023	532,191	744,096	527,765
	르노삼성	177,742	187,947	189,831	275,269	177,145
	쌍 용	122,857	81,445	34,703	80,067	76,938
	기 타	17,463	15,535	12,146	12,253	8,535
	합 계 (증감률)	4,086,308 (6.4)	3,826,682 (△ 6.4)	3,512,926 (△ 8.2)	4,271,741 (21.6)	3,014,824 (9.3)
내수	현 대	625,275	570,962	702,678	659,565	455,785
	기 아	272,330	316,432	412,752	484,512	325,662
	한국지엠	130,542	116,520	114,845	125,730	93,483
	르노삼성	117,204	101,981	133,630	155,697	73,678
	쌍 용	60,616	39,165	22,189	32,459	27,185
	기 타	13,368	9,423	7,906	7,463	5,856
	합 계 (증감률)	1,219,335 (4.7)	1,154,483 (△ 5.3)	1,394,000 (20.7)	1,465,426 (5.1)	981,649 (4.2)
수출	현 대	1,076,084	1,099,219	911,088	1,072,727	744,430
	기 아	840,822	738,530	736,024	920,057	703,635
	한국지엠	807,729	702,916	429,259	610,898	431,610
	르노삼성	54,971	95,043	56,175	115,783	95,673
	쌍 용	64,073	43,240	12,747	47,756	48,831
	기 타	3,459	5,017	3,569	4,886	2,490
	합 계 (증감률)	2,847,138 (7.5)	2,683,965 (△ 5.7)	2,148,862 (△ 19.9)	2,772,107 (29.0)	2,026,669 (13.8)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조 선

성장동력실 자동차조선과(☎2110-4826)

1 최근 업계환경

- '09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추세로 발주량은 호황기('06~'08년) 이전 **평년 수준(30~35백만CGT) 회복**

* 발주량 전망(백만CGT)('11.3월 Clarkson) : ('10)35.7 → ('11)34.3 → ('12)31.8 → ('13)35.9 → ('14)36.4 → ('15)43.2 (※'96~'06년 연평균 발주량 30.4)

- 우리나라는 **'11.1~8월 수주량 1위**(점유율 53.7%) 기록중

* '03~'08년 수주량 1위, '03~'09년 건조량 1위, '00~'08년 수주잔량 1위

- 국내조선사에 강점이 있는 대형컨테이너선, LNG선, 해양플랜트 등의 **고부가가치 선박 시황 활성화**

< 세계 조선시장 변화 추이 (Clarkson) >

	'07			'09			'10			'11.1~8		
발주량 (만CGT)	9,362			1,562			3,859			2,118		
주요 수주국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수주량 (점유율 %)	3,254 (34.8)	3,250 (34.7)	1,392 (14.9)	456 (29.2)	733 (46.9)	161 (10.3)	1,285 (33.3)	1,851 (48.0)	236 (6.1)	1,138 (53.7)	615 (29.1)	94 (4.4)

< 최근 세계 조선시장 분기별 발주량 (Clarkson) >

	'09				'10				'11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발주량 (만CGT)	463	151	459	485	747	1,135	1,078	881	783	981
전년 동기비(%)	(△ 77.4)	(△ 91.7)	(△ 69.0)	(58.6)	(61.1)	(653.9)	(134.8)	(81.9)	(4.8)	(△ 13.5)

< 우리나라 수주·건조·수주잔량 추이 (Clarkson) >

	수 주		건 조		수주잔량	
	백만CGT	증감률(%)	백만CGT	증감률(%)	백만CGT	증감률(%)
'06	21.5	(65.5)	11.0	(15.6)	44.5	(23.8)
'07	32.5	(51.4)	12.0	(9.8)	64.9	(45.8)
'08	18.5	(△ 43.2)	15.6	(29.3)	69.0	(6.3)
'09	4.6	(△ 75.3)	15.4	(△ 1.3)	54.4	(△ 21.2)
'10	12.9	(181.8)	16.0	(3.9)	45.6	(△ 16.2)
'11.1~8	11.4	(26.1)	10.5	(△ 10.2)	43.4	(△ 4.8)

<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점유율 (Clarkson) >

(단위 : %)

구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06	31.7	21.6	29.3	34.1	28.8	15.6	33.1	23.9	22.6
'07	34.8	14.9	34.7	34.1	25.2	18.6	34.2	19.1	28.7
'08	34.0	17.9	35.6	36.4	23.0	21.5	33.1	18.8	32.1
'09	29.2	10.3	46.9	34.1	21.2	27.9	31.9	17.8	35.3
'10	33.3	6.1	48.0	30.8	18.7	36.8	31.3	15.5	38.1
'11.1~8	53.7	4.4	29.1	33.6	17.6	38.2	33.0	13.4	38.1

< 선종별 선가추이 (Clarkson) >

(단위 : 백만불)

구분	'05	'06	'07	'08		'09		'10		'11
				8월	12월	3월	12월	3월	12월	7월
VLCC [32만 DWT]	120	120	146	160	150	141	101	97	105	102.0
컨테이너선 [6,700 TEU]	89	101	107	108	100	95	67	66	79.5	70.0
벌크선 [180k Capesize]	59	68	97	99	88	81	56	56	57	52.0
LNG선 [160k]	205	220	220	250	245	245	212	212	202	202.0
Clarkson 선가지수	162	168	184	190	177	157	138	136	142	141.5

② 최근 생산·내수·수출 동향

- (수출) '10년은 풍부한 수주잔량을 기반으로 '09년 수출실적을 경신하며, 전년대비 8.8% 증가한 491억불의 사상최대 수출액 달성
 - * 국내 건조량(만CGT): ('08)1,548 → ('09)1,539 → ('10)1,595 → ('11.1~7)894
- 전세계 건조량은 '11년부터 지속 감소할 전망 (Clarkson)
 - * 건조량 전망(백만CGT)('11.3월 Clarkson) : ('10) 51.2 → ('11) 45.0 → ('12) 42.7 → ('13) 41.6 → ('14) 38.9 → ('15) 44.5

< 수출 현황 >

(단위:백만불, %)

'07		'08		'09		'10		'11.1~9(잠정)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7,777	25.6	43,157	55.4	45,128	4.6	49,112	8.8	44,528	23.8

* MTI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기준, 전년대비증가율, 한국무역협회

< 국민경제상 비중 >

구분	고용 (천명)	출하액 (십억원)	부가가치 (십억원)	수출액(백만불)	
				'09	'10
조선산업 (제조업내 비중)	131,367 (5.4)	74,524 (6.6)	23,171 (6.2)	45,128 (12.7)	49,112 (10.8)
제조업	2,452,880	1,122,987	374,501	354,196	454,887

* 자료 : 통계청 「2009년 광업·제조업통계」, 한국무역협회

철 강

성장동력실 철강화학과(☎2110-5640)

1 최근 업계 환경

- (수요) '10년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철강재 수요가 증가하였고, '11년에도 신흥국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전망(WSA)

* 세계 수요(백만톤) : ('09년) 1,134 → ('10년) 1,284(13.2% ↑) → ('11년) 1,359(5.9% ↑)

- (가격) 미국의 경제회복 둔화, EU의 재정위기 확산, 중국의 지속적인 긴축정책 등에 기인한 세계수요 부진으로 하락세

* 철 근(유럽, 역내, US\$/톤) :

('08.7) 837 → ('09.12) 344 → ('10.4) 725 → ('10.12) 695 → ('11.9) 705

* 핫코일(유럽, 역내, US\$/톤) :

('08.7) 1,286 → ('09.12) 522 → ('10.4) 725 → ('10.12) 682 → ('11.9) 727

- (시장점유율) '10년 조강생산 점유율은 현대제철 고로의 정상 가동으로 '09년대비 0.3% 상승한 4.2% 기록

* 우리나라 조강생산 실적(백만톤, %) :

('09) 48.57(전년비 9.4% ↓, 점유비 3.9%) → ('10) 58.91(전년비 21.3% ↑, 점유비 4.2%)

- '10년 세계 조강생산은 사상 최고치(14억 1,189만톤, 전년동기비 14.8% ↑) 기록

< 세계 주요국별 조강생산 추이 >

(단위 : 천톤, %)

구 분	'09	전년비	비중	'10	전년비	비중	'11.1~8	전년비	비중
전세계	1,230,172	△ 7.3	100	1,411,893	14.8	100	1,011,113	8.3	100
중 국	573,567	14.6	46.6	626,654	9.3	44.4	469,283	10.6	46.4
일 본	87,534	△ 26.3	7.1	109,599	25.2	7.8	72,132	△ 0.8	7.1
미 국	58,196	△ 53.3	4.7	80,495	38.3	5.7	57,590	6.1	5.7
EU(27)	139,366	△ 29.7	11.3	172,617	23.9	12.2	120,865	4.4	12.0
한 국	48,572	△ 9.4	4.0	58,912	21.3	4.2	45,131	18.1	4.5

< 최근 주요 지역별 시장 동향 >

구 분	시 장 동 향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중국경제는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철강수급은 공급과잉 지속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GDP 성장률은 9.5% 추정되며, 하반기는 이와 유사하거나 소폭 하락할 전망 - 중국 철강수요의 핵심변수인 고정자산투자는 1~5월 9조 254억 위안으로 전년비 25.8% 증가 - 하반기 고정자산투자는 상반기 대비 다소 둔화된 22~23% 증가 전망 - '11년 중국의 철강생산 및 소비는 건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에 따른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강재 명목소비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하회하는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전망 ○ 공급과잉으로 한국과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철강수요가 건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철강생산 설비능력 및 생산 증가율이 수요증가율 초과하여 공급과잉이 지속될 가능성 상존 - '15년 중국의 철강설비능력은 7.6~8억톤 규모로 전망되나 소비는 6~7.1억톤에 그쳐, 최대 1.6억톤 공급과잉 가능성 있음 - 특히 보강, 무강 등 주요 철강사들은 동남해안 지역에 1~2천만톤 규모의 최신예 임해제철소를 건설하여 자동차, 가전용 강판을 생산할 계획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지진 영향으로 철강수요 부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부진으로 더욱 심화된 공급과잉을 탈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수출전략 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가격과 수출가격간 격차가 20% 이상 차이를 보여 향후 철강 통상마찰 우려 ○ 공급과잉 심화로 수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시장에서 한-일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 국 /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둔화 우려가 점증되는 가운데, 신용등급 쇼크로 불확실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경기 및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부진으로 철강수요 부진 심화 우려 ○ EU도 주요국의 재정위기 심화로 경제 및 철강수요 부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 및 철강수요 둔화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

2 최근 생산·내수·수출 동향

□ (생산) '11년은 신증설 설비의 생산성 향상과 내수·수출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3% 증가한 6,946만톤 전망

- * '11.1~8월,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4,781만톤 기록
- * '10년은 내수·수출 증가 및 현대제철 고로 준공 등 생산설비 확대, 가동률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15.9% 증가한 6,594만톤 기록

□ (내수) '11년은 건설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5.0% 증가한 5,503만톤 전망

- * '11.1~8월,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한 3,864만톤 기록
- * '10년은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향상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한 5,239만톤 기록

□ (수출) '11년은 일본, 중국과의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고성장 지속 및 주요업체들의 해외공급 확대에 전년대비 9.2% 증가 전망

- * '11.1~8월, 전년동기대비 17.6% 증가한 1,839만톤 기록
- * '10년은 세계 경기회복 지속, 주요업체의 해외 공급망 확충에 따른 소재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21.1% 증가한 2,488만톤 기록

< '11.1~8월간 주요 철강제품 생산·내수·수출 현황 >

(단위 : 천톤, %)

품목명	수요				공급			
	내수	증감률	수출	증감률	생산	증감률	수입	증감률
철강재계	38,642	9.0	18,391	17.6	47,805	10.1	9,228	20.3
봉형강류	13,191	0.4	2,141	1.6	12,330	1.5	3,002	△2.9
판재류	21,934	16.8	13,080	18.4	29,773	14.0	5,241	41.5
강관	2,245	△6.2	1,528	23.9	3,267	0.5	506	34.7
주단강	1,149	11.6	391	9.5	1,185	17.3	355	△5.6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석유화학

성장동력실 철강화학과(☎2110-5649)

1 최근 업계 환경

- (현황) 잇따른 설비 트러블·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기 침체 우려 확산과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업황 회복 부진**
- (전망) 중국 등 신흥시장의 점진적 수요 회복속에 계절적 성수기 도래 및 대규모 신증설 완료로 **수급 밸런스 유지 전망**

< 2011년 중동·중국지역 가동예정 설비 >

(단위 : 천톤)

구 분		신증설 규모 ('11)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시아	Exxonmobil Singapore	1,000	1,000	-	-	-
	BASF-Yangzi	150	-	-	150	-
	Shenhua Baotou	300	-	-	-	300
	기타	250	-	-	-	250
아시아 계		1,700	1,000	-	150	550
중동	Kayan PC	1,480	1,480	-	-	-
	Equate I	150	-	150	-	-
	중동 계	1,630	1,480	150	150	-
합계		3,330 (100%)	2,480 (74%)	150 (4.5%)	150 (4.5%)	550 (17%)

< 주요국 시장동향 >

구 분	시 장 동 향	주요 업계동향
중 국	· 전년의 대규모 신증설로 인한 대폭적인 생산 증가 · 7월 에틸렌 생산, 전년비 11.4% 증가한 1,300천톤 기록	· Sinopec, Kuwait PC와 합작으로 '14년까지 NCC설비(100만톤/년) 건설
북 미	· 역내 정기보수에 의한 공급 감소 예상으로 제품 가격 상승	· 美 TPC, 채산성 문제로 가동 중단된 Texas소재 부타디엔 설비(270천톤/년) 재가동
일 본	· 대지진이후 빠른 정상화 · 8월 에틸렌 생산, 전년비 1.9% 증가한 612천톤 기록	· Mitsui Chemical, 아세톤법 신규 IPA(600천톤/년)설비 건설키로

< 국가별 생산 능력 (2010년 에틸렌 기준) >

(단위 : 천톤, %)

	세 계	1.미국	2.중국	3.사우디	4.일본	5.한국	6.독일
생산능력 (점 유 율)	133,595 (100.0)	27,044 (20.2)	15,665 (9.0)	13,000 (8.5)	8,023 (6.0)	7,610 (5.5)	5,783 (4.3)

* 자료 : Tecnon

② 최근 생산·내수·수출 동향 ('11년 1~9월, 잠정치)

- (생산) 상반기 정기보수 및 재고 증가에 따른 가동률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
- (내수) 섬유, 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의 꾸준한 수요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
- (수출) 저가 중동제품과의 경쟁, 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

※ '11.1~8월 : 수출 307억불, 수입 115억불, 무역수지 흑자 192억불

< 석유화학 생산·내수·수출 현황 >

(단위 : 천톤,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구 분		'08	'09	'10	'11.1~9
생산	합성수지	10,721	11,797 (10.0)	11,564 (Δ 2.0)	8,745 (Δ 0.6)
	합섬원료	7,919	8,369 (5.7)	8,582 (2.5)	6,415 (Δ 0.3)
	합성고무	749	829 (10.7)	878 (5.9)	755 (14.6)
	합계	19,389	20,995 (8.3)	21,024 (1.4)	15,915 (0.1)
내수	합성수지	4,616	4,707 (2.0)	4,797 (2.0)	3,852 (4.1)
	합섬원료	4,328	4,580 (5.8)	4,860 (6.1)	3,752 (3.3)
	합성고무	327	368 (12.5)	398 (8.2)	341 (17.4)
	합계	9,271	9,655 (4.1)	10,055 (4.1)	7,945 (4.2)
수출	합성수지	6,243	7,224 (15.7)	6,958 (Δ 3.7)	5,106 (Δ 2.6)
	합섬원료	4,127	4,368 (5.8)	4,312 (Δ 1.3)	3,121 (Δ 3.7)
	합성고무	477	524 (9.9)	552 (5.3)	467 (10.9)
	합계	10,847	12,117 (11.7)	11,822 (Δ 2.4)	8,694 (Δ 2.4)

< 수출입 현황 >

(단위 : 억불)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 (A)	석유화학		전체 (A)	석유화학		전체	석유화학
		(B)	(B/A)		(B)	(B/A)		
'00	1,723	97	5.6	1,604	45	2.8	118	49
'05	2,844	208	7.3	2,612	95	3.6	293	113
'08	4,220	321	7.6	4,353	123	2.8	Δ 133	198
'09	3,635	275	7.6	3,231	95	2.9	404	180
'10	4,664	357	7.7	4,253	133	3.1	412	224
'11.1~8	3,688	307	8.3	3,478	115	3.3	210	192

일반기계

성장동력실 기계항공시스템과(☎2110-4821)

1 최근 업계 환경

□ 최근 내수와 수출 환경

- (내수) '11년 들어 현재까지 주력산업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계류 내수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는 기조를 보이고 있음

* 국내설비투자 증가율(%) : ('10.3Q)29.3 → (4Q)13.6 → ('11.1Q)6.6 → (2Q)4.8 → ('11.7^Q)△2.7

* 국내기계수주 증가율(%) : ('10.3Q)△0.2 → (4Q)11.3 → ('11.1Q)19.5 → (2Q)9.0 → ('11.7^Q)△2.4

- (수출) '11.1~9월 현재 중국, 러시아 등의 인프라투자 호조로 굴삭기 등 건설광산기계, 설비류 기계 등이 호조세 지속

* 유럽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유럽의 기계수요 지속, 아세안과 중동지역 수요 유지 등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9월에도 호조 지속

* 품목별 증가율(%) : (건설광산기계)52.6, (원동기및펌프)53.0, (공작기계)36.3

* 지역별 증가율(%) : (중국)21.4, (아세안)17.2, (미국)30.9, (일본)24.6, (EU)43.1

- (전망) '11년 일반기계 생산·수출은 미국신용등급 하락, 유럽재정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생산 102.5조원(13.6%), 수출 437억불(21.3%) 전망

- (기업재무상황) '11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둔화로 인해 기업 매출과 순이익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악화 전망

< 주요국 시장 동향 >

구 분	시 장 동 향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서부대개발을 위한 대규모 세제지원 등 발표 (서부지역 내자 장려산업,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등에 속한 기업의 설비수입 관세 면제 등) ○ 7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전월 50.9보다 낮은 50.7을 기록(중국 물류구매연합회, 8월1일),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8월 중 과거 3년이래 최고치인 6.4% 기록 ○ 화학품·의약·우주항공·통신설비·컴퓨터·의료설비 등의 중국 첨단기술은 지난 5년간 81.3%로 급성장, 올해부터 추진되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11~'15년) 동안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
인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 금형 수입국으로 부상 ○ 인도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2009년 말 이래 가장 둔화된 수치인 53.6 기록, 인도의 지난 6월 도매물가지수(WPI)는 전년 동기대비 9.44% 상승하면서 7개월 동안 9.0% 이상의 상승률 지속 ○ 인도의 핵심시장인 미국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수요가 급감하여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
E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는 올해 재정 적자 감축 목표치 달성에 실패(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은 최소 8.6%로 금년 목표치에 비해 1%p 상회) ○ EU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과 소비수요 위축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 한편 유럽연합은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 6개국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지원 방안을 추진 중

< 최근 주요업체별 당기순이익 >

(단위 : 억원)

	'09	'10.1Q	'10.2Q	'10.3Q	'10.4Q	'11.1Q	'11.2Q
두산인프라코어	△ 3,111	256	△ 330	1076	576	1,486	1,708
한미반도체	70	31	241	55	20	30	52
화천기공	61	22	34	24	137	54	64
두산중공업	△ 3,283	65	781	241	147	444	536

② 생산·내수·수출 동향

- **(‘10년 생산동향)** ‘09년 경기침체로 생산이 감소했으나 ‘10년에는 수출과 내수 회복에 힘입어 전년비 **24.2%** 증가한 **90.3조원**(추정) 기록
- **(‘11년 생산전망)** 수요산업인 자동차, 전자산업 등의 기계류 내수가 지속되고 중국,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도 호조를 유지하여 일반기계 생산은 13.6% 증가한 **102.5조원**으로 전망
- **(내수)** ‘10년 중 공공부문 기계수주 증가와 주요 수요산업의 설비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내수는 23.8% 증가한 **86조원** 추정
- **(수출입)** ‘10년 수출은 34.5% 증가, 수입은 18.7% 증가, 무역수지는 75억불 흑자를 시현 → ‘11년 수출은 **21.2%** 증가한 **437억불**, 수입은 **10.6%** 증가한 **316억불**, 무역수지 흑자는 **121억불** 전망
 - 미국신용등급 하락으로 대미수출 둔화가 우려되지만, 중국, 인도 등의 인프라투자가 지속되면서 해외수요가 유지될 전망

< 최근 일반기계 생산·수출실적 >

	'07		'08		'09		'10		'11.1~9 ^p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생산(십억원)	67,899	(10.5)	79,025	(16.4)	72,709	(△ 8.0)	90,283	(24.2)	76,595	(14.3)
수출(백만불)	30,764	(28.9)	7,298	(21.2)	26,850	(△ 28.0)	36,103	(34.5)	32,553	(25.8)
수입(백만불)	23,906	(18.0)	25,984	(8.7)	24,095	(△ 7.3)	28,591	(18.7)	23,527	(11.9)
수지(백만불)	6,858	(3,259)	11,315	(4,457)	2,755	(△ 8,560)	7,513	(4,758)	9,026	(4,174)

주] 1. 생산 2008년은 통계청, 2009년과 2010년 수치는 KOAMI 추정치, 수출입은 MTI 기준 실적치

2.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액 기준

< 4개년 일반기계 생산·내수·수출 동향 및 전망 >

	'07		'08		'09		'10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생산(조원)	68	(10.5)	79	(16.4)	73	(△ 8.0)	90	(24.2)
내수(조원)	65	(8.1)	74	(12.7)	70	(△ 5.5)	86	(23.8)
수출(억불)	308	(28.9)	373	(21.2)	268	(△ 28.0)	361	(34.5)
수입(억불)	239	(18.0)	260	(8.7)	241	(△ 7.3)	286	(18.7)
무역수지(억불)	69	(33)	113	(45)	28	(△ 86)	75	(48)

자료] 통계청, 무역협회, 단 생산의 2009년과 2010년 금액은 KOAMI 추정치

주] ※ 내수=생산+수출-수입, 수출입은 MTI 기준, 무역수지 증감률 항목은 증감률이 아니라 증감액

< 일반기계 지역별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08		'09		'10		'11.1~9 ^p	
대세계	37,298	(21.2)	26,850	(△ 28.0)	36,103	(34.5)	32,553	(25.8)
중국	10,652	(22.5)	6,959	(△ 34.7)	10,784	(55.0)	9,200	(20.0)
미국	4,185	(9.3)	3,380	(△ 19.2)	4,239	(25.4)	4,008	(24.8)
일본	2,624	(24.7)	1,912	(△ 27.1)	2,272	(18.8)	1,998	(21.3)
E U	5,771	(9.5)	2,838	(△ 50.8)	3,586	(26.3)	3,589	(39.8)
중동	3,657	(40.1)	3,301	(△ 9.7)	3,219	(△ 2.5)	3,175	(40.8)
아세안	2,941	(28.9)	2,703	(△ 8.1)	3,494	(29.2)	2,882	(14.7)

주] MTI 기준,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섬유

성장동력실 미래생활섬유과(☎2110-5657)

1 최근 업계 환경

- (시장수요) 선진국의 재정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생산 및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둔화
- (시장점유율) '00년 세계 4위(5.0%)에서 '09년 세계 7위(2.0%)로 하락
* WTO통계(시장점유율) : 5.0%('00) → 4.1%('02) → 2.3%('06) → 2.1%('07) → 2.0%('09)
- (기업재무상황) '11년 상반기 급등세를 보였던 원면 등 섬유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면서 일부 면방, 화섬 업계의 채산성 악화

< 주요국 시장 동향 >

구 분	시 장 동 향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와 의회가 7월 31일 '증세(增稅) 없는 재정지출 감축안'에 합의하였으나, S&P는 8월 5일을 기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시켰음,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증세 없는 재정지출 감축안'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시종금리 상승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더불딪 우려가 커지고 있음. ○ 7월 소비자신뢰 둔화에 기인하여 고용동향지수(ETI) 전월(100.9) 대비 하락한 100.6을 기록함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1.2조불의 美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게 긴급한 주의를 요하는 신호로 작용함. 불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일대비 0.07% 하락한 1불당 6.4360위안으로 마감함 ○ 7월 26일 중국방직공업협회(中國紡織工業協會) 통계센터는 올 하반기에도 중국 섬유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속도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수출 감소세가 지속돼 내수시장이 섬유산업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며 원가 상승압력과 자금환경 압박이 중국 섬유산업이 당면한 주된 문제라고 지적

< 세계 섬유 시장점유율 추이 >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시장점유율(%)	5.0	4.4	4.1	3.5	3.1	2.7	2.3	2.1	2.0	2.0
세계위상	4위	4위	4위	5위	5위	6위	6위	6위	6위	7위

*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

< 섬유 업종별 가동률 지수 (2005=100)>

구 분	'10	'11						
		1	2	3	4	5	6	7
섬유산업	105.0	103.9	91.9	112.4	109.7	107.3	106.9	104.9
섬유제품	106.0	106.1	92.7	114.4	113.3	110.4	109.9	106.4
의복	89.9	70.1	66.2	90.6	76.7	71.4	83.6	78.6
화섬	1102	116.2	106.1	116.4	112.9	115.3	106.5	115.2

* 자료 : 통계청, 광·제조업 동향조사

2 최근 생산·내수·수출 동향

- (생산)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소비재시장(의류제품)의 위축이 우려되면서 생산량 감소 추세
- (내수) 국내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여 상반기 대비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세 둔화 우려
 - *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 '05=100) : ('11.1)108→('11.2)105→('11.5)104→('11.7)102
- (수출) 선진국의 의류 소비심리 위축과 동남아 봉제수출국의 원자재 수요감소 등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 상반기의 높은 상승률에 힘입어 연간 수출은 158억불(전년비 13.7%) 내외 달성이 가능할 전망

< 섬유산업 생산유관 지수 (2005 = 100 기준, 전년동기대비) >

구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		%		%		%		%		%
생 산	117.6	9.0	87.3	△ 1.5	112.0	4.4	110.6	0.5	104.4	△ 1.5	101.1	△ 2.5	99.9	△ 2.2
출 하	117.9	10.2	88.7	△ 2.0	112.1	4.1	108.7	△ 2.4	101.5	△ 2.9	99.3	△ 3.3	99.1	△ 3.2
재 고	93.0	△ 3.1	88.4	△ 4.8	87.6	△ 6.6	90.0	△ 2.3	94.3	1.7	96.2	4.1	99.4	3.7

* 자료 : 광·제조업 생산지수 중 섬유, 의류 및 화섬으로 구성

< 국내 의복 소매판매 동향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0	'11						
		1	2	3	4	5	6	7
소매 판매액	38,123	3,458	2,837	3,182	3,412	3,560	3,211	2,964
증가율	9.1	11.5	1.4	4.6	8.6	6.5	6.4	6.1

* 자료 :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

< 섬유 관련 원자재지수 동향 >

(단위 : 지수, 전년동기대비)

구 분	'11.3		'11.4		'11.5		'11.6		'11.7		'11.8	
		%		%		%		%		%		%
원면(미국)	2.25	136.8	1.97	107.4	1.85	90.7	1.6	60.8	1.6	65.0	1.31	28.4
에틸렌글리콜	1,225.0	32.7	1,119.0	21.2	1,110.0	41.4	1,230.0	71.3	1,210	70.8	1,245.0	61.0
카프로락탐	3,536	43.3	3,518	33.2	3,327	24.8	3,206	28.5	3,349	44.2	3,475	34.5

* 자료 : 한국수입업협회

< 월별 섬유 수출입 증감률 >

(단위 : 백만불, %)

구 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수출	금액	1,192	1,047	1,434	1,486	1,378	1,432	1,415	1,232
	전년비	29.2	18.9	27.2	15.9	19.3	18.2	8.0	17.2
수입	금액	1,047	745	1,126	1,097	973	876	1,026	1,240
	전년비	52.6	14.8	51.3	34.0	34.1	17.7	26.9	34.5

* 자료 : KOTIS

□ 주요업계(기업) 동향

업계	최근 동향
방직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원면가격은 브라질의 생산증가,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라 수요감소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에도 미국 원면생산지역의 날씨 악화 지속으로 원면가격은 보험세 유지
화섬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긴축정책과 유럽국가의 재정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불안으로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대만, 중국산 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를 개시기로 결정함
직물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비수기와 대내외적인 경기 둔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음. 이는 의류제품의 생산 기지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요, 일본의 부직포 등 수요,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 등이 긍정적인 작용을 함
염색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장마기간으로 인한 소비위축, 소비심리 위축, 해외오더 감소 등으로 업계 가동률은 현재 전년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실정 ○ 원자재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최근 인상률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업체 채산성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의류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장마 날씨 지속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하락하였음 ○ 장마, 폭염, 휴가와 비수기가 맞물려 의류 판매 매출에는 영향이 큼

< 참고 : 미국 주요 의류소매매출 현황 >

업체명	주요내용
TJX (美, 의류전문소매회사)	○ '11.8월 매출은 1.0% 증가
Limited(美, 의류전문소매회사)	○ '11.8월 매출은 11% 증가
Macy's(美, 중저가백화점)	○ '11.8월 매출은 5.0% 증가

부품소재

성장동력실 부품소재총괄과(☎2110-5614)

1 최근 업계 환경

- (시장수요)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세
 - 특히, 자동차 엔진, 자동차차체용부품 등의 수송기계부품(39.3%)과 화학원소 등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30.2%)중심으로 수출 증가
- (제품단가 추이) 국제원자재 가격지수(CRB)는 9월말 급락(341(초)→298(말))
 - 철강가격은 원재료가격 강세를 지속하며, 자동차강판, 열연 등의 철강재 가격 상승
 - D램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재고 확대로 단가 하락 지속
- (기업재무상황) '11. 2/4분기 기업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 하락과, 당기순이익 상승 등으로 11년도 1/4분기에 비해 호전된 양상을 보임
 - 2분기 주요 부품소재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1년도 1/4분기에 비해 기업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호전양상을 보임

< 업종별 주요 동향 >

구 분	내 용
철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원자재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설비능력 증가로 수출여력이 확대 * 월평균 수출물량(만톤) : ('10.상) 204 → (하) 238→('11.상) 243 * 월평균 수출단가 (\$/톤) : ('10.상) 1,065 → (하) 1,109 → ('11.상) 1,209
석 유 화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납사가격(\$/MT): ('10.9월) 685 → ('11.9월) 975 (42.3% ↑) ○ 역내 정기보수 규모·건수 증가로 수출확대 여력 증가 * ('10.9월) 3건, 233만톤 → ('11.9월) 5건, 408만톤
L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수요 부진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수출 감소세 * 선진국(美, EU) LCD TV 시장(천대) : ('10.상) 20,061 → ('11.상) 17,038(15% ↓) * 32" LCD TV용 패널 가격(\$/개) : ('10.9월) 175 → ('11.9월) 135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요 위축, D램 단가 하락, 재고 조정 등으로 수출 규모 감소 * D램 단가(1G) : ('10.9월) 2.17\$ → ('11.9월) 0.63\$<스팟>, ('10.9월) 2.20\$ → ('11.9월) 0.52\$<장기>

② 최근 부품소재 생산·내수·수출 동향

- (생산) '11년 1~7월 생산은 전년대비 11.1% 증가한 341조원 기록
 - 대외적인 경제위기(유로존 위기 확산, 美 경기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어 두 자리 수 증가세 유지
- (내수) '11년 1~7월 내수는 전년대비 12.0% 증가한 287조원 기록
 - 월별 추이로는 하반기 들어 업종별로 증가세가 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기계부품, 비금속광물 등은 위축세가 두드러짐
- (수출) '11년 1~9월 부품·소재 수출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및 수송 기계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한 1,921억불 기록
 - 소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0.4% 증가한 696억불, 부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한 1,225억불 기록

< 부품소재 생산·내수·수출액 및 전년대비증감률 >

구분		'07		'08		'09		'10		'11.1~7	
생산 (백억원)	부품소재	41,275	9.8	48,002	16.3	47,111	-1.9	54,069	14.8	34,093	11.1
	소 재	17,144	10.1	21,456	25.2	19,836	-7.6	23,983	20.9	15,373	15.0
	부 품	24,131	9.6	26,546	10.0	27,275	2.7	30,086	10.3	18,720	8.0
내수 (백억원)	부품소재	37,896	10.6	44,162	16.5	40,570	-8.1	45,067	11.1	28,695	12.0
	소 재	16,869	12.3	21,396	26.8	18,693	-12.6	22,584	20.8	14,195	12.1
	부 품	21,027	9.2	22,766	8.3	21,876	-3.9	22,482	2.8	14,501	11.9
수출* (억불)	부품소재	1,682	13.1	1,835	9.1	1,710	-6.8	2,290	34.0	1,921	14.6
	소 재	568	11.9	652	14.8	563	-13.7	739	31.2	696	30.4
	부 품	1,114	13.7	1,183	6.2	1,147	-3.1	1,552	35.3	1,225	7.1

* 수출의 경우 1~9월 실적

< 부품소재 생산활동 추이 >

(단위 : %)

구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생산 증감률	10.6	18.5	14.5	9.5	17.0	11.8	15.5	10.7	7.1	9.0	7.1
출하 증감률	10.7	18.2	14.2	9.1	14.9	14.6	14.7	8.8	7.5	8.0	7.4
재고 증감률	9.5	7.9	10.5	11.9	13.7	9.6	14.2	21.1	14.7	19.7	18.4

3 부품소재 대일 무역 현황

- 세계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대일 부품소재 수입이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규모 확대가 예상되었으나, '11년초 일본 대지진(3.11) 이후 수출 증가를 보이며,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
 - '11년 1~9월 누적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171억불
- 업종별 무역적자는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은 무역적자 증가한 반면 「일반기계부품」, 「제1차금속」등은 적자 감소
 - 정밀기기부품 (△12.6억불→△15.6억불, 3.0억불↑) 속도계 및 적산계기, 광섬유 및 광학요소 등의 수입 증가로 대일 적자폭 증가
 - 전자부품 (△16.9억불→△19.2억불, 2.3억불↑) 액정표시장치, 기타 직접회로 반도체는 수입이 감소했으나 메모리 반도체, 인쇄회로판의 수입이 증가하며 적자 증가
 - 일반기계부품 (△21.4억불→△19.9억불, 1.5억불↓) 건설기계부품,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금형 등이 수출 증가를 보인 반면, 기체 펌프 및 압축기 등의 수입 감소로 대일 적자폭 소폭 감소
 - 제1차 금속 (△35.3억불→△20.7억불, 14.6억불↓)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적자 감소

< 대일 무역수지 추이(전년 동기대비) >

(단위 : 억불, %)

구분		'05	'06	'07	'08	'09	'10	'10.1~9	'11.1~9
전산업	적자 (증감률)	△244	△254	△299	△327	△277	△362	△274	△226
		△0.3	4.2	17.7	9.5	△15.4	31.0	40.5	△17.5
부품소재	적자 (증감률)	△161	△156	△187	△209	△201	△243	△183	△171
		1.3	△3.2	20.0	12.1	△4.1	20.8	29.5	△6.5

< 품목별 대일 무역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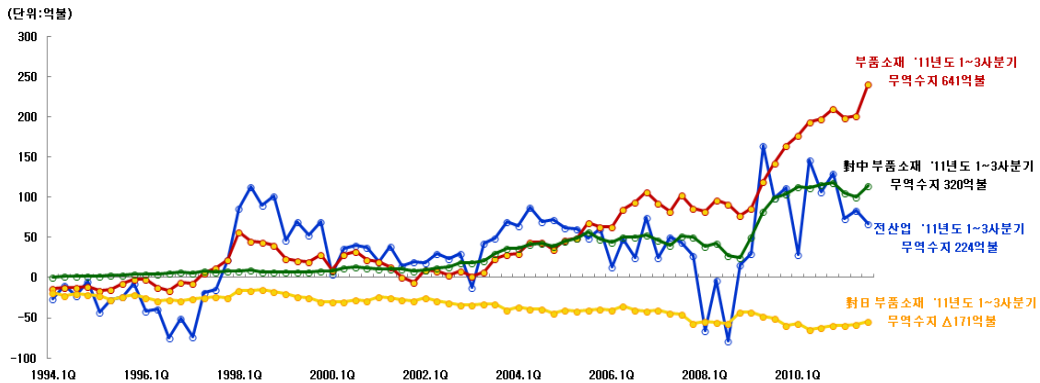
(단위 : 억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10.1~9	'11.1~9	'10.1~9	'11.1~9	'10.1~9	'11.1~9	'10.1~9	'11.1~9	'10.1~9	'11.1~9	증감
소재	제1차금속	20.3	63.9	36.5	79.3	55.7	24.1	57.2	2.7	△35.3	△20.7	14.6
	화학물 및 화학	15.5	42.8	22.9	47.3	48.6	29.2	55.9	14.8	△33.1	△33.0	0.1
	고무 및 플라스틱	4.0	30.1	5.3	33.0	28.1	46.5	27.8	△1.1	△24.1	△22.5	1.6
	기타	2.6	24.4	3.5	35.2	16.5	40.4	17.7	7.6	△13.9	△14.2	△0.3
부품	전자부품	28.8	34.7	26.6	△7.5	45.7	21.8	45.8	0.3	△16.9	△19.2	△2.3
	일반기계부품	11.9	7.8	17.0	43.2	33.2	46.2	36.8	10.9	△21.4	△19.9	1.5
	전기기계부품	4.2	16.0	5.9	39.5	19.7	26.7	20.8	5.6	△15.5	△15.0	0.6
	정밀기기부품	2.4	27.6	1.9	△21.4	15.0	23.6	17.5	16.8	△12.6	△15.6	△3.0
	수송기계부품	5.5	97.3	5.5	△0.3	13.9	73.6	14.6	5.1	△8.4	△9.1	△0.7
	기타	3.7	17.7	4.1	9.3	5.4	33.0	5.9	11.2	△1.6	△1.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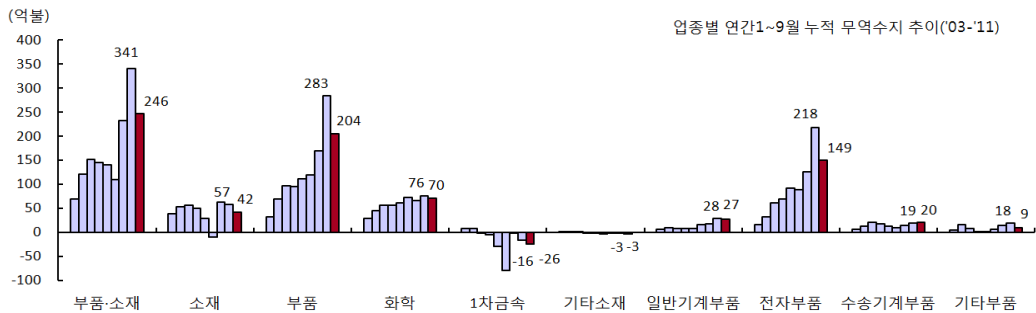
4 부품소재 무역의 최근 특징

① 부품소재 산업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요인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성장 안정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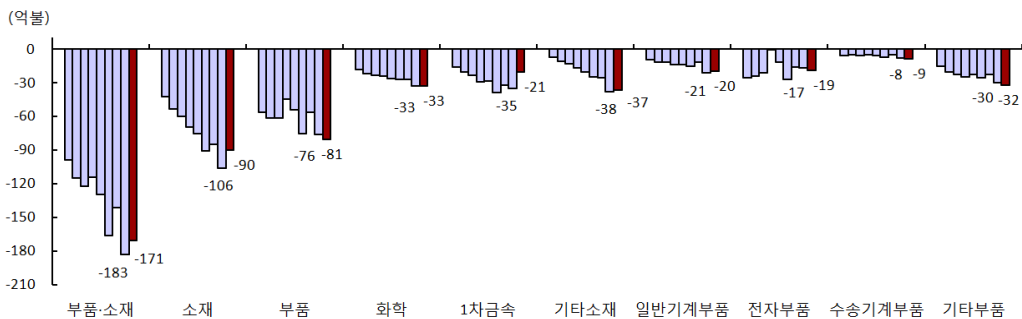
○ 유럽발 신용리스크 및 일본 대지진에도 큰 흔들림 없이 흑자 기조 유지



② 대중 흑자(246억불)가 대일 적자(△171억불)를 상쇄하는 구조 지속



③ 대일무역적자는 전년과 비슷한 171억불로, 소재 적자액이 다소 개선



다. IT 산업 동향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정책과(☎2110-4796)

세계 IT시장

- (세계 IT시장) '11년 HW, SW시장의 동반 성장으로 7%대 성장이 예상되며, 통신서비스 시장을 제외하면 8.4%의 높은 성장세 예상

- *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 비용절감 차원에서 축소되었던 IT서비스 투자가 점차 회복세이고,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폭 적인 증가가 예상
- * 정보기기는 태블릿PC 시장이 11년 338억불에 이르고, 14년까지 75.3%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클라우드 시장 성장으로 서버와 스토리지도 높은 성장세 예상

< 부문별 2011년 세계 IT시장 전망 >

(단위 : 억불, %)

구 분	'11.6 전망		'11.3 전망		'10.12 전망		전망치 비교 (A)-(B)
	시장규모	성장률(A)	시장규모	성장률(B)	시장규모	성장률	
IT전체	36,720	7.1	35,982	5.6	3,576	5.1	+1.5
IT기기	8,650	9.8	8,617	9.4	857	8.4	+0.4
정보기기	4,189	11.7	4,089	9.5	391	7.5	+2.2
통신기기	4,461	8.1	4,528	9.4	465	9.1	-1.2
(참고) 반도체	3,147	5.1	3,192	6.2	3,140	4.6	-1.1
SW	11,133	7.3	10,797	5.6	1,072	5.3	+1.7
패키지SW	2,676	9.5	2,554	7.6	254	7.5	+1.9
IT서비스	8,457	6.6	8,244	5.0	818	4.6	+1.6
통신서비스	16,937	5.7	16,567	3.8	1,647	3.4	+1.9

* 자료 : Gartner 2011.6, 2011. 3, 2010. 12

- (주력 IT품목 세계시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력 IT 품목의 세계 시장 성장세는 전년도에 비해 둔화 예상

- * (반도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성장에도 불구하고 PC 시장 성장 둔화와 세계 공급 과잉으로 4.6%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PC시장 비중이 높은 메모리는 △3.6% 감소 예상
- * (디스플레이 패널) 상반기 글로벌 재고 해소 지연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6.9%) 되나, 최근 3D 등 고가 패널 수요 증가하고 있어 연간 4.0% 성장이 예상
- * (휴대폰) 피쳐폰 시장 축소로 세계 휴대폰 시장 성장률은 '10년에 비해 2.9%p 하락한 10.9% 성장할 전망이나, 최근 국내업체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시장은 세계 휴대폰 시장의 두자릿수 성장을 견인(피쳐폰: △1.6%, 스마트폰: 45.3%, 휴대폰 전체: 10.9%)

국내 IT 산업 동향

- (생산) 최근 IT생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기 분야의 생산 정체를 보인 반면, SW생산은 공공부문 SW 투자확대, 보안 SW 매출 증가로 성장세 지속
- (수출) 유럽, 북미시장의 경기침체와 PC, TV 등 전방시장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상반기 6.3% 성장에 머뭇
- (고용) 기기 및 SW분야 고용증가로 '10년 처음으로 150만명 기록

< IT 생산 >

(단위 : 조원, %)

구 분	'06	'07	'08	'09	'10p	'11.상 ^p
IT 생산액	268.9	281.9	310.7	321.9	385.4	196.7
(증감률)	(6.2)	(4.9)	(10.2)	(3.6)	(19.7)	(4.8)
정보통신기기	195.9	204.6	226.5	235.4	295.7	151.2
(증감률)	(6.0)	(4.4)	(10.7)	(3.9)	(25.6)	(4.2)
SW	21.1	22.1	26.2	26.0	26.3	13.1
(증감률)	(9.8)	(5.1)	(18.2)	(△ 0.6)	(1.3)	(12.0)
정보통신서비스	51.9	55.2	58.0	60.5	63.4	32.5
(증감률)	(5.7)	(6.3)	(5.1)	(4.3)	(4.8)	(5.3)

* 자료 : KEA, KAIT

< IT 수출 >

(단위 : 억불, %)

구 분	'06	'07	'08	'09	'10	'11.상 ^p
IT 수출	1,191.1	1,301.0	1,311.6	1,209.5	1,539.4	773.7
(증감률)	(10.0)	(9.2)	(0.8)	(△ 7.8)	(27.3)	(6.3)
전산업비중	(36.6)	(35.0)	(31.1)	(33.3)	(33.0)	(28.1)
IT 수입	646.8	697.3	735.2	620.2	756.2	405.8
(증감률)	(9.1)	(7.8)	(5.4)	(△ 15.6)	(21.9)	(15.0)
전산업비중	(20.9)	(19.5)	(16.9)	(19.2)	(17.8)	(15.7)
IT 수지	544.3	603.7	576.4	589.3	783.2	368.0

* 자료 : NIPA

< IT 고용 >

(단위 : 천명)

구 분	'05	'06	'07	'08	'09	'10 ^p
IT인력	1,399	1,423	1,451	1,485	1,476	1,520
IT상시종사자	691	708	708	753	932	977
정보통신서비스	120	128	128	136	139	143
정보통신기기	460	472	456	478	471	496
SW	111	118	124	139	152	166
IT관련산업	167	171	174	174	170	172
타산업전산직	541	544	569	558	544	543

* 자료 : KEA, KAIT

반도체

성장동력실 반도체디스플레이과(☎2110-5682)

1 최근 업계 환경

□ (시장규모) '10년 세계 반도체시장은 3,040.1억불,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673.4억불을 기록

○ '11년 시장은 글로벌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연초 전년대비 4.6% 성장(반도체), △3.6% 감소(메모리) 전망보다 축소 불가피

* 세계반도체시장(B\$, iSuppli) : ('07)275 → ('08)260 → ('09)232 → ('10)304

* 세계메모리시장(B\$, iSuppli) : ('07)58 → ('08)46 → ('09)44 → ('10)67

□ (가격) 유럽, 북미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PC 수요부진, 일본지진 이후 재고축적 잔여 물량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세

* D램(1G DDR3, \$) : ('11.1)1.07 → (2)1.15 → (3)1.09 → (4)1.10 → (5)1.02 → (6)0.97 → (7)0.83

* 낸드(16G MLC, \$) : ('11.1)4.33 → (2)4.21 → (3)4.20 → (4)3.85 → (5)3.32 → (6)2.95 → (7)2.67

□ (점유율) '10년 반도체 시장점유율 13.5%로 세계 3위('10년, 410억불), 메모리 시장점유율 49.9%로 세계 1위('10년, 336억불)

* 반도체 세계시장점유율 : ① 미국 48.2%, ② 일본 20.8%, ③ 한국 13.5%, ④ 유럽 9.2%

* 메모리 세계시장점유율 : ① 한국 49.9%, ② 일본 20.9%, ③ 미국 19.1%, ④ 대만 9.1%

□ (투자) 세계 메모리 설비투자는 184억불로 전년대비 0.4% 증가('10년 180억불) 전망, 절대 규모에 있어서 선두 기업이 투자를 주도

* '11년 메모리 설비투자 규모(억불) : 삼성전자(69), 도시바(36), 하이닉스(29), 마이크론(14)

< 국가별 반도체 생산비중 >

(단위 : 백만불, %)

구분	'09	'10					'11	
		1Q	2Q	3Q	4Q	합계	1Q	2Q
미 국	110,864	34,051	36,526	38,032	38,130	146,707	38,860	39,370
유 럽	23,645	6,335	6,807	7,354	7,521	28,017	6,626	6,921
일 본	50,900	15,056	15,315	16,898	15,610	63,250	15,064	13,430
한 국	25,946 (11.3)	8,779	10,341	11,244	9,914	41,029 (13.5)	9,778	10,085
중 국	2,092	424	486	568	639	3,261	581	645
대 만	15,491	4,131	4,221	4,087	3,485	20,517	3,505	3,571

* 자료 : iSuppli 2011

< 국내 소자별 생산액 >

(단위 : 백만불, %)

구분	'09	'10					'11	
		1Q	2Q	3Q	4Q	합계	1Q	2Q
메모리	20,330 (46.1)	7,478	8,721	9,394	7,957	33,598 (49.9)	7,831	8,008
D램	12,556 (55.4)	5,128	6,142	6,594	5,543	23,434 (59.0)	5,172	5,241
낸드	6,866 (50.5)	2,076	2,314	2,547	2,219	9,147 (48.5)	2,475	2,604
시스템 반도체	4,202 (2.8)	1,008	1,274	1,437	1,582	5,372 (3.8)	1,563	1,662
MCU	816 (6.8)	240	308	325	373	1,287 (7.9)	305	203
DDI	1,426 (25.5)	354	424	421	409	1,759 (26.9)	426	434

* 자료 : iSuppli 2011

< 주요 국가별 설비투자 전망 >

(단위 : 백만불)

구분	'09	'10	'11	'12	'13	'14
미국	5,689	9,832	10,560	10,837	12,403	12,467
유럽	2,178	2,361	3,432	3,531	4,210	4,253
일본	4,148	7,476	7,329	7,839	8,603	8,230
대만	5,606	14,979	13,300	14,505	15,673	14,886
한국	4,779	11,932	12,472	11,396	12,626	10,414
중국	1,873	4,145	4,279	4,942	5,878	5,119
소계	25,876	54,051	52,017	58,327	65,565	60,713

* 자료 : Gartner 2010

2 내수·수출 등 기타 동향

□ (내수) '10년 반도체 내수시장은 217.3억불로 세계 7.1% 수준임

* 국가별 시장('10) : (미국)16.3%, (중국)31.1%, (EU)12.0%, (일본)11.3%

□ (수출) '10년은 '09년(310.4억불)보다 63.4% 증가한 507.1억불로 회복

* 분기별 수출액(억불) : ('10.1Q) 107.0 → (2Q) 129.4 → (3Q) 142.0 → (4Q) 129.4

□ (수입) '10년 수입은 '09년(266.2억불)보다 17.4% 증가한 312.6억불

* 분기별 수입액(억불) : ('10.1Q) 69.5 → (2Q) 76.4 → (3Q) 82.0 → (4Q) 84.7

< 국가별 반도체 시장 >

(단위 : 백만불)

지 역	'06	'07	'08	'09	'10(비중)
세 계	264,379	274,498	260,237	229,917	304,006
미 국	49,567	48,708	45,245	37,194	49,553(16.3%)
E U	37,869	37,420	34,990	30,097	36,481(12.0%)
일 본	34,106	35,088	32,290	26,832	34,353(11.3%)
중 국	67,059	74,379	69,889	68,400	94,546(31.1%)
인 도	1,435	2,323	2,816	2,689	3,634(1.2%)
한 국	18,485	19,314	18,916	17,072	21,725(7.1%)
비 고	55,858	57,266	56,091	47,633	62,639(20.6%)

* 자료 : iSuppli 2010

< 반도체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구 분	'09	'10					'11	
		1/4	2/4	3/4	4/4	연간	1/4	2/4
금액	31,042	10,692	12,942	14,132	12,941	50,707	12,215	12,531
증감률	△ 5.3	120.3	84.1	60.7	24.7	63.4	14.2	△ 3.2

* 자료 : 무역협회, NIPA

디스플레이

성장동력실 반도체디스플레이과(☎2110-5682)

1 최근 업계 환경

- (시장수요) 선진시장 LCD TV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신용등급 하락 악재로 수요 불확실성이 증가
- (시장점유율) 전반적인 감산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 경쟁 우위에 있는 국내 업체들은 '11년 2분기 대형 LCD 시장의 53.7% 점유
- (가격추이) 수요 부진으로 인한 세트 업체들의 보수적 재고 관리로 8월 TV용 패널가격은 크게 하락

< 대형 TFT-LCD 국가별 점유율 >

(생산액 기준, 단위 : %)

구분	'09					'10					'11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1Q	2Q
한국	54.7	52.2	52	51.9	52.4	50.0	48.3	50.8	51.8	50.2	51.6	53.7
대만	34.2	37.0	37.4	35.9	36.3	36.5	36.7	34.0	31.9	34.8	34.6	34.0
일본	9.3	8.0	7.6	9.5	8.6	10.7	11.4	12.4	13.2	11.9	11.3	8.9
중국	1.8	2.8	3.0	2.7	2.7	2.8	3.8	2.8	3.0	3.1	2.5	3.4

* 자료 : DisplaySearch 2011

<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추이 >

(단위 : 불/개)

구 분			'11														
			1.上	1.下	2.下	3.上	3.下	4.上	4.下	5.上	5.下	6.上	6.下	7.上	7.下	8.上	8.下
TFT LCD	노트북	15.6인치	43	43	43	43	43	43	43	43	43	44	44	44	44	44	44
	모니터	18.5인치	54	53	54	55	55	55	56	56	56	56	56	56	56	56	55
		21.5인치	74	73	74	74	74	74	75	75	76	76	76	76	76	76	75
	TV	32인치	151	149	148	147	147	147	147	149	151	151	151	151	151	147	138
		42인치	245	240	237	235	234	232	232	235	237	237	237	237	237	231	219

< 주요 디스플레이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률 >

(단위 : 조원, %)

구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臺AUO		臺CMI	
	매출	영업이익(율)	매출	영업이익(율)	매출	영업이익(율)	매출	영업이익(율)
'10	2Q	7.8 0.88 (11.3)	6.5 0.73 (11.2)	4.8 0.49 (10.3)	5.4 0.43 (7.9)			
	3Q	8.1 0.52 (6.4)	6.7 0.18 (2.7)	5.0 0.09 (0.2)	5.5 Δ0.15 (Δ2.8)			
	4Q	7.2 0.10 (1.4)	6.5 Δ0.39 (Δ6.0)	4.2 Δ0.45 (Δ10.8)	5.3 Δ0.73 (Δ13.6)			
		29.9 1.99 (6.7)	25.5 1.31 (5.1)	18.7 0.42 (2.2)	19.2 Δ0.24 (Δ1.3)			
'11	1Q	6.5 Δ0.23 (Δ3.5)	5.4 Δ0.24 (Δ4.5)	3.9 Δ0.59 (Δ15.3)	5.2 Δ5.6 (Δ10.9)			
	2Q	7.1 Δ0.21 (Δ3.0)	6.5 Δ0.05 (Δ0.8)	4.0 Δ0.37 (Δ9.3)	N/A N/A N/A			

* 자료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② 최근 생산·내수·수출 동향

- (생산) '11.8월에는 통상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심리가 반영돼 전월比 12.5% 증가한 32억불 생산 예상
- (수출) 3분기는 신학기 수요, 북미지역의 추수감사절 특수 등 전통적 수요 증가 시기이나, 미국발 악재 등 외부요인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전망

< 국내업체 평판디스플레이 월별 생산 동향 >

(단위 : 백만불)

구분	'10								'11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대형 LCD	2,793	2,615	2,631	2,749	2,637	2,693	2,474	2,118	2,058	2,342	2,415	2,564	2,433	2,297	2,487	
중소 LCD	238	254	264	272	253	257	256	242	208	223	233	233	219	205	227	
PDP	198	186	220	203	193	196	138	163	143	182	171	172	161	151	174	
OLED	60	67	72	73	99	109	112	108	98	105	109	124	128	221	347	
합계	3,288	3,123	3,186	3,297	3,182	3,254	2,980	2,646	2,518	2,868	2,942	3,107	2,955	2,885	3,24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실적 및 전망 >

(단위 : 백만불, %)

구분	'09 (실적)	'10(실적)					'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p	4/4p
금액	31,429	7,846	8,771	9,403	8,510	34,530	7,801	8,279	8,345	8,506
증감률	△ 15.4	48.5	20.1	1.4	△ 11.1	9.9	△ 0.6	△ 5.6	△ 11.2	△ 0.1

* 자료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휴대폰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과(☎2110-4816)

1 최근 업계 환경

- (시장수요) 스마트폰 중심의 수요 증가로 '09년 4분기 이후 세계 휴대폰 시장은 성장 국면 진입

* 세계 휴대폰 시장 성장률(%) : ('09.3Q) △2→(4Q) 17→('10.1Q) 20→('11.1Q) 19

- (시장점유율) 갤럭시S2, 옵티머스 등 전략 모델의 성공으로 '11년 2분기 스마트폰, 휴대폰(출하량기준) 세계 1위 등극

* 중국의 세계시장점유율도 최근 저가폰 중심으로 크게 확대, '11.2분기 12.9%로 3위 등극

- (가격) 스마트폰 시장 성장으로 휴대폰 단가는 점차 회복세

< 스마트폰 국가별 점유율 (출하량 기준) >

(단위 : %)

구분	'09					'10					'11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1Q	2Q
한국	4.5	3.8	5.2	2.9	4.2	5.4	6.4	10.6	14.3	10.0	16.2	23.2
미국	15.0	16.1	22.1	21.2	19.0	21.4	18.4	22.4	21.1	21.0	22.2	22.7
핀란드	38.2	40.7	38.6	37.8	38.8	38.8	38.1	32.7	28.1	33.4	23.5	15.3
캐나다	20.3	19.3	19.9	19.6	19.7	19.1	17.9	15.3	14.5	16.3	13.4	11.4

* 자료 : SA 2011

< 휴대폰 국가별 점유율 (출하량 기준) >

(단위 : %)

구분	'09					'10					'11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1Q	2Q
한국	28.3	30.2	31.8	30.6	30.3	31.3	30.2	29.9	28.5	29.9	26.9	28.3
핀란드	37.4	36.9	36.6	36.8	36.9	36.1	34.7	32.3	30.9	33.3	30.4	24.7
중국	6.1	6.8	6.8	10.3	7.7	7.5	8.5	8.8	10.5	8.9	9.9	12.9
미국	7.7	7.5	7.5	6.4	7.2	6.2	5.5	7.0	7.0	6.5	7.9	8.8

* 자료 : SA 2011

< 휴대폰 가격 추이 >

(단위 : 불/개)

휴대폰 업체별 (평균)	'06	'07	'08	'09	'10	'11	
						1Q	2Q
삼성전자	154	150	133	121	118	124	138
LG전자	152	141	132	114	95	104	119
노키아	121	120	109	88	83	87	80
모토로라	131	119	121	133	210	220	209
애플	-	387	551	591	612	638	631
휴대폰 전체 시장	-	142	139	132	135	151	153

* 자료 : SA 2011

2 최근 생산·내수·수출 동향

- (생산) 스마트폰 국내 생산 확대로 '11년 상반기 휴대폰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4.3% 증가한 25.1조원
- (수출) 상반기 휴대폰 수출은 스마트폰 중심의 호조세로 20%가 넘는 수출 증가세 시현
- (해외 생산 비중) 스마트폰의 가격 경쟁 심화로 일반 휴대폰에 이어 스마트폰도 해외 생산 비중이 확대

* '11년 2분기에는 휴대폰의 해외 생산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섬

< 국내 휴대폰 월별 생산 현황 >

(단위 : 조원)

구분	'10						'11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휴대폰 단말	3.4	3.4	3.8	3.8	3.6	40.6	3.8	3.5	3.5	3.8	3.9	3.7	3.5	3.3
부분품	0.6	0.6	0.6	0.6	0.5	6.0	0.5	0.4	0.5	0.5	0.5	0.5	0.5	0.6
합계	3.9	4.0	4.3	4.4	4.1	46.7	4.3	3.9	4.0	4.3	4.4	4.2	4.1	3.9

* 자료 : KEA

< 휴대폰 월별 수출 현황 >

(단위 : 억불)

구분	'10						'11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휴대폰 단말	10.9	12.5	17.7	18.5	15.2	152.9	14.4	13.1	12.5	15.4	16.2	13.6	10.8	9.1
부분품	7.8	8.5	8.8	8.4	7.1	96.0	9.4	6.7	9.1	7.8	8.2	8.6	10.5	11.0
합계	18.8	21.1	26.5	26.8	22.4	248.9	23.8	19.8	21.7	23.2	24.4	22.2	21.4	20.1

* 자료 : NIPA

<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 >

(단위 : 백만대, %)

구분	'08				'09				'10				'11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국내출하	41.7	42.5	41.5	36.9	35.3	40.2	35.7	36.6	35.8	37.5	35.6	37.8	35.4	28.1
해외출하	29.0	30.9	33.3	41.6	35.2	44.2	58.7	68.9	57.7	59.2	66.4	76.1	60.3	73.1
해외생산 비중	41.0	42.0	44.5	53.0	49.9	52.3	62.2	65.3	61.7	61.3	65.1	66.8	63.1	72.2
전체 출하	70.7	73.4	74.8	78.5	70.5	84.4	94.4	105.5	93.5	96.7	102.0	113.9	95.7	101.2

* 자료 : SA, 통계청

소프트웨어(SW)

성장동력실 소프트웨어산업과(☎2110-4788)

1 최근 업계 환경

- (시장수요)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클라우드 등 신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계 SW시장은 3.8% 성장한 9,291억불

* '13년 1조불을 넘어서 '10~'15년 연평균 5.1% 성장할 전망

- (세계 Top 5업체) 세계 SW시장은 MS, IBM, 오라클, SAP, 시만텍 등 세계 Top5 패키지 SW와 IBM, HP, 액센추어, 후지쯔, CSC 등 세계 Top5 IT서비스 업체 모두 매출 높은 매출 신장세

< 세계 SW 시장 전망 >

(단위 : 억불, %)

구분	'10	'11	'12	'13	'14	'15	연평균성장률 ('10~'15)
패키지SW	3,108.2	3,243.4	3,443.2	3,674.4	3,933.9	4,210.6	5.7
IT서비스	5,840.3	6,047.5	6,328.4	6,641.0	6,959.1	7,282.4	3.8
합계	8,948.5	9,291.0	9,771.6	10,315.3	10,892.9	11,493.0	5.1

< 세계 주요 SW 업체 1분기 실적 >

(단위 : 백만불)

패키지SW	Microsoft		ORACLE		IBM		SAP		symantec.	
	'10.1Q	'11.1Q	'10.1Q	'11.1Q	'10.1Q	'11.1Q	'10.1Q	'11.1Q	'10.1Q	'11.1Q
총 매출	14,503	16,428	6,404	8,764	22,857	24,607	€2,509	€3,024	1,531	1,673
SW 매출	12,697	13,801	5,015	5,954	5,018	5,308	€1,947	€2,327	1,531	1,673
성장률(%)	-	8.7	-	18.7	-	5.8	-	19.5	-	9.3
비중(%)	87.5	84.0	22.0	21.6	78.3	67.9	77.6	77.0	100	100
IT서비스	IBM		hp		FUJITSU		accenture		CSC	
	'10.1Q	'11.1Q	'10.1Q	'11.1Q	'10.1Q	'11.1Q	'10.1Q	'11.1Q	'10.1Q	'11.1Q
총 매출	22,857	24,607	30,849	31,632	14,475	15,478	5,538	6,496	4,201	4,202
IT서비스 매출	13,716	14,573	8,842	8,977	8,267	8,551	5,538	6,496	4,201	4,202
성장률(%)	-	6.2	-	1.5	-	3.4	-	17.3	-	0.0
비중(%)	60.0	59.2	28.7	28.4	57.1	55.2	100	100	100	100

* 자료 : IDC 2011

2 최근 생산·내수·수출 동향

- (생산) 그린 IT,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서비스 등 신성장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IT서비스를 중심으로 SW 생산이 증가

* 2011년 상반기 생산 : (패키지SW) 1.7조원, 8.5% ↑, (IT서비스) 11.4조원, 12% ↑

- (수출) 국내 주요 IT서비스 업체의 동남아 지역에서 탈피한 중남미, 중동 지역으로 해외 진출 다변화로 SW 수출이 증가

* 2011년 상반기 수출 : (패키지SW) 0.8억불, 7.3% ↓, (IT서비스) 53.5억불, 11.5% ↑

- (내수) 국내 SW시장은 IT서비스가 패키지SW보다 두배 가량 크나 성장성은 패키지SW가 연평균 7.2%로 높은 성장세 예상

< SW 생산 및 수출 추이 >

(단위 : 억원, 천불,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SW 생산	'11	19,353	20,046	23,174	21,226	22,762	24,307	22,359	22,011	175,238
	'10	16,328	18,013	20,976	19,418	20,442	22,125	19,439	21,139	157,880
	증감률	18.5%	11.3%	10.5%	9.3%	11.3%	9.9%	15.0%	4.1%	11.0%
SW 수출	'11	89,323	112,478	120,123	97,661	100,181	103,861	100,391	103,781	827,799
	'10	89,074	84,343	106,059	92,966	101,681	97,403	79,215	121,729	772,470
	증감률	0.3%	33.4%	13.3%	5.1%	-1.5%	6.6%	26.7%	-14.7%	7.2%

* 자료 : KEA

< 패키지SW 내수 시장 전망 >

(단위 : 십억원, %)

구분	'10	'11	'12	'13	'14	'15	연평균성장률 ('10-'15)
Application	1,223.6	1,305.6	1,404.3	1,512.8	1,610.5	1,717.7	7.0%
App.개발/배치	939.9	1,016.7	1,101.1	1,195.6	1,291.6	1,382.6	8.0%
시스템 인프라SW	998.5	1,068.8	1,141.6	1,222.4	1,284.9	1,367.9	6.5%
합계	3,162.1	3,391.2	3,647.1	3,930.7	4,187.1	4,468.2	7.2%

* 자료 : IDC 2011

< IT서비스 내수 시장 전망 >

(단위 : 십억원, %)

구분	'10	'11	'12	'13	'14	'15	연평균성장률 ('10-'15)
컨설팅 및 SI	3,135.5	3,263.6	3,349.0	3,485.4	3,634.4	3,746.1	3.6%
아웃소싱	2,570.6	2,695.0	2,797.4	2,925.0	3,041.3	3,149.8	4.1%
지원 및 훈련	1,090.7	1,107.2	1,119.2	1,133.7	1,145.5	1,156.1	1.2%
합계	6,796.8	7,065.8	7,265.6	7,544.0	7,821.1	8,052.0	3.4%

* 자료 : IDC 2011

라. 중소기업 동향

산업경제실 기업협력과(☎2110-5164)

1 생산

- (광공업 생산) '11.1~8월간 중소기업 광공업 생산지수는 126.4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단위 : %, 2005=100기준)

구 분	'07	'08	'09	'10		'11 ^p			
				7	8	1 ~ 8	7	8	
전체제조업	116.4 (7.1)	120.3 (3.4)	120.0 (△ 0.2)	140.0 (16.7)	144.5 (15.2)	137.4 (16.2)	148.1 (7.9)	150.2 (3.9)	144.1 (4.9)
중소기업	112.7 (4.6)	113.1 (0.4)	107.2 (△ 5.2)	122.7 (14.5)	125.6 (16.1)	118.7 (17.3)	126.4 (5.5)	125.4 (△ 0.2)	122.4 (3.1)
대기업	118.1 (8.2)	123.5 (4.6)	125.8 (1.9)	147.9 (17.6)	153.2 (14.9)	146.0 (15.9)	158.0 (8.7)	161.6 (5.5)	154.0 (5.5)

* 자 료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통계청(산업활동동향, '11.9.30)

- (평균가동률) '11.1~8월간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1%로 전년 동기 대비 0.1%p 상승

(단위 : %)

구 분	'07	'08	'09	'10			'11 ^p		
					7	8	1~8	7	8
전체제조업	80.1 (0.1)	77.6 (△ 2.7)	74.4 (△ 3.2)	81.2 (6.8)	82.7 (5.0)	79.7 (3.3)	82.0 (0.7)	82.1 (△ 0.6)	80.5 (0.8)
중소제조업	71.0 (0.5)	69.3 (△ 1.7)	68.3 (△ 0.9)	72.1 (3.8)	72.4 (3.2)	71.3 (2.2)	72.1 (0.1)	72.7 (0.3)	72.3 (1.0)

* 자료 : 전체제조업(통계청 : 산업활동동향, '11.9.30, 중소제조업(중기중앙회 :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 '11.9.30),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2 출하 및 재고

□ (출하) '11.1~8월간 생산자제품 출하는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단위 : %, 2005=100기준)

구 분	'07	'08	'09	'10			'11 ^P		
					7	8	1~8	7	8
전체제조업	115.7 (7.2)	118.6 (2.5)	116.8 (△ 1.5)	133.8 (14.5)	136.5 (13.0)	131.6 (15.3)	141.4 (8.2)	140.9 (3.2)	137.5 (4.5)
중소기업	112.8 (5.4)	113.5 (0.6)	106.9 (△ 5.8)	122.4 (14.4)	124.3 (14.8)	118.2 (16.2)	126.6 (6.2)	125.0 (0.6)	122.1 (3.3)
대기업	117.0 (8.0)	120.9 (3.3)	121.3 (0.3)	139.0 (14.6)	142.1 (12.3)	137.8 (15.0)	148.1 (9.0)	148.2 (4.3)	144.5 (4.9)

* 자 료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통계청(산업활동동향, '11.9.30)

□ (재고) 생산자제품 재고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11.8월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

(단위 : %, 2005=100기준)

구 분	'07	'08	'09	'10	'11 ^P			
					5	6	7	8
전체제조업	117.2 (5.6)	125.4 (7.0)	115.6 (△ 7.8)	135.7 (17.4)	140.3 (7.8)	142.9 (10.1)	147.5 (9.9)	150.7 (12.0)
중소기업	110.0 (3.3)	120.0 (9.1)	115.0 (△ 4.2)	121.0 (5.2)	126.4 (4.0)	127.3 (3.7)	129.0 (3.6)	130.9 (4.1)
대기업	120.4 (6.5)	127.8 (6.1)	115.8 (△ 9.4)	142.5 (23.0)	146.6 (9.5)	149.9 (12.7)	155.8 (12.4)	159.6 (15.2)

* 자 료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통계청(산업활동동향, '11.9.30)

3 설비투자

□ (설비투자) '11.1~8월간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16.8%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

(단위 : %)

구 분	'07	'08	'09	'10			'11		
					7	8	1~8	7	8
중소제조업	17.3	13.9	15.4	16.9	17.1	18.6	16.8	15.8	16.1
- 중화학	19.4	16.2	17.2	19.2	19.1	21.5	19.0	17.2	18.0
- 경공업	14.5	10.8	12.8	13.1	13.8	13.8	13.5	13.8	13.3

* 자 료 : 기업은행(중소제조업동향, '11.9.30)

4 수출

□ (수출) '11.1~8월간 중소기업 수출은 1,288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

(단위 : 억불)

구 분	'07	'08	'09	'10			'11 ^p		
					7	8	1~8	7	8
중소기업	1,135.5 (9.0)	1,305.2 (15.0)	1,173.1 (△ 10.1)	1,539.4 (31.2)	136.9 (28.8)	120.4 (31.4)	1,287.5 (30.8)	170.6 (24.6)	167.7 (39.3)
(비 중)	30.6	30.9	32.3	33.0	33.9	33.0	34.9	34.7	36.5

* 자 료 : 한국무역협회('11.9.21),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 창업 및 부도

□ (창업) '11.1~8월간 신설법인은 43,189개로 전년 동기(41,041개)보다 2,148개(5.2%) 증가
 - (창업배율) '11.1~8월간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배율은 68.6배로 전년 동기(55.5배)보다 증가

(단위 : 개, %)

구 분	'07	'08	'09	'10			'11		
				7	8	1~8	7	8	
신설법인수(A)	53,483	50,855	56,830	60,312	5,260	4,605	43,189	5,639	5,126
부도법인수(B)	1,507	1,886	1,364	1,143	84	93	630	67	68
창업배율(A/B)	35.5	27.0	41.7	52.8	62.6	49.5	68.6	84.2	75.4

* 자 료 : 중소기업청(신설법인동향 '11.9.28), 신설법인수(법원행정처), 부도법인수(금융결제원)

* 주 : 전국기준, 창업배율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 ☐ (부도) '11.1~8월간 부도업체는 886개로 전년 동기보다 121개 감소,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

(단위 : 개, %)

구 분	'07	'08	'09	'10		1~8	'11	
				7	8		7	8
부도업체수	2,294	2,735	1,998	1,569	122	122	886	103
- 법 인	1,507	1,886	1,364	1,143	84	93	630	68
- 개 인	787	849	634	426	38	29	256	35
어음부도율	0.02	0.03	0.03	0.03	0.03	0.04	0.03	0.01

* 자 료 : 전국기준,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후), 한국은행(어음부도율 동향, '11.9.19)

6 고용

- ☐ (고용) 종사자수 증가업체 비율은 9.3%, 감소업체 비율은 11.7%를 기록, 증감 차이가 △2.4%p로 전월(1.0%p)보다 3.4%p 하락 ('11.8월)

(단위 : %)

구 분	'07	'08	'09	'10	'11			
					5	6	7	8
·증가업체비율(A)	10.8	9.8	12.0	12.6	12.3	11.6	11.2	9.3
·감소업체비율(B)	12.4	12.9	12.9	10.9	10.3	12.1	10.2	11.7
·업체증감비율(A-B)	△1.6	△3.1	△0.9	1.7	2.0	△0.5	1.0	△2.4

* 자 료 : 기업은행(중소제조업동향, '11.9.30)

7 대출

- ☐ (대출규모) 중소기업 대출액은 '10년 말부터 소폭 증가 추세이며, 8월말 현재 456.4조원으로 전월 대비 0.6조원 증가

(단위 : 조원)

구 분	'07말	'08말	'09말	'10말	'11		
					6	7	8
대출잔액	370.0	422.4	443.5	441.4	452.9	455.8	456.4

* 자 료 : 한국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동향, '11.9.30)

- ☐ (대출금리) 中企대출 평균금리는 6% 초반대로 8월은 연 6.07%로서 전월대비 0.02%p하락

(단위 : %)

구 분		'07말	'08말	'09말	'10말	'11		
						6	7	8
대 출 금 리	기 업 대 출	7.16	6.87	5.79	5.52	5.89	5.98	5.92
	중 소 기 업	7.27	6.91	5.89	5.66	6.04	6.09	6.07
	대 기 업	6.77	6.75	5.45	5.15	5.51	5.67	5.55

* 자 료 : 한국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동향, '11.9.30)

□ (대출연체율) 中企대출(원화) 연체율은 소폭 증가 추세이며, 8월은 전월대비 0.14%p 증가

(단위 : %)

구 분		'07말	'08말	'09말	'10말	'11		
						6	7	8
연체율	중 소 기 업	1.00	1.70	1.00	1.30	1.43	1.71	1.85
	대 기 업	0.37	0.34	0.35	0.35	0.25	0.39	0.59

* 자 료 : 금융감독원(연체율 현황, '11.10.4)

□ (대출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세가 다소 약화될 전망

구 분	'09				'10				'1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o
중소기업	6	16	9	0	9	0	9	22	22	22	19	13
대 기 업	-22	-9	0	0	3	6	3	6	9	13	6	3

* 자 료 : 한국은행(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11.10.5)

* 대출행태지수 = {'크게 완화(증가)'응답비중×1.0 + '다소 완화(증가)'응답비중×0.5} - {'크게 강화(감소)'응답비중×1.0 + '다소 강화(감소)'응답비중×0.5}

8 직접금융 현황

□ (금융) 8월 누계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은 19,053억원으로 전년동월 누계 대비 22.2%(5,422억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8	8	1~8	7	8	
주식	기업 공개	중소기업	5,027	12,966	15,112	10,280	1,117	6,666	1,353	291
		대 기 업	2,141	3,775	27,927	21,500	440	12,792	1,700	-
	유상 증자	중소기업	23,618	32,408	16,054	10,299	880	5,954	471	202
		대 기 업	20,015	67,008	44,301	16,219	-	45,954	180	589
일반 회사채		중소기업	2,490	8,192	6,234	3,916	101	6,433	21	6
		대 기 업	275,597	468,622	452,324	286,826	34,465	397,995	39,850	42,700
계		중소기업	31,135	53,566	37,400	24,495	2,098	19,053	1,845	499
		대 기 업	297,753	539,405	524,552	324,545	34,905	456,741	41,730	43,289

* 자 료 : 일반회사채는 금융채 및 ABS 제외, 금융감독원(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11.9.29)

9 중소기업 BSI(한국은행)

□ (실적) 9월 중소기업 업황BSI(78→80)는 전월 대비 2p 상승

구 분	'10.1	3	6	9	11	12	'11.5	6	7	8	9
전 체	93	99	105	92	92	92	94	91	91	80	81
대 기 업	99	108	116	98	97	97	98	98	94	84	82
중소기업	90	94	100	90	90	89	92	88	90	78	80
수출기업 ²⁾	94	108	117	95	92	93	94	89	91	76	77
내수기업	92	92	97	91	92	91	94	92	91	83	83

* 자 료 : 한국은행(기업경기조사 결과, '11.9.28)

* 주 : 1) 「호조」 응답업체 구성비(%) - 「부진」 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매출액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 (전망) 10월 업황 전망 BSI(86→86)는 전월 대비 동일

구 분	'10.1	3	6	9	11	12	'11.6	7	8	9	10
전 체	90	101	104	104	92	91	97	90	91	86	86
대 기 업	99	103	112	110	102	97	101	96	93	87	87
중소기업	86	100	100	101	88	88	95	87	90	86	86
수출기업	94	104	107	108	93	93	98	89	91	80	80
내수기업	88	99	102	101	91	90	96	90	92	91	90

* 자 료 : 한국은행(기업경기조사 결과, '11.9.28)

10 중소기업 자금 BSI(한국은행)

□ (실적) 중소기업 9월 자금사정 BSI(83→85)는 전월 대비 2p 상승

구 분	'10.1	3	6	7	9	10	11	12	'11.5	6	7	8	9
전 체	92	92	97	95	90	91	90	91	90	90	90	88	89
대 기 업	99	104	100	101	96	100	100	101	96	96	95	90	93
중소기업	89	87	95	92	87	86	86	86	87	87	88	83	85

* 자 료 : 한국은행(기업경기조사 결과, '11.9.28)

□ (전망) 중소기업 10월 자금사정 전망BSI(86→83)는 전월 대비 3p 하락

구 분	'10.1	3	6	7	9	10	11	12	'11.5	6	7	8	9	10
전 체	92	93	96	97	94	95	92	91	93	93	90	90	89	87
대 기 업	99	98	104	98	101	99	100	99	101	96	97	93	92	88
중소기업	88	92	93	96	91	93	88	88	91	93	86	89	86	83

* 자 료 : 한국은행(기업경기조사 결과, '11.9.28)



1 주요 발표정책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전략 (7.26)

무역투자실 무역진흥과(☎2110-5323)

□ 추진배경

- 동반성장 논의 과정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대립*을 극복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
 - *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MRO 문제 등
- 대중소기업간 동반진출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群 전체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

□ 비전 및 목표



□ 주요내용

① 동반진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관련한 대중소기업간 협력 확대)

- 유통 대기업의 해외매장에 중기제품 납품시 샘플제작비, 운송비 등 지원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마케팅을 하면 활동비 지원(동반무역촉진단사업)
- 대기업 해외 영업망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망 구축 추진
- 대기업이 중기제품 품질인증을 통해 제품판매를 지원하는 방안 추진
- 대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추진
- 대기업 종합상사의 역할 재정립과 동반진출 협력사업 발굴
- 한전 등 우수공기업 사례 확산

② 동반진출 애로해소 및 지원

(동반진출 중소기업의 정보부족과 현지정착 애로해소에 대기업 역할 강화)

- 현지진출 대기업과 코트라 무역관간 중소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 대중소기업간 동반진출 프로젝트를 발굴
- 전력, 플랜트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
- 동반진출 표준모델 개발, 업계 보급
-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을 통한 동반진출 기업 금융지원 확대

③ 정책간 연계를 통한 동반진출 활성화

(중소기업정책/개별산업정책과 동반진출 전략 연계)

- 코트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각종 해외사절단, 상담회, 전시회 등)에 대기업의 네트워크, 브랜드 적극 활용
- EPC업계와 플랜트 기자재 업체간 동반진출 협력강화
- SW 대중소 컨소시엄을 통한 동반진출 활성화

④ 자발적·지속적 동반진출 추진체계 구축

- 동반진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의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 * (대기업)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해외마케팅 지원 우대
- 동반진출 포럼 구성·운영 & 동반진출지원센터 설치
- 대중소기업간 동반진출 협약체결 확산

□ 향후계획

- 하반기 중 유통, 자동차분야 분과위를 개최하여 동반진출 공감대 확산
- 사업지원체계 구축, 사업계획 구체화, 제도 신설·개선,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동반진출 사업 본격화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계획 (7.14)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2110-5352)

□ 개요

- (외국인투자 현황) 외국인투자는 외환위기 당시 크게 증가하였으나, 위기극복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정체상태 지속
 - * 외국인투자 신고액 추이(단위:억불)
 - ('97)69→('99)155→('01)112→('03)64→('05)115→('07)105→('09)114→('10)130
 - 新정부 들어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등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경제 기여와 실적은 다소 미진
 - * 투자유치 잠재력지수는 세계 16위, 실적은 34위(UNCTAD, '09년까지 잔액기준)
- (향후 정책방향) 그간의 외국인투자 확대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국민경제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설정
 - 새로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유치 전략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체화된 유치시스템을 구축

□ 주요내용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 ① 미래 성장,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제고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투자유치 로드맵 수립·추진
 - (녹색) 태양광 등 상용화 분야는 내수시장 창출 및 핵심 부품소재 유치를 강화, 스마트 그리드 등 미래 분야는 선진기술 유치에 집중
 - (융합) 세계적 IT·제조기반을 활용, 異種산업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
 - * 전기車(융합 부품), IT융복합기기용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소재)
 - (R&D) 지역의 R&D,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세계적 연구소 유치 등
 - * 막스플랑크(소재, 포항 공대), 프라운호퍼(바이오, 생물약단지), 솔베이(화학, 글로벌본부와 병행유치)
 - 고용효과 높은 그린필드형 유치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제주 헬스케어, 마리나항 리조트 등 관광·레저, 부산 신항만, 인천공항 등 물류·유통 분야 서비스업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
 - (숙련 제조업) 섬유(동대문, 대구 패션특구), 식품산업(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의 주요 거점과 연계한 유치활동 전개

-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투자유치로 지역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 (클러스터) 'QWL사업' 등 거점 클러스터의 투자매력도 제고 및 홍보강화
- (FEZ) 현존지구 조기개발 촉진 및 구역별 특성화 전략에 따른 중장기계획 추진
- (지역개발) 중화·중동권 국부펀드 수요에 부합한 투자상품 지속 발굴·관리

②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 ◇ (체계) 조세·입지·현금지원별로 복잡 ⇒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
- ◇ (기준) 투자금액과 더불어 성장동력,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 기여도 고려
- ◇ (효과) 경직적인 운영으로 전략적 활용 미흡 ⇒ 인센티브간 활용 전략을 명확히 하고 상호연계를 통해 투자유치 레버리지 효과 제고

구분	현 황	개편방향(안)	활용연계
조세 감면	- 7년형 감면 · 660여개 고도기술사업 · 외투자지역, 경자구역內 : 제조업 3천만불 등 - 5년형 감면 · 외투자지역, 경자구역內 : 제조업 1천만불 등	→ -(기준) '금액' ⇒ '효과' 중심으로 지원기준 재정립 · 고도기술, 일정규모 투자사업에는 기본혜택(예 : 5년) · 고용창출 등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대폭 정비	고도기술·일 정규모투자사업 등에 대한 기본지원 수단 ↓
입지 지원	- 외투자지역 지정 유형 · 단지형: 先지정 조성후 입주 · 개별형: 유치기업 개별입주 · 서비스형: 서비스업종 입주	→ -(유형) 운영유형 일원화 · 3가지 유형 → 개별형 중심 · 지역 지정 → 지원기업 선정 -(대상) 조세감면대상 중 고용창출, 지역전략산업 등에 따라 입지 지원	투자유치 효과에 따른 추가적인 레버리지 ↓
현금 지원	- 지원대상 · 고도기술사업(서비스업 포함) · 부품소재, R&D사업 · 대규모 고용사업 등	→ -(중점대상) 10대 신성장동력, 글로벌 타겟팅 기업, 대형투자 프로젝트 등 -(지원기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	타겟분야·기업 유치를 위한 협상 수단

③ 선진국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신흥국, 유망국을 포함한 유치선 다변화

- (선진국) FTA 활용 등 협력여건 조성 및 미래산업 부품소재 유치에 집중
 - * (美) 금융·비즈니스 서비스, 첨단융합, (EU) 그린테크놀러지, (日) 첨단 부품소재
- (신흥국·유망국)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및 맞춤형 투자유치
 - (중국) 정부간 협력 중심에서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유치체제로 확대
 - * '차이나데스크'를 권역별로 확대, 장쑤성 등 주요 지역과의 중앙·지방간 협력채널 구축
 - (중동) 신재생에너지, 지역개발 등 중동측 관심분야 프로젝트 지속발굴
 - (유망국) 국가별 강점을 활용한 양방향 투자의 Win-Win형 협력 추진
 - * 러시아 : 원천기술 보유·CIS 네트워크, 인도 : IT서비스, 브라질 : SOC 시장

외국인 투자유치의 거버넌스 혁신

- 유치 주체간 입체적 거버넌스 구축 및 민간역량 활용 극대화
 - (수직적 거버넌스) 중앙정부를 구심점으로 중앙↔지자체·IK↔민간에 이르는 국가정책의 수직적 수립·전파·공유 체계 확립
 -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정책 수립·조정기능 강화,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유관부처, 지자체·IK,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국가정책의 신속한 확산·공유
 - (수평적 거버넌스) 중앙↔중앙, 지자체↔IK↔민간의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주체간, 지원주체간 공조 강화
 - * ‘중앙부처 투자유치 책임제’ 정착, 국가 통합 IR계획 수립, 투자유치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FDI 라운드 테이블’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
 - (민간자원 활용) 민간 전문가, 산업계, 유력 외국인사 역량 적극 활용
 - * 민간 PM 지정 확대, 수요대기업의 IR 참여 활성화, 외국인 투자홍보대사 확대
- 국제기준,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법령 전면 개정
 - 인센티브 체계·외투위 등 지원시스템, FDI 인정기준, 복잡한 관리 규정 등을 전면 수정·보완*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촉진기본법’ 제정 검토
 - * 금년 하반기중 전문 연구용역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추진

편리하고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 외투기업·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47개 투자환경 개선 과제 발굴·개선
 - (경영) 복수노조 정착지원, 지재권 특별 사법경찰권 제도 정착, 외투기업 수의계약 입지범위 확대 등 24개 과제
 - (생활)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경자구역내 외국 의료·교육기관 설립, 외국어 안내서비스 확대, 출입국 편의성 제공 확대 등 23개 과제
- 외투기업 애로사항의 상시 발굴과 신속한 해결시스템 구축
 - (발굴) 읍부즈만·지자체·외투기업간 Hot Line 구축 및 SNS 활용
 - * 지역·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대 핵심 관리기업과 쌍방향 Hot Line 운영
 - (해결) 복합·중요·장기지연 과제는 유관부처 참여 전담 T/F 구성

자동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 대책 (6.8)

성장동력실 자동차조선과(☎2110-5634)

◆ 한미 FTA 타결 등 최근 자동차 부품산업 환경변화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뒷받침하여 수출의 획기적 확대 및 지속 유도

1. 추진배경

- 자동차 부품수출은 완성차사의 현지생산 증가 등에 따라 증가 추세
 - * '10년 190억불 수출, 최근 5년간 연평균 16.8% 상승, 수출시장 점유율 4.8%로 세계 6위 수준('09)
- 그러나, FTA 확대 등 환경변화 속에 내수의존 구조 등 문제점도 상존
 - * 수출액 중 해외진출 국내 자동차사에 대한 공급비중이 50% 이상
- FTA 확대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국내부품업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기술개발 강화 등 종합적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2. 주요내용

① Auto-parts Park(APP) 조성을 통한 부품업체의 현지활동 지원

- 자동차부품업체가 해외 글로벌 완성차사와 지속적 접촉 및 공급 루트 발굴, 정보 획득 등 부품업체의 현지활동을 지원하기로 함
 - * 자동차생산 중심지에 共用 사무공간 확충,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② 한중일 글로벌 순회집하(MILK Run) 체제 구축

- 한중일 간 지리적인 근접성을 활용한 자동차부품의 해외 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중일 순회집하 물류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한중일 글로벌 순회집하 체제 >

국내 부품사가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여 1달에 1번 정도 수출하는 기존 방식 대신, 中, 日 완성차사가 화물을 싣는 트레일러를 카페리에 싣고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 부품업체를 순회, 부품 집하 후 트레일러째 본국으로 배송하는 新 물류 시스템

- 이러한 新 물류체계의 도입시 컨테이너 야적장 하역,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 감소로 부품공급 시간을 단축하여(일본, 30일→4일) 적기 공급을 통한 해외업체에 대한 부품공급 확대가 기대됨

* 한일간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 후 중국과 시범사업 추진 협의('12~)

③ 국내진출 완성차사의 “한국부품 글로벌 공급지원센터” 운영

- 우리나라에 진출한 한국GM, 르노삼성, 쌍용(마힌드라) 등 글로벌 완성차사는 자사내에 “자동차부품 글로벌 공급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국부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로 함

* 이들 완성차사는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국내 우수 부품업체를 자사의 글로벌 구매본부에 추천함으로써 해외 계열사에 국내부품의 공급확대 지원 예정

④ 글로벌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추진

- 자동차분야 연구개발시 글로벌기업의 부품수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기 개발한 단위부품의 통합기술, 국제공동 연구가 가능한 분야의 부품도 적극 개발
- 또한, 특정국가 의존이 심하여 수급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이나, 향후 전략 품목이 될 수 있는 부품, 미래시장 창출 잠재력이 커서 국내 기술 확보가 조속히 필요한 분야의 기술도 개발

⑤ 원산지 증명 지원체계 도입

- FTA 체결로 인한 관세감면 혜택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PASS* 보급을 확대하여 기업의 시스템 구축 부담을 해소하기로 함

* 관세청이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무료 다운받아 활용 가능한 원산지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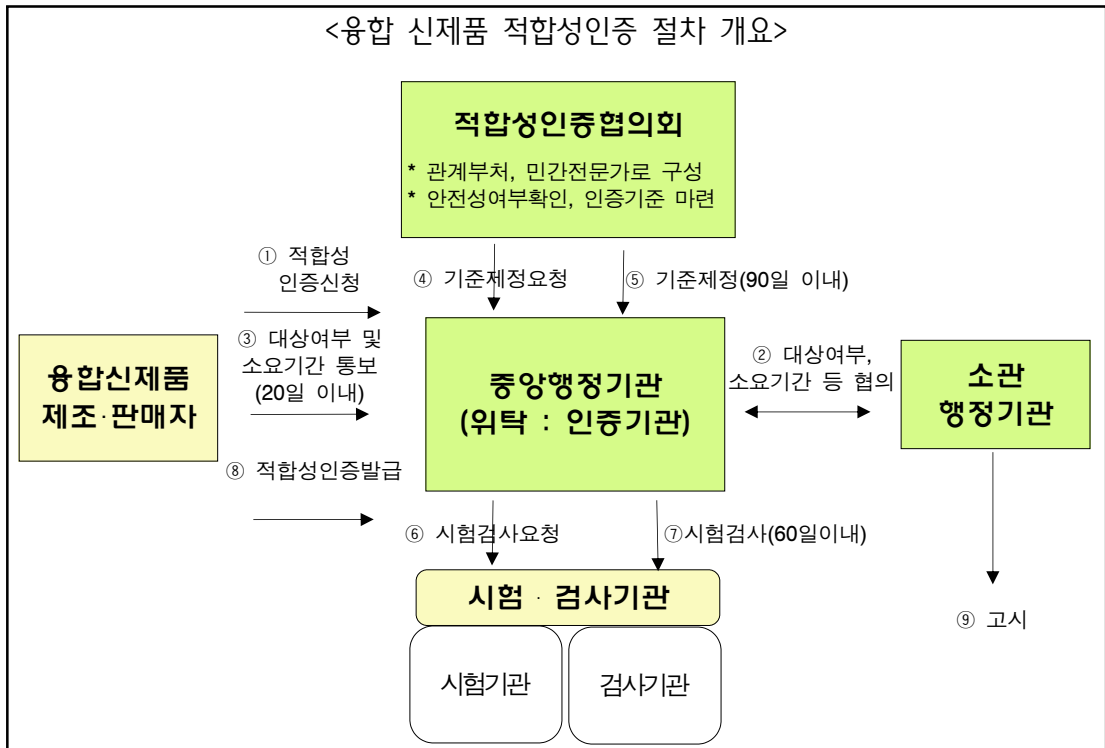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원산지판정 결과를 제공하고, 협력업체간 원산지 입증서류의 유통 기능과 원산지 세무조사를 대비한 전자화된 문서의 보관 기능 추가('11.9월, 관세청)

산업융합촉진전략 (5.25)

성장동력실 성장동력정책과(☎2110-4755)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 (적합성인증) 개별 법령상의 기준 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 범위내 적합성 인증을 수행하는 「적합성인증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제도화 추진



- (사례발굴·모의인증) 법 시행 전이라도 융합 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62건의 시장출시 애로사례를 발굴* 하고, 이 중 대표적인 사례 4건에 대해 관련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적합성 모의인증을 수행하여 애로 해소 지원

<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모의인증 적용사례 >

- ◆ **USN계량기**(씨엠엔텍)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 ‘인증협의회’를 구성,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 중(5~10월)
- ◆ **태양광 LED 가로등**(유양D&U) : 화학융합시험연구원내 ‘적합성인증TF’(11명)를 구성, 인증기준 마련 중(5~10월)
- ◆ **유비쿼터스 가전제품**(LG전자) : 제품에 적용할 시험기준유형에 대한 방통위의 유권해석 이후(7.1일前)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검사 등 지원 예정
- ◆ **무체인 전기자전거**(만도) : 기표원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품목분류(전기자전거 vs 원동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속하게 결정, **기업 애로해소**(5.12)

- **(애로해소 지원체계)** 융합 현장의 애로를 사전 해소하기 위해 인증·시험기관, 출연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융합사업화지원반”**을 운영(6월~)하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지정(연내)

□ 융합촉진 지원시스템 마련

- **(인력양성)** 공학, 인문학 등 폭넓은 다학제와 참여 기업과 공동수행하는 **Real Project** 기반의 교과과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3곳**을 지정·운영(‘12~)하여 융합형 인재 양성 추진
- **(전담센터)** 각종 산업융합시책을 전담 시행하는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지정(11월)하여 정책개발과 기업지원 등 **산업융합촉진**의 구심체로 활용
- **(융합지수)** 융합정책의 핵심인프라로서 융합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기준인 **“산업융합지수”**를 개발하여 향후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대상 여부 판단이나 융합형 R&D과제 등의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융합의 저변 확대

- **융합포럼**(7월) 등을 통해 이중산업간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산·학·연 공동의 **“산업융합주간행사”**를 개최(9.28~10.1)하여 산업융합에 대한 인식제고와 성과확산 추진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2011 (5.4)

에너지자원실 에너지기술팀(☎2110-5692)

□ 추진배경

-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린에너지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기술 획득 전략과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의 필요성 증대
 - * 美 Clean Edge사는 그린에너지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 → IT 혁명기의 초기 성장률(연 16.8%)에 비견
- '09년 5월 제1차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수립 이후 최근의 **R&D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15대 분야***에 대해 **제2차 로드맵 수립 추진**(10.10~)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바이오연료, CCS, 청정연료, 에너지 저장, 고효율 신광원, 그린카, 에너지절약형 건물, 히트펌프,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청정화력발전

□ 추진내용

- (기본 방향) 민간의 R&D 수요에 기반한 **기술획득 전략 수립**, **핵심 부품·소재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의 역할 강화에 중점
 - * 중소·중견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을 선정(105개)하여 중소·중견 기업 주관의 정부 R&D 과제화 추진
- (주요 내용) 민간 TF*를 통해 **15대 분야**에서 **총 88개 전략 품목** 및 **288개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세부 로드맵**** 및 **투자계획***** 마련
 - * 그린 에너지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73명으로 구성(산업계 60% 이상)
 - ** 기술 및 시장 동향, 전략 품목 및 핵심 기술 제시, 특허분석 및 Supply Chain 분석, 기술 획득 전략 수립, 연도별 추진 계획 등
 - *** 민관공동으로 '15년까지 9.8조원, '30년까지 26조원 투자 소요

□ 기대효과

- '30년까지 고용창출 **150만명**, 내수 시장 창출 **94조원**, 해외 수출 **328조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대학 IT교육 개선방안 (4.14)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정책과(☎2110-4805)

□ 추진배경

- 청년 IT인력수급의 불일치(mismatch)로 구인·구직난 지속
 - (양적) IT전문인력은 향후 5년간 전반적인 공급 과잉이나, 세부 분야별로 보면 석박사급 인력과 SW 인력은 부족
 - * 학력 : 석박사급은 약 1,900명 부족하나, 학사급은 약 15,000명 과잉
 - ** 전공 : SW인력은 약 8,000명 부족하나, HW인력은 약 24,000명 과잉
 - (질적) 기업의 '쓸만한 인재' 부족으로 빈 일자리 발생
- 불일치 주요인의 하나인 대학 IT교육을 개선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일자리 증대

□ 주요내용

- ① (新IT교육모델 마련·확산) 전공과목 비중 확대, 인턴십 필수 교과목화, 졸업요건 강화 등의 '新IT교과과정 표준안' 마련
 - * 졸업학점 확대(140학점 이상), 전공비율 상향조정(60% 이상), 수학·과학 등 기초과목 강화(20% 이상), 인턴십 필수과목화, e-러닝 활용 등
 - 공학교육인증과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확산
 - *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에서 15개 대학 지원(성균관대, 동국대,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명지대, 아주대, 경산대, 충남대, 전북대, 강릉원주대, 목포대, 한밭대 등)
 - * 전기·전자·통신 분야에서 '12년부터 신규 지원
- ② (대학평가제도 개선) 교육기능이 강화되도록 교수업적평가 개선
 - * 교육영역 최우수 교수에게 SCI급 1편 인정 등 교육실적이 승진, 연봉에 반영되도록 개선
 - 지경부 인력양성사업 평가시 교육활동 및 산학활동을 강화하도록 가점을 부여하여 교수 업적평가 관련 제도개선 유도

- 대학평가기관 등과 협조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평가지표를 반영하는 등 대학평가제도 보완
 - * 인턴쉽 · 프로젝트 참여비율, 취업률, 강의평가 결과 공개 등 반영, 교육여건 평가비중을 교수연구 평가비중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 ③ (IT역량평가 도입) 개인의 IT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 · 검증하기 위한 ‘IT역량평가’ (가칭 TOCIT : Test of Competence in IT) 도입
 - *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정밀하게 평가함으로써 기업은 검증된 방법을 통해 학벌이 아닌 실력 위주의 채용이 가능
 - 비판적 · 창의적 사고 및 사고의 유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객관식 · 단답형은 최소화하고, 개방형 · 서술형 강화
 - * 토익 · 토플과 같이 만점을 두고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검토
 - 해당 시험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IT역량평가 결과를 대학의 교육 개선 및 기업의 인력채용 도구로 활용
 - * IT서비스, SW기업 중심으로 채용시 가산점 부여, 이력서 표기 등 취업에 반영
 - * 대학의 교육역량 및 학생들의 학습성과에 대한 측정지표(예: 졸업시험)로 활용
- ④ (산학협력 강화) 기업이 대학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간 교류협력 채널(가칭 서울어코드 클럽) 구축
 - * KT, LG전자, LG CNS, NHN, 안철수연구소, 비트컴퓨터 등 25개사 참여
 - * 서울어코드 클럽을 통해 기업의 인재상 공유, 기업이 원하는 공학교육 인증 기준 제시, 기업의 인증활동 참여 등이 이뤄질 예정

□ 향후계획

- 기업-대학간 교류협력 채널인 ‘서울어코드 클럽’ 발족식(10.28)
- ‘IT역량평가지험’ 설계(10월), 공청회(11월), 시범테스트 실시(12.3월)

국내 기름값 안정 대책 (4.6)

에너지자원실 석유산업과(☎2110-5453)

□ 추진경과

-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국내 기름값의 안정화를 위해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수립·발표('11.4월)

□ 주요 정책방향

-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 가격공개기간 연장 ('11.4월→'14.4월, 3년연장), LPG 사업자 판매가격 공개 ('11.11월 시행)
 - 석유시장의 감시대상·평가지표 확대 및 감시체계 통합, 유가예보제, 스마트폰 정보확대 등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확충
 - * 국내유가예보제 : 다음주 국내유가의 등락 및 강약을 예보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
-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 소비자 가격 인하
 - 석유수입업(도매단계: 정유사와 경쟁)의 비축의무 폐지(시행령 개정중), 자가폴 주유소 브랜드 신설(소매단계: 정유사와 경쟁) 육성
 - * 제6의 자가폴 브랜드 신설, 공동브랜드로 공동구매 추진 등
 - * '11년말,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 구성 / '12년 폴디자인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개설('11년말) 및 선물시장 개설('12년말)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등 세부안 마련, 업계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등
 - * (선물시장) 해외사례 분석, 선물시장 모델구축, 법적기반 마련 등
- 석유시장의 공정성 확보 : 소비자의 신뢰 제고
 - 정유사 원적지관리 담합확인(5.27) 등 정유사-주유소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감시,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강화
 - * 서민경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100원/ℓ 인하('11.4~7월)

제품안전정책 주요 실행방안 (4.1)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509-7241)

□ 추진배경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시행(공포 '10.2월, 시행 '11.2월)에 따라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발표('11.4.1)
-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추진이 필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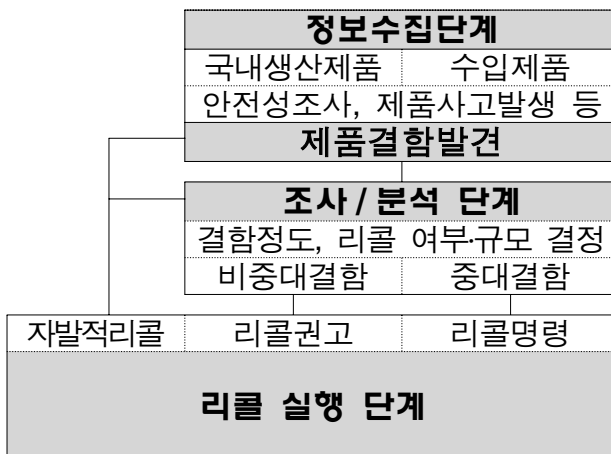
【우리나라 제품안전정책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현재까지 사전규제 중심, 금년 초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으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초기 단계
 - * 기업의 자율을 확대하되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美, 日, EU 등은 적합성 평가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리콜을 활용하는 사후규제 확대 추세
- (문제점) 제품 제조·출하 단계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유통·사용 단계에서 위해제품에 대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 곤란

□ 중점 추진과제 도출

- 세계적 추세인 사후규제 확대·강화 관련, 사후규제의 주요 수단인 '리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제
-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
- ☞ 리콜의 각 프로세스별 주요 문제점으로부터 중점 추진과제 도출

<리콜의 주요 프로세스>



<프로세스별 주요 문제점>

- ☞ 정보수집체계 미구축
 - 국산제품 → 정보원 부족
 - 수입제품 → 관세청, 他國과 정보공유 등 협력 미흡
- ☞ 조사/분석 역량 미흡
 - 조사분석정보 활용체계 미비
 - 조사담당인력 2명에 불과
- ☞ 자발적리콜 활성화 미진
 - 기업들의 인식 부족
- ☞ 제도적 기반구축 미비

① 정보源 추가 발굴 및 유관 정보 네트워킹 최적화

- ※ (현황) 소비자원 등이 관련 정보 수집중이나, 정보 질·내용 미흡, 실시간 협력 애로
- 정보수집·분석·활용 통합관리시스템인 '제품안전정보센터' 구축

② 수입제품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 강화

- ※ (현황) 외국의 리콜 중 제품, 불법·불량 수입제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조치방안 부재
- 수입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차단, 외국(기관)과의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정보조사·분석기능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체계화

- ※ (현황) 지역단위 제품사고 조사활동체계 미구축, 제품안전 분석정보 활용 체계 부재
- 지역단위에서의 신속한 현장조사 체계 구축, 제품안전정보센터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연계·활용

④ 조사·분석 업무담당 인력·조직 확충 및 효율화

- ※ (현황) 조사담당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조사·분석기능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한계
- 전담조직·지방단위조직 확보, 기표원 부서 간 업무협력·조정

⑤ 홍보 강화 및 기업·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 (현황) 기업들의 인식 부족으로 '자발적 리콜' 미활성화
- 소비자·사업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 유도, 시장감시기능 강화 및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리콜보험 도입 검토

⑥ 기타 제도적 기반 확충

- ※ (현황) 上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 한국제품안전협회 기능 강화·육성 등

□ 수립체계 및 향후일정

- (수립체계) 학계, 인증기관, 업계, 법조계 등을 포괄하는 「정책 Pool」 구성·활용, 시급성/정책효과가 큰 중점과제 우선추진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11년도 시행계획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총괄과(☎509-7221)

□ 추진배경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의거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 '11~'15)
- 녹색성장/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 등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고 기업의 편의성 및 환경개선을 위한 표준기반을 구축할 필요
- 또한, 국민의 편안한 삶과 사회안정을 위한 표준활성화를 시행하고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을 추진 중

□ 주요 추진과제

■ 1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스마트그리드, 3D산업, 전기자동차, 클라우드컴퓨팅 등에 대한 표준코디네이터를 도입하여 국제표준화 선점
- ISO/IEC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임원수임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지역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협상력 강화
- 국가 R&D와 표준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미래성장동력 분야 원천표준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

■ 2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기술표준원에서 운용하는 KC마크 적용 의무인증과 KS인증의 중복시험 상호인정을 시행하여 기업 부담 경감

- 표준 및 기술규제 정보를 시스템화(정보은행)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 기업의 리스크 및 품질 관리 체계를 개발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선도에 기여

3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생활공감표준(전국교통카드 호환, 핸드폰 문자판 표준 등), 서비스표준, 인체치수 표준 등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 향상
-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 확대 및 시장감시 기능,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 고령친화제품·장애인복지용품 관련 표준(국가,단체) 제정 및 인증 추진

4 민간 - 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국가표준개발·관리업무 이양계획에 따라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지정 표준수를 점진적으로 확대('10.8월 58%→'11.8월 68%)
-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큰 국제 민간표준화 단체를 선정하여 대상 기관별 국내 대응 거점기관을 지정·운영
- 표준의 이해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를 개최하는 등 민간중심의 표준화 활성화 기여

□ 향후계획

- 지경부 이외 11개 부처의 '11년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12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11.11월 국가표준심의회 개최 예정)

법정 인증(의무·임의)제도 개선 방안

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509-7290)

□ 추진배경

- 법정 의무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인증마크(KC) 통합, 중복 인증 부담 해소 등 제도 개선
 - *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 13개 법정 의무인증마크를 하나의 KC마크로 통합('09.7)
 - * 중복시험 상호인정 및 중복인증 일괄신청 제도 시행('10년 지경부, '11년 전부처 확대)
- 의무·임의 인증 간 및 임의인증제도 간 중복은 개선되지 않아 기업 활동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
 - * 국회, 대한상의에서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문제 제기('10.8)
 -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 등 정부기관에서 기표원에 인증제도 개선 요청('10.8)

□ 인증제도 문제점

- (복수 인증) 동일 제품에 대해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기업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구분	법정 의무·임의 인증 간	임의인증 간
복수 인증제품 수	245개	300개

* KS와 의무인증 간 중복 147개(60%), 환경마크와 의무인증 간 중복 46개(19%)

- (중복 시험) 인증 신청·진행 시 동일한 시험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시간적 낭비 초래

구분	법정 의무·임의 인증 간	임의인증 간
중복시험 요구 품목 수	194개	177개

- (인센티브 제도) 동일 제품에 인증취득 수가 많을수록 정부조달 인센티브 점수를 높게 부여하므로 중복 및 다수 인증 취득을 유도

□ 추진방안

① 중복시험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 처리

- 지경부 내 인증제도부터 중복시험 상호인정 및 중복 인증품목 일괄신청 처리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부처 제도로 확대
 - * 부처별 단계적 시행 : ① 기표원('11) ⇒ ② 지경부('12) ⇒ ③ 쏜부처('13)



② 인센티브 지원제도 및 인증제도 운영체계 개선

- 조달청과 공동으로 「인센티브 지원제도 가이드」를 마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증제도 운영가이드」 마련·배포

③ 신규 인증제도 추진 절차 개선

- 각 부처에서 신규 인증제도 도입 시, 지경부와 협의절차 및 「인증제도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제도 난립 방지

④ 유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 통합 검토

- 유사한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 통합 가능성에 대하여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고, KS마크를 다른 부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검토

□ 향후계획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표원 내의 인증제도에 적용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 등 타부처 관련사항 협의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보완 후 지경부내의 인증제도에 확대 적용 소부처로 제도 확대 시행 방안 관련 부처와 논의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인증제도 해소 방안을 소부처에 확대적용

2 기타 활동 및 사업 추진실적

연구장비 전주기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장비 관리단' 출범

산업경제실 산업기술기반팀(☎2110-5202)

□ 추진배경

- R&D 투자 확대에 따라 장비구축을 위한 예산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장비의 중복·과잉 투자 방지 및 효율성 제고

* 지경부 연구장비 구축예산(지경부 R&D예산 대비 비중)은 '04년 1,733억원(6.7%)에서 '09년 3,845억원(9%)으로 2.2배 증가

□ 연구장비 관리단(11.5.3 출범) 주요 기능

① 장비 도입 심의기능 강화

※ (현행) 사업별 전담기관(5곳) → (개선) 연구장비 관리단으로 통합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통합, 심의대상 사업 확대, 심의위원 Pool 구성

② 통합 구매, 공급, 유지·보수 및 재활용(회수·재배치·처분)

※ (현행) 개별 사업수행기관 → (개선) 연구장비 관리단으로 통합

③ 장비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현행) 인프라넷 → (개선) 인프라넷 확대 및 기능개편

□ 기대효과

- (장비사용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장비관리 부대업무 경감, 기존장비 활용도 증가

※ 장비 관련 인력·예산 부담 경감, 기존장비 활용 증가와 필수장비 위주의 구매형태 증가

- (장비공급 : 장비제조사) 협상력 확보를 통해 해외 장비제조사와의 관계 재설정 및 국내 장비시장의 발전적 개편 유도

※ 독과점 형태의 해외 장비제조사에 대한 의존적 관계 개선, 연구장비 국산화 유도, 장비 MRO(Maintenance, Repair & Operation)시장 육성

- (정부 및 관리기관) 정부 R&D사업의 투자 효율성 증대

※ 중복투자, 도덕적해이 방지, 예산절감(향후 5년간 약 1,622억원 예상), 유휴 및 저활용 장비 재활용(회수, 처분, 재배치) 활성화

1만 에너지절약 우수가구 선발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절약정책과(☎2110-4873)

□ 사업개요

-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1만가구를 선발하여 순위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세부내용

- (절약실적 평가) 전기·가스·난방 사용량 합산
 - * 에너지원별 개별 사용량 증감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사용량 증감평가
- (대상 선정) 신청 방식(적극적 실천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그룹별 지원) 개별가구, 공동주택*, 저소득층**으로 구분, 추진

* 공동주택 : 아파트 관리소,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행동 유도 가능

** 저소득층 :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량 미미, 별도그룹으로 평가

- (지원 대상) 1만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개별가구	공동주택	저소득층
4,000가구	5,000가구(10개단지)	1,000가구

□ 접수결과

-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신청·접수가 진행된 “1만 에너지절약 우수가구 선발대회”에 150만 가구가 참가

* 전국 가구수를 기준으로 10% 이상의 가구가 참가

□ 포상방안

- ① (연간 에너지 절감) 1만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급
 - 각 가구의 에너지 절감실적을 바탕으로 우수사례 등을 종합평가하여 차등 지급
 - * 가구당 보상을 원칙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단지별 지급(최대 1억원)
- ② (전력피크 절감) 동·하계 피크기간동안 전력부하 절감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7~8월, 12~1월 2회 추진)

*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절감 실적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우정사업본부 금융자금 실물경제 지원

우정사업본부 예금재무운영과(☎2195-1352)

□ 추진개요

-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부족으로 개발제품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SOC 개발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현황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상품화 자금지원, 벤처 캐피탈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투자('11.상 3,753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전력·철도·교육시설 등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펀드 투자, 지방은행 예탁 및 지방우정청 운용('11.상 32,335억원)

< 실물경제 활성화 신규지원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목표			'11년 실적(6월말)		
		예금	보험	소계	예금	보험	소계
중소기업 지원(우수제품+금융상품)		2,500	500	3,000	3,624	129	3,753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SOC/공공펀드	500	500	1,000	197	223	420
	지방은행 예탁(누적)	1,000	1,000	2,000	2,000	-	2,000
	지방우정청운용(누적)	10,000	2,000	12,000	27,315	2,600	29,915
	소 계	11,500	3,500	15,000	29,512	2,823	32,335
총 계		14,000	4,000	18,000	33,136	2,952	36,088

□ 기대효과

-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우체국금융의 실물경제 역할 제고

농·어촌지역 특산품 판매 지원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과(☎2195-1233)

□ 추진개요

- 우수 농수산물 등 농어촌지역 특산품의 도·농간 직거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물가 안정 도모

□ 지원내용

- (판로지원) 품질이 우수한 농·어촌지역의 특산품을 발굴하여 우체국쇼핑에 입점 추진 등을 통한 판로지원
 - '11년 상반기 우체국쇼핑 특산품 신규모집 : 118개 업체 452종
 - 재해·재난지역 특산품의 한시적 특별판매*로 공급업체 자립 지원
 - * 일본 대지진으로 판로가 막힌 장미수출농가(전북임실 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기획전 개최('11.4월, 2,800건 48백만원)
- (품질관리 및 홍보강화)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공급중인 상품은 정기적으로 성분검사*와 관능검사**를 실시
 - * 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함유 여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2회 검사
 - ** 상품의 맛·규격·포장 상태 등을 한국우편사업지원단에서 연1회 검사
 - 명절(설, 추석) 및 가정의 달 등 시즌별 우체국쇼핑 사은 이벤트 및 DMB, 라디오,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광고 실시

< 지역특산품 판매현황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
취급건수(천건)	5,578	5,767	5,878	5,994	6,462	5,275
판매금액(백만원)	124,868	143,637	154,231	161,961	176,390	129,880

* 지역특산품 공급업체 및 품목 : 983개업체, 465품목, 7,369종

□ 기대효과

- 농·어민에게는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여 서민생활에 기여

3 4/4분기 정책 추진일정

□ 정책

	제 목	일 정
1	전자문서 新유통모델 확산방안	'11.10.26
2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	'11.10.27
3	전략물자비전 2020	'11.11.7
4	한 - 러시아 경제협력 추진계획	'11.11월
5	중소·중견기업 R&D 역량 강화방안	'11.11월
6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전략	'11.11월
7	부품·소재산업 미래비전	'11.11월
8	지능형자동차 핵심인프라 구축전략	'11.11월
9	「Personal Mobility」 新산업 활성화 계획	'11.11월
10	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	'11.11월
11	무역비전 2020	'11.12.12
12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2 ~ '14년)	'11.12.31
13	온실가스 분야 신서비스산업 육성방안	'11.12월
14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성방안	'11.12월
15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11.12월
16	철스크랩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11.12월
17	뿌리산업 자동화·첨단화 촉진 방안	'11.12월

□ 기술표준 분야

	제 목	일 정
1	국내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1.10월
2	전기차충전기 안전관리 대상 지정	'11.10월
3	전기용품안전인증 정기검사 인센티브제 확대 실시	'11.10월
4	세계 명품 창출을 위한 품질전략	'11.11월
5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	'11.11월
6	국민생활의 편의증진 및 안정을 위한 표준화	'11.12월

□ 우정사업 분야

	제 목	일 정
1	우체국체크 카드 사업 추진	'11.11월
2	우체국금융 네트워크 개방 확대	'11.12월
3	증장기 우편물류 인프라 고도화 추진계획	'11.12월

□ 고시·공고

	제 목	일 정
1	WBS 3차 사업 공고	'11.10.10
2	테크노파크 표준회계규정 고시	'11.10월
3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11.10월
4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공고	'11.10월
5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11.12.15

◆ 실물경제 동향을 추가로 원하시거나 받지 못한 기관 및 개인으로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경우 추가발송은 어려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위치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내

* 행정정보공개 - 간행물 - 실물경제 동향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TEL : (02) 2110-4709 ▪ FAX : (02) 2110-4700

실 물 경 제 동 향 제 1 호

발 행 일 2011년 10월

편 집 처
발 행 처 지식경제부

편 집 장 정만기

부 편 집 장 황규연

편 집 간 사 박진규

편 집 위 원 김성철, 이재홍, 박태성, 이동욱, 강명수, 이승우, 윤상흠, 김선민, 박건수, 김영환, 이호준, 조영신, 권오정, 김정희, 강갑수, 박태희, 이원주, 정대진, 문신학, 최우석, 나승식, 서기웅, 김현철, 김남규, 주영준, 안병화, 유법민, 이영훈, 고승진, 단희수, 정석진, 오승철, 박찬기, 김용래, 권규섭

인 쇄 나모기획
(☎) 02-503-5454
